

제1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목 차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아카이빙)의 의의와 방법	5
좌혜경(문화재위원)	
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	21
홍기표(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써 제주역사 다시 쓰기	63
조성윤(제주대 명예교수)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67
고광민(서민생활사 연구자)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99
김창일(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앨범을 활용한 자서전 만들기	135
정종영(동화작가)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161
강정효(사진작가)	
구술 채록을 활용한 보통 사람의 삶 기록하기	187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203
박정근(사진작가)	
기록 아이템 선정과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253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아카이빙)의 의의와 방법

좌혜경(문화재위원)

I. 기록화의 의의

1. 아카이브의 개념

- ‘아카이브’란 용어는 원래 정부나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소장하여 보관하는 문서관
- 기록보존서를 의미하는 보존문서관을 뜻하는 불어 ‘Archives’에서 유래
-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대문자 ‘Archives’를 사용
 -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로 보관, 자료간의 관련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 동영상, 음향, 텍스트, 사진, 화상정보, 음악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 정보 포함

2. 목적

- 제주 관련 연구물, 고문서, 고문헌, 도서, 생활문화에 대한 구술자료나 영상자료(CD, DVD), 사진 등,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향(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인 디지털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 기능
- 자료의 분류, 전시, 연구, 열람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아카이빙
- 21C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자원의 가치 창조와 콘텐츠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식 자원 자료의 활용

3. 필요성

-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제주 자료들이 필요함
- 사라져가는 생활사 Life Story 및 영상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연구가 시급함
- 자료의 보존·관리 최적화를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구성이 필요함
-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를 수집, 보존, 분석, 연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함
-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기능을 갖추어서 문화유산 기능을 지닌 LAM (Libraries, Archives, Museums)의 성격을 지니고 타기관의 제주학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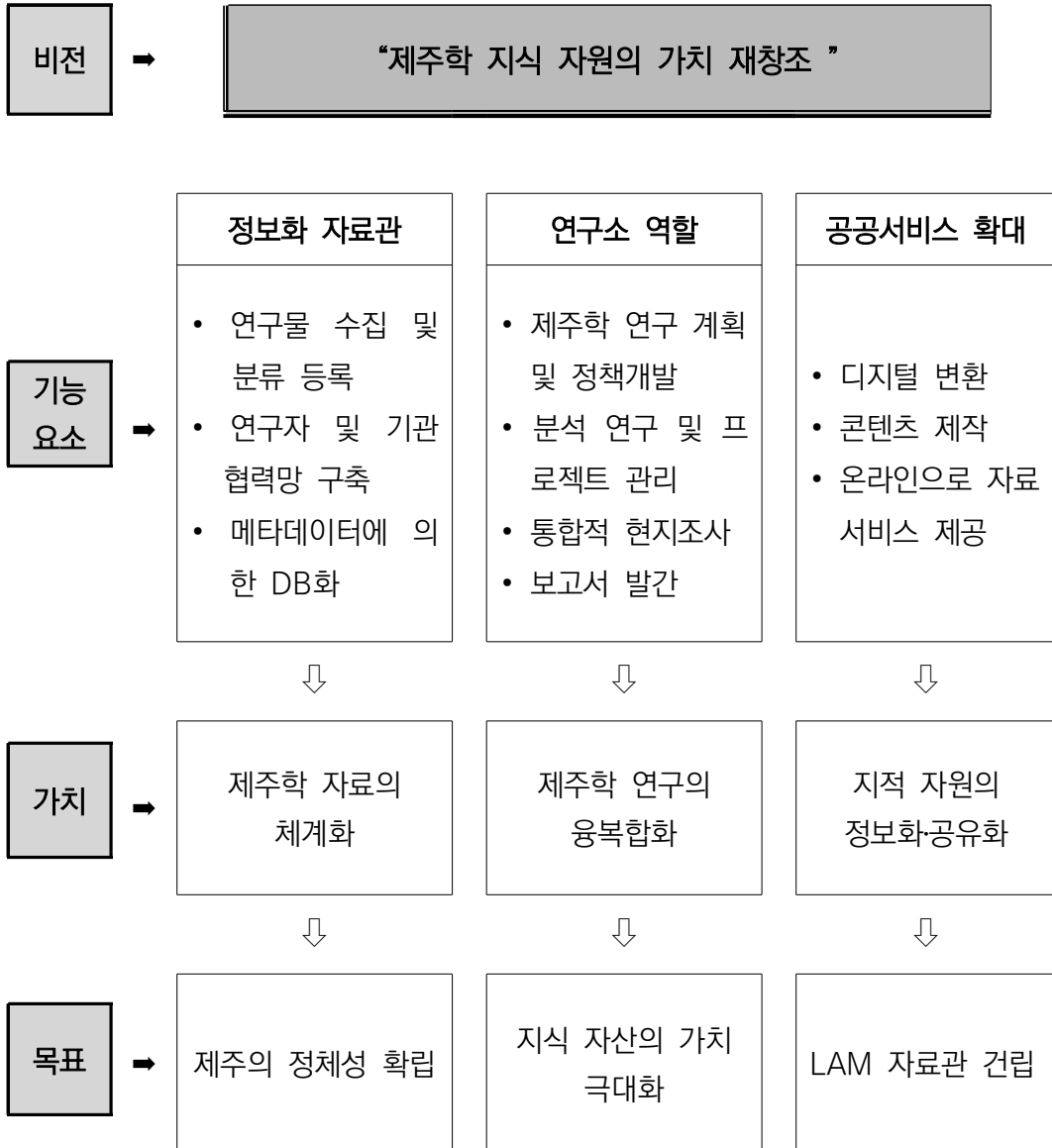
4. 의의

- 체계적인 자료 관리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지식을 활용 자산화하고,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제공으로 통합 교류가 가능함

-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 제공
-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신화, 해녀, 돌문화 등 문화 콘텐츠 확대 재생산 및 문화자원화
- 구축된 자료를 교육, 연구, 창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기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II. 아카이브의 방법 : 제주학아카이브를 예로

1. 비전



2.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 2012. 8 : 기본계획 설립

-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필요성 제기

○ 2013. 4 :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

- 디지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기능 요건 도출

○ 현황분석

- ‘제주학아카이브’에서 50000여건의 제주학 자료가 구축되어 대내외로 공개됨으로써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
- 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고문서와 고지도를 디지털화 함 : 고문헌 54건, 고지도 11건
- 제주학 연구물 1865건 : 단행본(259건), 보고서(545건), 논문(978건), 정기간행물(392건)
- 개인기증 등 사진자료 서재철 기증 자료 및 해녀, 오름, 포구등 제주관련 사진 5560건
- MBC, KCTV, KTV 기증 동영상 377건
- 역사 기사 등

□ 제주학아카이브 분류

제주학DB			
구분	세분		
총류	제주학		
	연보		
	학술조사		
	기타		
철학			

종교	무속		
	기타		
사회과학	여성		
	문화		
	민속		
	사회		
	교육		
	행정·법		
	관광		
	경제		
	정치		
순수과학	동물		
	식물		
	환경		
	해양		
	지질		
기술과학	의,식,주		
	건축		
	농축업		
	수산업		
	의학		
	산업		
예술	음악		
	미술		
	기타		
언어	제주어		
문학	구비문학		
	현대문학		
역사	고고		
	지리		
	제주사일반		
	사회		
	문화		
	4·3		
	인물		
	항일운동		

디지털아카이브			
구분	세분		
고문헌			
해외 문헌			
고지도			
사진	버섯		
	야생화		
	노루		
	곤충		
	새		
	목축		
	포구		
	해녀		
	무속		
	오름		
	지역사회		
	원담		
	성읍		
	문화재		
동영상	한라산		
	자연유산		
	제주인		
	해녀		
	문화상징		
	대한뉴스		
	민요		
	제주어		
	기타		
구술(음성)	민요		
	생애사		
	기타		
	구비전승		
신문기사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3. 업무

- 물리적으로 수집된 비정형화된 자료(텍스트, 사진자료, 녹취자료, 동영상 자료 등)에 대해서는 공간이나 인력 면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소관 업무 내역

업무별	총 소요 인원	소관 업무내역
관장	1	아카이브 업무 총괄 및 기획
아카이브정책 기획팀	3	아카이브 정책개발 대외교류 및 협력 추진 등 협력망 구성 아카이브 자료보존 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아카이브 서무,예산 관련 업무 아카이브 일반 자료 관리
아카이브 연구분석팀	4	아카이브 자료 수집 중장기 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심의 위원회 구성 업무 아카이브 자료 분류체계 수립 및 보고서 발간 아카이브 현지조사 및 보고서 발간 아카이브 자료의 콘텐츠 개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등록팀	2	아카이브 자료 수집 총괄 아카이브 자료 및 도서관리 기획 및 운영 아카이브 자료 분류 아카이브 자료 등록 및 DB구축 귀중본 지정 및 고서 보존관리 업무 기증문고 설치 및 관리 이용에 관한 업무 매체 변환 완료 자료의 자료보존관 이관 및 배가 업무 주제별 정보검색 대행 및 정보 봉사 업무
정보화팀	1	정보화 박물관 기획 및 운영 소장 유물 DB 구축, 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업무(웹마스터, 웹디자인)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 운영 국내외 정보망 협력 이용에 관한 사항 정보 검색 시스템의 유지
계	12	

4. 정보(메타데이터) 관리

○ 디지털아카이빙

- 원본 자체가 디지털인 자료 : 다양한 형식(format)의 사진, 동영상, 음원 등
- 유물의 실물을 촬영(사진, 동영상)하거나 복사한 자료
- LP, VHS, CD, DVD 등 특정 매체에 수록된 자료를 디지털화한 자료
- 필름, 인화된 사진 등을 디지털화한 자료

○ 기본 요건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관리(입력, 수정, 삭제 등)할 수 있어야 함

○ 수집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작품의 수집 구분에 따른 정보 관리
- 수집 구분 : 기증, 구입, 관리전환, 내부제작
 - ① 기증 : 기증자, 기증일, 기증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② 구입 : 판매자, 구입일, 구입금액, 판매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③ 관리전환 : 전 소유 기관, 관리 전환일
 - ④ 내부제작 : 제작자(촬영자, 구술자), 제작일(촬영일, 면담일), 제작 장소(촬영 장소, 면담 장소)
 - ⑤ 공통 : 수집 설명문 등 부가 정보(면담지 등)

○ 기본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식별번호, 명칭(이명칭, 영문명칭, 원어명칭), 자료의 분류

○ 상세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자료의 세부적인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필요시)유물 번호, 자료 설명문, 공개 여부, 공개 범위, 저작권 정보(저작권자, 저작권자 연락처, 이용 허락 범위, 저작권 세부사항)

○ 관계 관리

- 기능 정의 : 해당 자료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자료와의 관계 기술
- 주요 요소 : 관계자료의 식별번호, 관계설명문

○ 원본 위치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디지털 자료의 원본이 위치한 장소에 관한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원본 형태(실물, 필름, LP·VHS·CD·DVD 등 특정 매체, 문서, 도서, 디지털 자료), 소장처

○ 사용자(관리자) 관리

- 기능 정의 : 사용자 등록, 수정, 삭제, 사용자별 권한관리
- 주요 요소 : 일련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용여부, 그룹권한

○ 디지털 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자료의 디지털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파일 형식(format), 파일 크기(size), (필요시)상영시간, 파일 (텍스트-PDF포함, 이미지, 동영상, 음향), 디지털 정보 공개 여부

○ 자료 이용 이력 관리

- 기능 정의 : 디지털아카이브 자료 이용자 정보관리
- 이용 이력 정보 관리 (일시, 이용내용, 이용방식 등), 이용이력 통계, 레

포팅 기능

-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웹 열람 이력 구조 설계 포함

○ 분류관리 기능(코드관리) 개발

-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 초기 데이터 구축 및 향후 업데이트 관리기능 구현(입력, 수정, 삭제, 수정 등)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코드정보(원본 형태, 파일 형식, 수집 구분, 부서코드, 권한 코드 등) 관리

○ 통계 관리

- 기능 정의 : 보유 자료 현황 통계, 이용 이력 통계, 검색어 통계

5. 타 구축 사례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자원 아카이브 추진과정

- 2000. 5 : 이두현 선생 등 원로 민속학자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국립민속기록보존소의 건립을 건의
 - 2000.8.23. : '민속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술 세미나 개최
 - 2006 : 민속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개소
-
- 민속아카이브 수집대상과 방법
 - 자료 수집 및 보존: 시청각 자료(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TV 영상물 등)의 수집 및 소멸 위기에 처한 민속자료의 영상화·기록화, 소장자들로부터 기증, 복제, 위탁 적극 유도
 - 민속 문화재 및 자료의 체계적 채록 및 촬영 : 영상 및 필름 자료 수집, 문

헌자료 발굴, 북한민속자료 수집 및 연구, 근현대 생활사 자료 수집 및 보존 연구

- 민속자료의 체계적 분류 안 작성, 연구 보고서 및 자료집의 발간 및 보급
- 국내외 민속자료 소장자 파악 및 자료 목록화
- 유·무형 민속기능 보유자의 기록화
- 관련 자료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홍보
- 근현대 생활사 증언자의 Life History 채록
- 민속 문화 정보자료실 운영 : 시청각 자료실, 문헌 자료실, 북한 민속자료실, 근현대 생활사 자료실 등
- 민속 문화의 보존계승 관련 정책 개발 및 보존방안 강구
- 시·도 박물관 및 향토자료관 정보지원
- 국내와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망 구축

- 민속자원 수집현황

- 민속학 전문도서 : 몇 차례에 걸친 민속학자의 도서 기증을 통해 약 6만 5천여 권의 민속학 전문도서 확보

도서기증 현황

이름	기증 도서 수량	특징	비고
최상수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00여 책	한국민속학 도서	1990년
정승웅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033 책	한국민속학 도서 및 보고서	1999년
장철수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6,587 책 사진 1,200여 장	한국 및 독일민속학 다수, 관혼상제 관련 다수	2001년
임동권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000여 책 사진 20,000여 장	일본, 중국 민속학 다수	2006년

- 다양한 매체의 민속학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확보

소장 아카이브 자료현황

필름	스틸사진	디지털사진	CD	DVD	VHS	도서	음원	동영상
70,787건	2,000건	96,905건	704건	623건	3,052건	65,315건	5,500건	46,000분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 주요 추진 내용

구분	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현 국가기록 포털 서비스
서비스 형태	기록물 검색중심의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접근구조	기록물 유형 중심 접근	접근이 용이한 주제기반 콘텐츠 구축
컬렉션	일제강제연행자명부 외 1건	- 정기간행물, 국무회의록 등 10개 컬렉션 구축 - 35,373권 e-book 서비스 제공
기록물 서비스대상	일반기록물 등 200만권에 대한 목록정보	공개대상 기록물 4,700건 목록 및 원문 제공
서비스 기술	-	e-mail, SMS, DRM 등 고객편의 지향
온라인 서비스	-	온라인 사본신청 등 서비스 제공
신뢰성	-	서비스 컴포넌트 모델 운영

- 국가기록포털 주요 컬렉션

- 주요 기록군 별로 독립적인 분류체계 및 검색 체계 지원
- 기록의 생산 맥락, 개요 등에 대한 전문 정보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접근점 강화
- 주요 컬렉션 : 지적컬렉션, 관보컬렉션, 정책정보, 국무회의록,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업 목적 : 전국의 향토문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분석하여 디지털화하고, 시·군·구별 “디지털향토문화대전”을 통합 구축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시범사업 : 2003년 ~ 2004년(디지털성남문화대전 사업)
 - 본 사업 : 2004년 ~ 2013년(10개년)
- 주요 사업내용
 - 후보지역 선행연구 및 지역별 문화콘텐츠 제작
 - 편찬 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콘텐츠 산업정보 포털

- 콘텐츠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가치체계가 결합하면서 발전하는 매우 역동적인 창조적 산물
- 전통문화 속의 원형적 요소들을 콘텐츠화하여 문화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재 제공이 목적
- 문화원형 자원 활성화와 향후 추진방향
- 국가 미래 전략사업으로 중요
- 신규 콘텐츠 DB 구축을 통한 문화원형 자원의 활성화
- 문화원형 추가 개발 및 역할 인식 제고

※국내외 아카이브

국명	기관명
한국	국가기록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울기록원
미국	국립인류학아카이브(NAA) 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i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민속생활과 문화유산센터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HRAF Human Relations Area Files in Institute of Human Relations
	미국사박물관 아카이브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일본	國立公文書館 National Archives of Japan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Department of Historical Documents,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일본국립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핀란드	민속자료기록국
아일랜드	민속위원회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독일	독일 민요기록보존소(DVA) Deutsche Volksliedarchiv
	독일중앙설화수집소 Zentralarchiv der deutschen Volkserzählung
	독일 민속지도(ADV) Atlas der deutschen Volkskunde

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

-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

홍기표(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

1. 머리말

제주의 역사문화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옛 문헌으로 무엇이 있을까?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옛 문서들은 어떤 종류와 내용의 문서들일까? 이들 옛 문헌과 문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읽기 힘들데 혹시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책은 없을까? 최근 들어 제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고문헌과 고문서가 자주 발굴되고 소개되며, 역주서 또한 해가 다르게 출간되고 있는데 어떤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하는가?

이상의 질문은 제주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물음이다.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일반인들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종합적인 해설을 하려 한다. 고문헌은 책의 성격을 먼저 분류 하고나서 간행 시기와 간략한 내용 및 소장처 등을 소개할 것이다. 고문서는 다양한 종류에 방대한 분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 및 서울의 공공기관, 마을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종류와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고문헌은 김정의 『제주풍토록』 등 개인문집, 이원진의 『탐라지』 등 역사지서, 이원조의 『탐라계록』 등 장계첩, 군사전적류의 『탐라방영총람』, 방목류의 『급제선생안』 및 김영락의 『효열록』까지 크게 성격별로 나눈 뒤 해당 문헌을

살펴볼 것이다. 고문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및 서울대 규장각 등 공공기관 소장 문서, 대정 안성리 및 애월 지역(수산리, 중엄리, 하가리) 소장 문서, 제주의 각 종친회 소장 문서를 살펴보려 한다.

II. 제주의 고문헌

제주의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문헌은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저술이 있다. 조선시대 여러 관료 학자들이 펴낸 개인문집에서부터 탐라의 건치연혁과 풍속토산 등이 상세히 기술된 역사지지서에 이르기까지 약 35편의 저술이 확인된다. 여기에 제주목사 및 어사가 제주의 실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장계·서계첩, 군사제도와 방어시설을 살필 수 있는 군사전적류, 제주인의 과거급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목류까지 더하면 약 50편에 달하는 고문헌을 만나게 된다.

개인문집은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등 21권이 제주 관련 시문이나 기행문 및 일기체 저술을 남기고 있다. 이들 문헌은 제주의 실정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는 저술들이어서 제주의 변화상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와 관련 있는 여러 선대의 기록을 병행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주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지지서는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에서부터 『제주·대정·정의 군읍지』까지 10편이 넘는 고문헌이 전한다. 여기에 1918년 『탐라기년』과 1954년 『증보탐라지』까지 더하면 약 15편의 제주 역사지지서가 전한다. 제주의 역사문화와 사회경제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역사지지서들을 접하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건치연혁에서 풍속, 토산, 명승, 고적, 성곽, 인물, 관풍안까지 약 40개 전후의 주제를 설정하여 제주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목의 장계·서계첩은 제주목사 및 어사들이 제주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헌들인데 당시 제주의 여러 현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18~19세기의 조선후기 문헌이어서 조선 전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 사회경제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어서 최근 들어 활발한 역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는 섬이어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의 동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 등 군사통신 시설 및 9진성과 같은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군사편제 역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주속오군군적부』 및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 등의 군사 전적류가 참고 된다.

방목류는 조선시대 소과 및 문무과에 급제한 제주인들의 명단을 시대순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급제선생안』 및 『용방록』, 『연방록』이 대표적인 문헌인데, 이를 통해 수백 명의 조선시대 제주 인재들을 파악할 수 있다. 『탐라빈흥록』은 비록 정조 대에 국한하지만 제주에서의 과거 시행경위, 과거문제, 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은 『효열록』도 전한다. 조선은 유교국가이며 삼강오륜에 입각한 사회규범을 강조했다. 강상죄를 중죄로 여겨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정도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제주의 의사, 효자, 열녀 등의 일화도 채록되어 빠짐없이 전하고 있다. 방목류의 문헌과 더불어 『효열록』은 제주의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문헌이 된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굴된 또는 역주까지 이루어진 제주의 고문헌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개인문집 및 역사지리지 등 아직 미발굴의 상태로 있는, 또한 아직 역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도 상당량에 이른다. 차후 연구성과에 따라 보다 많은 제주의 고문헌이 소개되며, 과거 제주의 상세한 실정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1. 개인문집

조선시대 제주는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변방이며,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악도(遠惡島)로 알려져 기피 대상이 됐던 곳이다. 하지만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중 하나인 영주산(한라산)이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해서 이 곳 제주에 부임한 제주목사는 물론 안무어사 및 귀양 온 유배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제주 방문과 관련 여러 시문을 남기거나, 일기체 형식의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다. 대부분 개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제주 관련 시문 및 기행문은 당대의 제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들 문집에는 제주 관련 역사지리지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회와 입장까지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의 기술을 통해 당대의 제주를 더욱 더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와 관련한 다수의 시문을 개인 문집에 남긴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의 21권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장 이른 15C의 문집은 두 권이 전하는데, 이약동의 『노춘선생실기』와 최부의 『(금남)표해록』이 있다. 『노춘선생실기』는 1470년(성종 1) 10월부터 1473년 8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약동의 문집이다. 그는 한라산 산신제를 정상에서 지금의 산천단으로 옮겨 그 폐해를 시정하였으며, 제주의 물건은 단 한 점도 가져가지 않아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이다. 『(금남)표해록』은 1487년(성종 18)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부임했던 최부가 부친상을 당해 이듬해 제주를 떠났는데, 중국의 절강성 영파부에 표착하여 이후 중국을 종단하며 조선의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약 6개월간의 역경을 상세히 적어 성종에게 올린 문헌이다. 현재 전하는 ‘표해록’ 중 가장 오래된 귀중한 자료이다.

16C의 문집은 세 권이 전하는데, 김정(金鼎)의 「제주풍토록」(『충암선생문집』 권4)과 조사수·박충원의 『영해창수록』, 임제(任濟)의 「남명소승」(『백호선생문집』 부록)이 그것이다. 「제주풍토록」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그 이듬해 제주에 유배 왔다 1년 만에 사사된 김정(金鼎)이 그의 생질에게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써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글이다. 내용은 제주의 기후, 가옥구조, 풍속, 신앙, 민정, 토산 및 그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떠난 제주

최초의 풍토지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영해창수록』은 제주목사 조사수와 친구인 영월군수 박충원이 주고받은 한시(132수)를 수록한 시집이다. 1702년(숙종 28) 박충원의 5대손으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박성석이 재임 중 제주영에서 목판본으로 펴냈다. 제주의 풍속, 생활, 지역방어 등의 내용을 한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남명소승」은 임제의 제주도 기행문이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1577년(선조 10)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을 뵈러 제주를 방문하였다. 그 기간 동안 임제는 제주를 일주하며 경승을 두루 구경하고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하여 일기체 형식의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남명소승이다.

17C의 문집은 네 권이 전하는데, 김상헌의 「남사록」(『청음선생유집』 권2), 이건의 「제주풍토기」(『규창집』 권5), 이증의 『남사일록』, 이익태의 『지영록』이 그것이다.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의 일기체 기행문이다. 한라산 산신제 거행, 문무과 시행 및 방어시설 점검(제주 일주), 과원 및 공물의 자세한 실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 문화유적 등을 언급할 때마다 이전의 모든 제주 관련 자료를 인용하며 기술했기 때문에 17세기 이전까지 제주 실정이 종합적으로 기술된 당대 최고의 제주 해설서이다. 「제주풍토기」는 1628년(인조 6) 유배 온 왕족 이건이 1635년(인조 13)까지 약 8년간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풍토기이다. 제주의 풍속, 생업활동, 신앙, 동식물 등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느낌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남사일록』은 1679년(숙종 5) 제주에 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된 이증의 일기체 기록이다. 제주의 군기와 방어시설 점검, 삼읍 수령의 민정, 과거 및 한라산신제 시행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지영록』은 1694년(숙종 20) 7월부터 1696년 9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익태의 문집이다. 목사로서의 공무 시행과 행적(제주도 순력과 명승지 여행), 제주 역사 및 외국인 표류(효종~숙종대) 등이 기록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명승 열 곳을 꼽은 「탐라십경도서」가 수록되어 있다.

18C의 문집은 가장 많아 여덟 권을 들 수 있는데,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형상의 『병와집』, 송정규의 『해외문견록』, 남구명의 『우암선생문집』,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김정의 『노봉선생문집』, 김춘택의 『북헌집』, 신헌수의 「탐라록」(『석북선생문집·권7』), 장한철의 『표해록』(제주도유형문화재 제27호)이다. 『병와집』은 1702년(숙종 28)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형상의 문집이다. 이형상은 「탐라순력도」 및 『남환박물』 등의 편찬을 남겼으며, 『병와집』에도 「탐라순력도서」, 「제주민막장」 외에 다수의 제주 관련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해외문견록』은 1704년(숙종 30) 10월부터 1706년(숙종 32) 9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송정규의 책이다. 17세기 약 100년 간 제주에 표류한 외국인 및 타국에 표류한 제주인들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이다. 표류사건 9건, 최부의 「표해록」 요약 1건, 제주의 사건과 인물 6건 등 총 16건의 기록으로 구성됐다. 『우암선생문집』은 1712년(숙종 38) 10월부터 1715년 5월까지 제주판관으로 재임했던 남구명의 문집이다. 내용은 제주의 산천과 형승, 풍속과 신앙, 기후와 풍토, 육지와와 교통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탐라문견록』은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정필녕을 따라 1731년(영조 7) 9월 제주에 들어온 정운경의 문집이다. 내용은 제주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로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고상영 등 14명의 제주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다. 『노봉선생문집』은 1735년(영조 11) 4월 도입하여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수행한 제주목사 노봉 김정의 문집이다. 그는 삼천서당을 건립하고 화북포 축항공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과거 탐라국의 명소를 복원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이다. 80여 수의 시, 39편의 문과 삼천서당 주변의 명소 제명(중장병·용린병·호반병·지주암 등) 등 상당수의 제주 관련 시문이 전한다. 『북헌집』은 1706년(숙종 32) 제주로 유배 와 이후 6년을 지낸 유배인 김춘택의 문집이다. 「초년록」과 「수해록」은 제주 유배 기간에 쓴 시문집으로 제주의 풍물과 고통스런 유배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탐라록」은 의금부도사 신헌수가 죄인 압송차 제주에 왔다가 40여 일 머물며 화북·조천 등지에서 동행한 이익 등과 화창한 한시집(95수)이다. 「한라산가」, 「잠녀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해록』

은 1771년(영조 47) 제주인 장한철이 지은 표해기행문이다. 장한철은 서울에서 치르는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 1770년 12월 25일 서울로 올라가는 29명 일행의 장삿배를 탔다가 표류하여 유구열도에 이르렀다. 이듬해 5월 초 귀향하기까지 약 6개월간의 표류 일정을 기록하였다.

19C의 문집은 세 권이 전하는데,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 이원조의 『탐라록』, 이강회의 『탐라직방설』이다. 『정헌영해처감록』은 1777년(정조 1) 제주에 유배되어 약 20여 년을 지낸 정헌 조정철의 시집이다. 635수의 시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불우한 신세 한탄, 억울한 감정, 제주 특유의 풍속과 경승 등을 읊었다. 「망한라산」(33수), 「탐라잡영」 등이 유명하다. 『탐라록』은 1841년(헌종 7) 1월부터 1843년 7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가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시문집이다. 제주순력, 문무시재, 한라산신제 및 풍우뇌우제 시행 등이 기록되어 있다. 『탐라직방설』은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회가 제주도의 산천, 산물, 인구, 농업, 군사 등 지방통치와 관련된 모든 인문지리적 정보를 기술한 1권과 「상찬계시말」이라는 양제해 옥사(1813) 사건의 진실을 기록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1921년 간행된 김윤식의 『속음청사』는 1887년~1921년 약 35년간의 일기인데, 이 중 1898년~1901년(9~10권)이 제주 유배 중의 기록이다. 이상 총 21권의 개인문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개인문집 일람

연번	서명	저자	시기	소장처
1	노촌선생실기	이약동	1473년(성종 4)	제주교육박물관
2	(금남)표해록	최부	1488년(성종 19)	국립중앙도서관
3	제주풍토록	김정(金淨)	1521년(중종 16)	대전시립박물관
4	영해창수록	조사수, 박충원	1540년(중종 35)	서울대규장각
5	남명소승	임제	1578년(선조 11)	성균관대도서관
6	남사록	김상헌	1602년(선조 35)	서울대규장각
7	제주풍토기	이건	1635년(인조 13)	서울대규장각
8	남사일록	이증	1680년(숙종 6)	개인 소장
9	지영록	이익태	1696년(숙종 22)	국립제주박물관
10	병외집	이형상	1703년(숙종 29)	서울대규장각
11	해외문견록	송정규	1705년(숙종 31)	일본 천리대도서관
12	우암선생문집	남구명	1715년(숙종 41)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13	탐라문견록	정운경	1735년(영조 11)	서강대·단국대 도서관
14	노봉선생문집	김정(金儼)	1737년(영조 13)	고려대도서관
15	북한집	김춘택	1760년(영조 36)	서울대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16	탐라록	신광수	1764년(영조 40)	고려대·성균관대도서관
17	표해록	장한철	1771년(영조 47)	국립제주박물관
18	정헌영해처감록	조정철	1824년(순조 24)	서울대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19	탐라록	이원조	1843년(헌종 9)	한국국학진흥원
20	탐라직방설	이강희	19C 중엽 (추정)	일본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
21	속음청사	김윤식	1901년(고종 38)	국사편찬위원회

한편 제주인이 남긴 개인 문집으로는 다음의 네 권을 꼽을 수 있다. 이한진의 『매계선생문집』, 김양수의 『난곡시집』, 김희정의 『해은문집』, 안병택의 『부해문집』이 그것이다. 이들 문집은 대부분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던 유고시문집 등이 후세에 편철되어 전하기 때문에 문집 자체는 조선시대 고문헌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시기가 19세기 후반 무렵이며 남긴 시문 역시 당대의 산물이고, 무엇보다 제주인이어서 그들의 문집을 통해 당시의 제주 실정을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된다.

『매계선생문집』은 조천 신촌리 출신 매계 이한진의 문집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를 사사했고, 당시 제주목사인 목인배로부터 ‘남도의 태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삼천서당에서 훈학에 힘썼으며, 문하생으로 안달삼, 김희정, 이계징 등이 있다. 시 264수가 전하며, 이 중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10

곳을 선정하여 ‘영주십경’이라 이름 붙이고 시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저작이 돋보인다.

『난곡시집』은 조천리 출신인 난곡 김양수의 시집이다. 영주십경 및 한라산의 정취 등을 담은 한시 총 275수와 「제주향교중수기」를 포함한 잡저 6편 등이 수록됐다. 김양수는 제주목관아에 있는 「영상이공최응영세불망비」의 비음을 지은 인물로, 금석문으로도 그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은문집』은 매계 이한진의 문하생이며, 면암 최익현을 사사했던 조천 출신 해은 김희정의 유고시문집이다. 내용은 시 430여 수, 문 29편 등으로 되어 있다. 그의 「한라산기」는 현전하는 제주인 최초의 한라산등정기이며, 「도해록」은 구한말 일본의 제주어장 침탈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이다. 김희정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훼철되자, 오현을 다시 추모하기 위해 1892년(고종 29) 그가 발의하여 오현의 조두석을 세워 현재의 오현단을 조성한 인물이다.

『부해문집』은 조천 선흘리 출신 부해 안병택의 유고 문집이다. 그는 부친 안달삼의 가르침을 받다가, 25세 되던 해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옮긴 후 노사기정진 및 송사 기우만에게 성리학을 익힌 유학자이다. 그의 문인으로는 의병장 고사훈, 김만석 및 유학자 김석익, 이응호 등이 있다. 시 389수, 간찰 258편, 기·서·설 등의 문 15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총 네 권의 제주인 개인문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주인 개인문집 일람

서명	저자	생몰년	수록 내용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1823~1881	「영주십경」 등 한시 264수
난곡시집	김양수	1828~1887	한시 275수, 잡저 6편
해은문집	김희정	1844~1925	한시 430수, 문 29편
부해문집	안병택	1861~1936	한시 389수, 간찰 258편, 기·서·설 등 151편

2. 역사지지서

제주의 역사지지서는 총 13편이 전한다.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3편, 지방(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10편이 전한다. 이들 문헌에는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물, 방어시설, 고건물, 명환, 인물, 제영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주의 역사 문화에 대해 백과사전 역할을 하는 문헌으로 조선시대 제주의 실정 전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제주사 또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에 의해 널리 읽혀졌던 문헌이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3편은 모두 조선전기에 편찬된 것으로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들 수 있다. 『고려사(지리지)』(권57, 탐라현)는 정인지 등이 1451년(문종 1)에 편찬한 문헌으로 제주의 건치 연혁과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권 151, 제주목·정의현·대정현)는 1454년(단종 2)에 편찬한 문헌으로 제주의 건치 연혁과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상 두 문헌은 제주에 관한 내용이 처음 소개되었지만 내용이 빈약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은 제주의 건치연혁, 풍속, 토산 등 총 19항목에 달하는 주제별로 제주의 실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도 풍부하다. 사실상 제주 역사문화 백과사전의 출발점으로 이해되는 중요한 문헌이다. 원래 노사신 등이 1481년(성종 12)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 이행 등이 이를 증수하여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제주(목)에서 발간한 역사지지서로는 총 10편이 있다. 먼저 제주목사의 명으로 편찬된 지지서가 4편으로 이원진의 『탐라지』, 이형상의 『남환박물』,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이 있다. 읍지류로는 5편이 있는데 정조 때 편찬된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와 고종 때 편찬된 『제주군읍지』, 『대정군읍지』, 『정의군읍지』가 있다. 이들 지지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는 그 주제가 최소 2배가 넘는 36항목에서 44항목까지 소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 역시 방대한 분량이 기술되어 있어 제주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

서로 자리매김 된다. 예컨대 1765년(영조 41) 간행된 윤시동 목사 때의 『증보탐라지』는 조선전기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는 항목별로 세분화한 주제가 눈에 띈다. 관방이 방호소와 수전소로, 봉수가 봉수 및 연대로, 인물에는 효자, 열녀가 별도로 소개되어 있다. 또 부세 수취와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전결,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등 제주의 사회경제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그것이다.

한편 위의 역사지지서와는 달리 편년체 제주통사로 김석익의 『탐라기년』(영주서관)이 1918년 출간되었다. 비록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제주인이 제주 역사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편년체로 상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전의 『탐라지』 류에서 확인되는 ‘건치연혁’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정통 사서들을 두루 섭렵하며 인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역사지지서 13편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는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의 역사지지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종본 성격으로 1954년에 출간된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도 함께 소개한다. 이들 역사지지서에 대한 역주 사업도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은 한글로 번역되어 주석까지 보충하여 제공되고 있다. 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제주의 역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표 3] 역사지리지서 일람

서명	간행연대	편저자	내용(주제 항목)
고려사 지리지	1451(문종 1)	정인지 등	건치연혁, 해로 (2항목)
세종실록 지리지	1454(단종 2)		건치연혁,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8항목)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중종 25)	이행 등	건치연혁, 성씨, 풍속, 형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궁실, 누정, 학교, 교량, 불우, 사묘, 고적, 명환, 인물, 제영 (19항목)
탐라지	1653(효종 4)	이원진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교량, 토산, 전결, 성곽, 방호소, 수전소, 봉수,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열녀, 제영 (36항목)
남한박물	1704(숙종 30)	이형상	읍호, 노정, 해, 도, 기후, 지리, 경승, 사적, 성씨, 인물, 풍속, 문예, 무예, 전답, 토산, 금, 수, 초목, 과일, 마우, 물고기, 약재, 공물, 부역, 사당, 관방, 봉수, 창고, 공해, 병제, 공방, 노비, 관리, 행적, 고적, 명환 (36항목)
증보탐라지	1765(영조 41)	윤시동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지형, 형승, 산천, 도리, 교량, 풍속, 토산, 면촌, 호구, 전결, 성곽, 방호소, 수전소, 봉수연대, 관우,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충신, 열녀, 제영 (41항목)
제주읍지	1781(정조 5)	정조	건치연혁, 군명, 관직, 방리, 도로, 성지, 산천, 성씨, 풍속, 학교, 서원, 단묘, 공해, 진보, 봉수, 교량, 목장, 누정, 형승, 도서, 물산, 진공, 상납, 호구, 전총, 전세, 대동, 봉름, 요역, 창고, 조적, 군기, 군액, 노비, 선생안, 인물, 과환, 고적, 책판 (39항목)
제주대정정읍지	1793(정조 17)	정조	
탐라지초본	1843(헌종 9)	이원조	건치연혁, 읍호고증, 산천, 도서, 물산, 토속, 관직, 씨족, 방리, 호구, 도로, 교량, 성지, 단묘, 학교, 공해, 누관, 진보, 봉수, 목양, 과원, 공헌, 전결, 대동, 봉름, 요역, 조적, 창고, 군액, 노비, 공장, 인물, 과환, 형승, 제영, 고적 (36항목)
제주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방호소, 수전소, 교량, 토산, 전결, 성곽,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장관,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열녀, 불우, 시읍지(경영리수, 본주사표, 도리, 결총, 호총, 공헌, 천물, 사환, 마장, 장화세총, 공해, 단묘, 진보) (44항목)
대정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정의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탐라기년	1918	김석익	서, 의례, 탐라위호연혁도, 외서(탐라국), 권1(고려), 권2~4(조선), 부록(1906~1955)
증보탐라지	1954	담수계	지리(산천, 천지, 사수, 도로, 도서), 명소고적(명승, 고적, 관아, 누정, 창고, 성곽, 봉수, 사묘, 학교, 사찰, 과원, 감굴, 목장), 연혁(통사, 기문전설, 제영, 구례), 기상, 풍속, 구획, 관공서, 교통, 통신, 교육, 종교, 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산업기관, 금융기관, 인물(과환, 진사, 문학, 재유, 필원, 효자, 의사, 효부, 열녀, 절부, 의녀, 충비, 의술, 천문, 지리, 부호, 골계, 승려, 기타), 관풍안 (55항목)

3. 제주목 장계·서계첩

제주의 수령(목사·현감 등)이 제주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글을 장계(계문)라 하며, 어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글을 서계라 한다. 총 5편의 고문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장계초』, 『서계집록』, 『탐라계록』, 『탐라목관첩』, 『제주계록(탐영계록·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 등이다.

『탐라장계초』는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린 장계만을 모아 별도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장계의 내용에 따라 공물, 포작, 잡녀, 부세, 계후, 시사, 제례, 마정, 농사 등 총 19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편철하였다. 18세기 초 당시 제주의 현안 및 사회경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서계집록』은 조선후기 정조 때 어사들의 서계를 모은 것이다. 총 9책의 필사본으로 1777년(정조 1)부터 1794년까지의 서계인데, 이 중 제4책이 제주순무어사인 박천형의 서계이다. 『탐라계록』은 이원조 목사 재임 중인 1841년(헌종 7)부터 1843년(헌종 9)까지 조정에 보고하거나 청원한 장계(105건)들을 정리한 책이다. 내용은 이양선 출현, 조난사고, 굴의 작황 및 진상, 중죄인 심리 내용, 말의 진상 등으로 되어 있다. 『탐라목관첩』은 1845년(헌종 11)부터 1854년(철종 5)까지 10년간 재임한 제주목사 6인(권직, 이의식, 장인식, 이현공, 백희수, 목인배)이 조정에 올린 장계(99건)를 정리한 책이다. 내용은 이양선 및 표류민, 굴나무 현황, 환곡 및 군역의 폐단, 우도와 가파도의 개간과 입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계록(탐영계록·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은 1846년(헌종 12)부터 1884년(고종 21)까지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을 편철하여 낸 책이다. 총 5책의 필사본으로 이루어진 이상의 장계는 198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19)·전라도편(2)에 영인 수록하여 간행되었다. 총 498건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류민, 해상사고, 제주삼읍의 농사 현황, 굴의 종류와 진상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표 4] 제주목 장계·서계첩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탐라장계초	1702(숙종 2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4-2호)
서계집록(제4책)	1781(정조 5)	서울대 규장각
탐라계록	1841(헌종 7)~1843(헌종 9)	제주교육박물관
탐라목관첩	1845(헌종 11)~1854(철종 5)	서울대 규장각
제주계록(탐영계록· 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	1846(헌종 12)~1884(고종 21)	서울대 규장각

4. 군사 전적류

조선시대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총 5편이 있는데 시대순으로 『제주속오군군적부』, 『탐라방영총람』, 『보초등록』, 『대정군 군병도안』,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이다. 물론 이 문헌 외에도 각종 역사지리지에도 ‘성곽’, ‘봉수’, ‘군액’ 등의 주제로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속오군군적부』은 이형상 목사가 1703년(숙종 29) 『탐라순력도』를 제작할 당시 배지(背紙)로 사용했던 낱장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2000년 『탐라순력도』를 보수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조선 숙종 때 정군이 아닌 속오군(예비군)에 대한 군적부로 직역, 이름, 나이, 부친명,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염 상태, 흉터, 기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의 방어체제와 사회제도를 엿볼 수 있다. 『탐라방영총람』은 조선후기 영조 때인 1760년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의 군정, 제주목관아 배치도, 주요 인적 구성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삼읍 군병의 총수를 15,290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봉수와 연대를 구분하여 소개해 봉수 24개소, 연대 37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보초등록』은 1795년(정조 19)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때 진상마의 내역을 기록하여 전라도 감영에 보고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다. 동원된 뱃사공 이름, 배의 길이와 크기, 배에 실은 말의 성격과 숫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정군 군병도안』은 1870년(고

종 7)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병들의 도안이다. 도안은 정기적으로 각종 군병들을 조사하여 그 소속이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성정군, 좌우마대, 속오군, 군수 수졸, 차귀진·모슬진의 방군과 파수, 봉수·연대의 각종 군병, 교직생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 수록 인원은 1,843명이며, 당시 지방의 군사행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은 제주의 병제와 봉수연대에 관한 기록으로 편자, 편년은 미상이다. 제주 삼읍의 군제, 봉수연대, 장졸총록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표 5] 군사 전적류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제주속오군군적부	1703년(숙종 29) 이전	제주국립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5호 (2002.04.17.)
탐라방영총람	1860년대 추정	개인 소장	•
보초등록	1795년(정조 19)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0호 (2009.07.24.)
대정군 군병도안	1870년(고종 7)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9호 (2009.07.24)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	미상	서울대 규장각	•

5. 방목류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총 네 편이 있는데 시대순으로 『급제선생안』, 『탐라빈홍록』, 『용방록』, 『연방록』이다. 물론 이 문헌 외에도 『탐라지초본』(이원조) 및 『증보탐라지』(답수계) 등 역사지리지서에도 ‘과환’의 주제로 제주인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명단을 확인하려면 이들 문헌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급제선생안』은 1720년(숙종 46)에 작성된 것으로 1558년(명종 13)부터 1815년(순조 15)까지 총 338명의 무과급제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탐라빈

흥록』은 1794년(정조 18년)에 제주도에서 시행한 문무과의 시행경위와 급제자 명단, 과문 등을 한데 모아 규장각에서 간행한 것이다. 내용은 윤음, 장계, 회유문, 방목, 과문 등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용방록』은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이다. 표제는 용방록이라 하였으나 안 표제는 「진신선생안」이라 되어 있다. 『연방록』은 조선시대 소과(사마시)인 생원과, 진사과의 향시(1차)와 회시(2차)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이다. 표제는 연방록이라 하였으나 내제는 「사마선생안」이라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6]이다.

[표 6] 방목류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급제선생안	1720년(숙종 46)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2호 (1991.06.04.)
탐라빈흥록	1794년(정조 18)	서울대 규장각	•
용방록 (진신선생안)	1863년(철종 14)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0호 (1991.06.04)
연방록 (사마선생안)	1891년(고종 28)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1호 (1991.06.04)

6. 기타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아 엮은 『효열록』이 있다. 1834년(순조 34) 당시 한응호 제주목사의 명으로 김영락이 작성하였는데, 효자, 효부, 열녀, 의사의 순서로 총 62인의 효행, 열행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8호(2009.07.24.)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Ⅲ. 제주의 고문서

고문서는 발급자(갑)와 수취자(을)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 받은 글로써 1910년 이전까지의 문서를 뜻한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공용서식이 등장하여 문서가 신식으로 바뀌었고 국한문을 혼용하였으며 간지연대가 아닌 개국기원연대 등을 사용하여 예전의 문서와는 다른 차별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문서의 하한을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으로 보는 이유는 상소, 차자, 각종 매매문기 등 옛 문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문서에는 문집이나 일기와 같은 저술류, 장부류 및 등록류, 관찬사서 등도 넓은 의미로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 고문서는 위의 고문헌류를 제외한 글들을 지칭한다. 갑을 간에 일어나는 명령, 훈유, 임명, 건의, 청원, 소송, 통지, 계약, 증여, 공증 등의 사안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를 고문서라 할 수 있다. 공문서, 관문서, 외교문서 등 발급자가 국가(왕실, 조정)나 관청일 경우와 사인이 발급하는 화회문기, 매매문기, 혼서, 간찰 등이 있다.

현존하는 고문서의 총량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 국가 공공기관 및 도서관·박물관 등은 목록화하여 공개하지만 사찰서원, 종가 및 개인 가문, 개인수집가 등은 비공개로 소장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규모를 알 수 없다. 2010년 기준 공공기관의 고문서 소장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7만 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만 여건, 국사편찬위원회 5만 여건, 토지주택박물관 4만 여건, 국립중앙도서관 16,000여건, 연세대학교 15,000여건, 고려대학교 6,000여건 등이 있다.

고문서는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다. 물론 고문서라고 모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다른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사료가 있다. 또한 개인문집, 관찬사서, 등록류 등의 고문헌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관계 및 주관 등으로 인해 사실의 취사선택 및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문서는 사실 그 자체를 밝히는 문서류이므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헌사료의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으며, 역사연구에 생동감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9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고문서정리법』을 펴내 「한국고문서분류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고문서를 수집하고 펴내는 자료인 『고문서집성』의 편집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그 분류를 보면, 총류, 교령류, 소차계장류, 첩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고류, 치부기록류, 시문류, 외교문서류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문서의 분류 기준은 크게 국내문서와 국외문서(외교문서)로 나눈다. 또한 문서 내용이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가 있게 마련이므로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국내문서를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왕(왕실)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결사문서, 종교문서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본고는 위의 분류별 구분을 따르기보다는 제주의 고문서를 살펴 보려 하기 때문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고문서의 종류를 소개하기로 한다.

1. 기관 소장 고문서

제주의 고문서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네 곳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제주의 기관으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이며, 제주 이외 기관으로는 서울대 규장각이다. 이 중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고문서는 제주 관아에서 왕실 및 중앙관아에 보고하는 형식의 성책류, 형명부가 주를 이룬다. 제주의 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데,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는 다시 임명장류, 관아문서, 청원문서, 호구문서의 네 주제로 나누고, 사문서 역시 기록문서, 매매문서, 증빙문서, 축원(의례)문서의 네 주제로 나눈다. 이는 현재 제주의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고문서를 감안하여 필자가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먼저 공문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임명장류는 교지(칙명), 홍패, 백패, 교첩,

관고첩, 망기 등이 있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관료에게 내리는 교지는 고신,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흥패,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라 하였다. 대한제국 때는 칙명이라고 하였다. 교첩은 5품 이하, 관고첩은 7품 이하 관원 임명장이다. 망기는 인물을 천거할 때 3인의 인물명인 삼망(三望)을 기록한 문서이다.

관아문서는 첩, 첩지, 첩정, 서목, 전령(훈령), 고목, 완문, 입안, 진상단자 등이 있다. 첩은 관아에서 7품 이하 관원 또는 향리를 임명할 때나 유생을 제관으로 임명할 때의 임명장이다. 첩지는 관아에서 이속을 임명할 때 쓰는 임명장이다.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의 문서이며, 서목은 그 첩정에 첨부하는 문서이다. 전령은 상급관원이 하급관원 또는 백성에게 발급하는 문서인데, 갑오개혁 이후 훈령으로 바뀌었다. 고목은 관청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올리는 간단한 보고문서이다. 완문은 관에서 사실 확인 또는 권리특전 인정을 위해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인정서이다. 입안은 개인의 청원에 따라 관청에서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위해 발급하는 공증문서이다. 진상단자는 제주의 말을 왕실 및 각 관청에 올리는 과정에서 말의 수효•종류 및 인솔 인원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청원문서는 상소, 차자, 소지, 등장, 단자 등이 있다. 상소는 신하가 왕에게 글로써 자신의 뜻을 전하는 문서이며, 상소문의 서식을 간략히 한 문서를 차자라 한다. 통상 문집에서는 상소와 차자를 합해 소차라고 한다. 소지는 사대부 이하 백성 개인이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 또는 진정서이며,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관청에 올릴 때는 등장이라고 한다. 단자는 사대부들이 직접 관청에 탄원•청원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호구문서는 준호구, 호구단자, 호적중초, 호적표 등이 있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호적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한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자신 호의 호구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현재의 가족 외에 호주와 처의 4대조를 모두 기록하게 되어있다.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초본이다. 동리에서

각 호로부터 제출받은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 호적대장과 대조한 뒤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만든 것이 호적초안인데, 이를 관청에서 다시 최종 확인하여 만든 것이 호적중초이다. 호적표는 대한제국 때 작성된 호적이다.

다음 사문서를 살펴본다. 기록문서로는 간찰, 일기, 가장 등이 있다. 간찰은 상호간 주고받은 편지글이며, 일기는 자신의 일과 경험을 일자별로 자유롭게 기술한 것이고, 가장은 집안 조상과 형제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제주의 고문서로 간찰은 주로 제주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과 유배인 등이 육지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매매문서는 명문이 대표적이다. 명문은 권리에 대한 증명서 또는 증서이다. 토지매매문서가 대표적인 명문이다.

증빙문서는 다양하여 혼서(예장), 택일기, 분재기(화회문기, 분급문기), 대차기, 출거기 등이 있다. 혼서는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단과 함께 보내는 서간으로 예장이라고도 한다. 택일기는 택일지라고도 하며, 상장례를 치를 때 택일, 장지 방위 및 장례의식의 절차, 금기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다. 분재기는 재산 상속 및 분배에 관한 문서이다. 재주가 죽은 후 형제자매의 모임에서 재산 분급의 문서 작성은 화회문기, 재주 생존시 자녀들에게 재산 분급을 명시할 때는 분급문기라고 한다. 대차기는 주로 금전을 차용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요, 출거기는 물건을 내준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축원(의례)문서는 축문, 제문, 고사, 발원문, 기고문 등이 있다. 축문은 제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며, 제문은 천지신명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지낼 때 쓰는 글이다.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에게 제수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축문 보다는 길다.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발원문은 불교에서 시주의 원을 적은 글이며, 기고문은 기우제, 기청제 등을 지낼 때 고하는 글이다.

이제 제주의 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수량과 종류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고문서의 수량은 각 기관의 기준일시가 다르고, 대표적 고문서만 소개한 경우도 있고(제주교육박물관), 아직 고증을 거치지 않은 미분류의 고문서도 다수 있어서(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문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참고하기 위해 소개한다.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에 탑재되어 있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고문서는 총 35편이다. 제주 관아에서 왕실 및 중앙관아에 보고하는 형식의 성책류와 형명부가 주를 이룬다. 1725년(영조 1) 제주목에서 작성한 양안 측량 문서인 「내수사무후노비이상전답~성책」을 제외한 나머지 34편은 철종부터 순종까지 제주목이나 전라감영에서 제주 관련 각종 사항들을 기록한 문서이다. 주 내용은 외국인 또는 제주인 표류 관련 사실, 제주에서 올리는 각종 진상품이나 세공마 기록, 제주삼읍의 각종 회계 기록, 제주의 방곡령 기록, 제주의 공유지 실태 기록,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명부 등의 문서들이다. 조선후기, 구한말 제주의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들로 손꼽힌다. 이상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제주 고문서 총 35편의 고문서 작성 시기 및 문서명과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표 9]와 같다.

[표 7] (제주)기관 소장 고문서

분류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공 문 서	임명장류	교지(칙명)	26	17	4
		홍패			1
		교첩		1	
		관고첩		8	
		망기		5	
		기타			유지1
	관아문서	첩	9	10	
		첩지			3
		첩정		10	2
		서목	1	8	4
		전령(훈령)	5	11	2
		고목	3	2	
		완문	5	2	
		입안	1	2	
		진상단자		2	
		기타			
	청원문서	상소			1
		소지		7	7
		등장	2		
		단자		2	
		기타			퇴송기1
	호구문서	준호구	1	14	1
		호구단자	101	1	2
		호적중초	1		
		호적표	2		
사 문 서	기록문서	간찰	24		58
		가장			2
		기타			문중회의록1
	매매문서	명문	5	15	20
	증빙문서	훈서(예정)	4	2	3
		택일기	3		5
		분재기			6
		대차기			2
		출거기			1
		기타	유언1		표문3 답통1 환자분급기1
	축원문서	축문	1		1

[표 8]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관문류 일람1

시기	문서명	주요 내용
1725년(영조 1)12월	내수사무후노비이상전담인해사관문개타량~진기구별성책	제주목에서 작성한 양안 측량
1853년(철종 4) 7월	제주삼읍상전곡회계성책(제주)	제주삼읍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 곡식 회계 및 출입 내역
1860년(철종 11)	전라도제주목표도유구국인육명신상소착소지복물태수병록성책	제주목 표도 유구국인(6명)의 의복 및 소지물품 수효 작성
1860년(철종 11)	전라도제주목표도유구국인육명영암지일공별계물종성책	제주목 표도 유구인, 전라도 영암까지 공급된 음식물 내역
1861년(철종 12) 1월	엄사인 출전제급성책(제주목)	제주목 엄사인(滄死人)에 대한 출전 내역
1861년(철종 12)	전라도제주표환인물성명연세거주소지물건병록성책	제주목 귀환 표류자들의 성명, 거주지, 소지물품 등 기록
1861년(철종 12)	전라도제주목표환인등물성명연세거주~급소지물건병록성책	※ (1858년 표류 1척, 1861년 표류 2척)
1862년(철종 13)	제주십일월삭별진상십삼운중궁전	제주에서 중궁전으로의 진상품 물목, 수량, 상납시기 기록
1872년(고종 9) 8월	저리구폐절목(제주목)	제주목에서 저리의 폐막을 없애고자 마련한 절목
1875년(고종 12) 6월	탄일방물진상태수영호인성명성책(제주목)	생신 진상물로 제주목에서 결궁장피(30령) 호송 내용 기록
1878년(고종 15) 1월	본주소봉이월령삭선진상태수영호인성명성책(제주목)	제주목 삭선 진상의 물품 수효, 호송인원 명부 작성
1878년(고종 15) 4월	사복시납홍안태수영호인성명성책(제주목)	제주목 사복시 진상의 홍기안(紅騎鞍) 수효, 호송인원 작성
1878년(고종 15)	단자(사복시제주세공마)	제주출래후운세공마에 대해 사복시 작성
1894년(고종 31) 2월	(전라도)제주모대조성책	제주모조를 전라도 각 지역의 환곡으로 분급 내역 보고
1894년(고종 31) 2월	경저신정식절목(제주목)	제주목 경저리의 폐단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절목 마련
1894년(고종 31) 5월	대정인성리정시목옥사검안	대정현 인성리 발생 정시목 치사사건, 제주판관 부검보고서
1894년(고종 31)12월	본영급삼읍진상소봉물종수효성책(제주목)	제주삼읍의 진상 물품 수효, 진상선, 소요인원 기록
1894년(고종 31)12월	본도삼읍각과원소재황칠목주수성책(제주목)	제주삼읍의 각 과원의 황칠목 주수 현황 기록
1894년(고종 31)	대전진상청굴~왕대비전진상청굴 물목	제주에서 대전·왕대비전 진상품 물목, 수량, 상납시기 기록
1898년(광무 2)	제주도방곡사	제주도의 방곡령에 대한 내용 기록
1898년(광무 2)	제주태곡사보고안	제주도 곡식, 콩[대두]의 방출을 불허하는 내용 기록

[표 9]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관문류 일람2

시기	문서명	주요 내용
1900년(광무 4) 11월	제주목양장정	제주 선달(윤행구)이 바친 소 1,000마리 관리규칙 기록
1900년(광무 4)	제주군각공토조사성책	내장원에서 제주군 각 공유지에 대해 대강의 목록
1900년(광무 4)	정의군각공토조사성책	내장원에서 정의군 각 공유지에 대해 대강의 목록
1900년(광무 4)	제주군보고(급가평군역도)성책	제주 삼군의 경비 지출 등을 작성
1901년(광무 5)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	내장원에서 제주목 삼군의 폐지 관아 작성
1901년(광무 5)	제주목삼군각포어기어망세급어곽구문성책	내장원에서 제주목 어기, 어망등에 대한 구문 작성
1901년(광무 5) 3월	제주목삼군각지송목잡목조사성책	봉세관 강봉헌이 제주목 삼군의 각 공유지 소나무·잡목 조사
1908년(융희 2) 3월~5월	제주금조순보	제주지방 금융조합의 대부사업 현황을 기재한 문서
1900년(광무 4) 1월~3월	제주목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미결수 명부
1900년(광무 4) 4월~12월	제주목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미결수 명부
1901년(광무 5) 1월	광무오년일월일형명부(제주목)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형명부
1901년(광무 5) 2월~3월	제주목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형명부
1907년(광무 11) 2월~5월	제주재판소~형사기결미결시수성책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당시 기결수, 미결수 명부
1908년(융희 2) 1월~7월	제주재판소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기결수 형명부

한편 제주목에서 작성한 고문서로 국가 및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탐라순력도』와 『목장신정절목』 및 『안민고절목』이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한 해 동안 제주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화공 김남길이 총 41폭의 그림을 그렸으며, 각각의 폭 하단에 간략한 설명이 기록되어있다. 목사가 서문을 지은 일자가 1703년 음력 5월 13일로 기재되어 있어서 순력 다음 해에 화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으로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 건물, 군사 시설, 지형, 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제주도 역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목장신정절목』은 1794년(정조 18) 제주목사 심낙수가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시행령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운영실태 및 위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자료이다. 『안민고절목』은 1758년(영조 34) 정의현감 윤신흥이 정의현의 재정 부족분 충당과 고역 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안민고의 운영 세칙을 기록한 시행령이다. 피곡 천 석을 확보한 후 그 이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제주에서 운영되던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자료이다.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지만 제주목사의 부임절차를 알려주는 중요한 관문으로 「도영절차」와 「피인연향연회각좌기절차」가 있는데, 작성연대는 미상이다. 제주목사가 배에서 내릴 때부터 관덕정에 이르러 제주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의 군례를 받고 다시 연회각에서 연회를 마치기까지의 절차를 적어놓은 기록이다. 깃발, 관악기, 타악기 및 총포 등의 용도와 복명복창하는 절차가 세밀히 묘사되어 향후 목사의 도영절차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고문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문화재 지정 고문서류

문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탐라순력도	1703년 (숙종29)	제주국립박물관	보물 제652-6호 (1979.02.08.)
목장신정절목	1794년 (정조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11호 (2013.10.17.)
안민고절목	1758년 (영조34)	"	제주도문화재자료 제12호 (2013.10.17.)
도영절차 · 피인연향연희각좌기절차	미상	제주목관아	·

2. 제주 마을(종친회 포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더불어 현지조사와 공동학술대회 등으로 2015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세 지역(수산리, 중엄리, 하가리)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류 116점과 9개 성씨 가문에서 소장해 오던 고문서류 총 1,534점을 정리한 영인자료집 세 권을 발간했다. 『고문서집성 108』(2014.04.30), 『고문서집성 110』(2014.11.28), 『고문서집성 114』(2015.09.10.)이 그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2007년 제주문화원(통합 이전의 북제주문화원)에서는 애월읍 하가리에 소장된 서책류·절목류 31점을 영인한 『하가리 소장 고문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

『고문서집성 108』은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는 수산리(24점), 중엄리(57점), 하가리(35점)의 세 마을에서 보관해 온 문서 총 116점을 소개하였다. 제주의 각 동리에서 전래,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들은 18세기 말 무렵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호적자료(호적중초, 민적부, 호적부 등)를 비롯하여 제주의 부세운영과 관련한 여러 규정을 수록한 문서들 및 동리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고문서집성 110』은 조선시대 제주도에 입도하여 세거해 온 애월읍 어도리의 진주강씨 강수항(姜受璜) 및 강봉지(姜鳳祉) 후손가, 조천읍 김해김씨 김희정(金羲正) 후손가, 구좌읍 동래정씨 정석록(鄭錫祿) 후손가의 고문서류 총 697점

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가문의 역사와 제주 지역의 제도·사회문화·경제 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고문서집성 114」는 애월읍 어도리 진주강씨 강익진(姜益鎭) 후손가, 안덕면 사계리 진주강씨, 조천읍 곡산강씨 강만식(康萬植) 후손가, 곡산강씨 강리진(康履鎭) 후손가, 애월읍 남읍리 김해김씨 김용징(金龍徵) 후손가, 김해김씨 김희주(金熙冑) 후손가, 경주김씨문중회, 제주고씨종친회, 동래정씨 정희현(鄭希賢) 후손가 등 총 9개 가문의 고문서 837점을 수록하였다. 고신·차첩·전령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 특히 제주 지역에서 임명된 관직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첩정·서목·전령 등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어떠한 명령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구단자·준호구 등을 통해 각 가문의 호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명문·분재기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 지역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규명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는 2010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었다. 2017년 5월 현재 마을 주민들이 수집한 자료는 총 31종 394점으로 고문서는 교지, 칙명, 공명첩, 혼서 등 20종 172점이며, 고서적은 호적중초, 민적부 등 11종 222권이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에는 서귀포 문화원에서 안성리 소장 고문서 및 고서를 소개하고 해제한 『우리고장의 기록문화유산』을 출간하였다. 이에 의거 1910년 이전까지의 고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명장류 총 4종 6건[첩(1), 교지(1), 칙명(3), 관고첩(1)], 토지매매 문서 총 2종 3건[명문(2), 급문(1)], 절목류 총 4책[「삼읍호적인구곡급통적미구폐절목」(1839, 헌종5), 「대변청예목결감작정절목」(1820, 순조20), 「자영문진임영감혁파절목」(1826, 순조26), 「향교향청반수부미혁파절목」(동년)], 선생록 3책[「건륭십사년기사십이월일선생록」(1749, 영조25), 「융희이년이월일읍내면선생별안서문」(1908, 융희2), 「입식」(1887, 고종24·1897, 광무1) 두 해 선생안 수록], 동접례안 2책[「가경육년신유납월일동접례안」(1801, 순조1), 「함풍육년병진이월일동접례안」(1856, 철종7)], 대정현집사안 1책 4건[표제는 「건륭55년정월일대정현집사안」으로 되어 있지만, 건륭55년(1790, 정조14) 241명, 임진12월

(1892, 고종29) 19명, 계사2월일(1893, 고종30) 62명, 계묘5월일(1903, 광무 7) 52명 등 네 해 374명의 명단 수록], 정간책 4책[「건륭삼십이년정해삼월일예물정간」(1767, 영조43), 「가경육년신유납월일동성리우마정간」(1801, 순조1), 「도광이년임오삼월일예물정간」(1822, 순조22), 「동치십사년을해삼월일읍면정간」(1875, 고종11)], 호적류 2종 56부[호적중초(34부), 통적(22부)]이다. 이 외에 「경로회규약」 및 「면전반리성치책」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내용을 담은 것이요, 고서로는 병서인 『손무자』(상하2책), 『육도』(1책), 『율료자』(건곤2책), 『이위공문대』(상하2책), 『병학지남』(1책)이 소장되어 있다.

IV. 맺음말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저술이 있다. 고문헌으로는 개인문집 총21권, 역사지리지 총 13편, 제주목장계·서계첩 5편, 군사전적류 5편, 방목류 4편, 효열록 1권 등 약 50편에 이르고 있다. 고문서 역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등 세 기관에서 교지, 홍패, 첩(정), 서목, 완문, 소지, 준호구, 호구단자 등의 공문서와 간찰, 명문, 분재기, 혼서, 축문 등의 사문서에 이르기까지 수백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대 규장각에는 성책류, 형명부 등의 고문서 35점이 소장되어 있다. 제주의 애월읍과 대정읍 등지의 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사의 고문서는 각각 116점과 394점으로 500점이 넘으며, 제주의 9개 성씨 종친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도 1,534점이나 된다.

제주의 고문헌은 제주의 역사문화 전반을 알고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제주의 편년 역사를 알고 싶으면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읽고, 풍속, 토산, 방어시설, 명승, 고적, 인물, 관리 등 제주의 각 분야별 자세한 실정을 알고 싶으면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를 읽으면 된다. 제주의 역사문화를 고문헌으로 처음 접할 때 위의 두 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임

제의 『남명소승』과 김상헌의 『남사록』 같은 개인문집을 읽으면 당대 제주의 상황 뿐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제주를 일주하고 한라산을 등반했던 그들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최부와 장한철의 『표해록』 및 『해외문견록』(송정규), 『탐라문견록』(정운경) 등을 읽으면 제주인과 외래인의 표류 관련 사실과 여정 및 해양을 통한 상호 교류의 과정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제주의 고문서류는 제주의 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당대의 자세한 사회경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첩(정), 서목, 완문 등의 관문서를 통해 제주 행정의 현안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준호구, 호구단자 등의 호구문서를 통해서는 마을 단위 편제와 인구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명문 및 분재기, 혼서 등의 사문서를 통해서는 일반 제주인의 사회경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당대 제주의 행정 현안 및 제주인의 생활상을 조명하는데는 고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를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은 번역이다. 한문으로 된 원문을 한글로 해석하고 거기에 참고 해설까지 붙인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고문헌, 고문서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번역서, 역주서 등이 없어서 제주의 역사문화를 깊이 연구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했고, 따라서 한문에 소양 깊은 일부 향토사학자 등의 연구자만 고문헌과 고문서류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전후부터 제주의 역사지지서 및 개인문집 등이 번역되고 해설까지 곁들인 역주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10여 년간은 제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두 기관을 중심으로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에 대해 다양한 역주서가 출간되어 일반인의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 차원 끌어올려주고 있다.

□ 사례: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탈초/번역/해제 보고서(간략)

1. **과업명:**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탈초/번역/해제.
2. **연구내용:** 고문서 63권 목록화, 탈초/번역 디지털화, 해제 작업.
3. **과업기간:** 2020. 02.27~08.26(6개월, 182일)
4. **연구진 구성:** 총 5명(김익수 외 4명)
 - 1) 탈초, 번역: 강00, 문00, 이00(3명).
 - 2) 해제, 감수: 김00, 홍00(2명).
5. **연구진 역할 분담**
 - 1) 감수: 김00(향토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2) 해제: 홍00(문학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3) 탈초/번역: 강00(삼무서회 대표), 문00(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00(고전번역가).
6. **과업 과정**
 - 1) 3월~4월: 사진자료 출력 및 분류
 - 2) 5월~7월: 탈초 및 번역
 - 3) 7월~8월: 해제 및 감수
7. **과업 내용**
 - 1) 개요
 - (1) 월평리 재생센터에서 이양 받은 고문서 사진자료는 총 1,326장임.
 - (2) 이 중 사진자료가 없는 번호는 0001~0009(9장), 0285~0290(6장),

0382(1장), 0407(1장) 등 총 17장임.

- (3) 이상 1,300여 장의 고문서를 전량 A3 칼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본격적인 분류작업.

2) 문서 분류

- (1) 절목 및 명문 등의 고문서, 회의록을 포함한 편철된 장부류 등 총 55종, 내용상 분류.

- (2) 문서의 분류 기준: 문서명, 작성연대, 문서종류, 문서등급, 해당 사진자료.

3) 작성연대: 1866년~1999년.

- (1) 일제강점기 이전 고문서(1866년~1909년) 14건

- (2) 일제강점기 문서(1910년~1945년) 13건

- (3) 해방 후 문서(1946년~현재) 28건

4) 문서종류: 총 18종.

절목, 명문, 입안, 표문, 건기, 분등기, 전장기(인수인계서), 대장(묘지, 경작지), 명부(지세, 토지소유, 기부금 등), 공문철, 보고서, 회의록, 증서, 사업계획서, 규약, 진정서, 축문, 마을지(초안) 등.

5) 문서등급: 3등급.

- (1) 상(사료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이 높고 자료집화 필수): 26건

- (2) 중(보존 필요성이 높고 자료집화 취사선택): 25건

- (3) 하(자료집화 필요성이 없는 일상적인 관행): 4건

6) 해당 사진자료

해당 사진자료 0010~1326 번호를 시대순으로 재정리함.

8. 과업 결과

- 1)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총 55종 1,300여 장(사진출력분)의 (고)문서에 대해 탈초 및 번역, 해제 및 감수.

2) 한문과 한글 표기 문서에 따라 차등 작업.

- (1) 한문 표기 문서: 탈초 및 정자화, 번역, 전문 소개, 해제.

- (2) 한글 표기 문서: 전문 또는 요약 소개, 해제.

3) 작업 결과

- (1) 탈초 및 정자화: 27건
- (2) 번역: 27건
- (3) 전문 소개: 34건
- (4) 요약 소개: 15건
- (5) 전문 및 요약 미소개: 6건
- (6) 해제: 55건

9. 향후 과제

1) 편집팀 구성 및 편집지침 마련

- (1) 1910년 이전 구한말 또는 일제강점기 문서는 사료적 가치가 크므로 자료집화 필요.
- (2) 해방 이후 문서는 내용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 자료집화 하는데 주의 필요.
- (3) 학계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자료집인지, 마을(주민) 및 기관 배포용의 자료집인지 성격 규정 논의 필요.

2) 출판사 선정 및 교정(3차)

- (1) 사진자료와 해당 탈초 및 번역, 해제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점검.
- (2) 최소한 2차 이상의 교정 작업(재교 이상)이 필요.

3) 인쇄 및 출간

10. 월평마을 고문서 목록표: 별첨.

○ 월평 마을 고문서 분류표

문서 일련번호	월평리 001	문서 등급	상 중 하	
문서 분류	문서명			
	문서 종류		작성 연대	년()
서지 사항	재질		표기 방식	
	총면수	면	규격 (가로×세로, cm)	x
해제	내용			
	특이 사항			
	사료 가치			
기타				

○ 월평 마을 고문서 분류표 작성 방법

1. 문서 일련번호

- 1) 일련번호 부여는 ‘월평리 0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 2) 일련번호 순번은 ① 고문서 연대(순) ② 고문서 연대 미상(연대 미상은 문서명의 ㄱ, ㄴ순) ③ 해방후 연대순으로 부여.

2. 문서 등급

- 1) 사료의 가치 정도에 따라 상, 중, 하 3등급 분류.

3. 문서명

- 1) 표지 겉면 표기 그대로[한문은 한문(한글) 병기]
- 2) 표지 겉면 표기 부재시 문서 전체의 성격 판단하여 제목 부여

4. 문서 종류

- 1) 고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 첩(지), 전령, 완문, 입안, 단자, 호적중초, 호구단자, 절목, 분재기, 명문(매매기), 대차기, 축문, 제문 등.
- 2) 현대문서는 문서명 표기 요약: 규약, 계약서, 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등.

5. 작성 연대

- 1) 서기연도 표기, 연호나 간지명은 ()안 부기. 단, 연대 추정 불가능 ‘미상’이라 표기.

6. 재질

- 1) 종이 또는 종이(장부) 등.

7. 표기방식

- 1) 한자(초서), 한자(정자), 한자 한글 병기, 한글.

8. 총면수

- 1) 장수가 아니라 면수로 계산. 예) 앞뒷면 기록된 1장이면 2면.

9. 규격(가로×세로, cm)

- 1) cm로 측정하되, 가로×세로의 숫자 표기. 예) 30×40

10. 해제

- 1) 내용: 문서의 개요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
- 2) 특이사항: 문서를 정밀 분석하여 특이한 사항을 제시.
- 3) 사료가치: 문서가 학술적으로나 마을공동체적으로나 영구 보존 등의 의미가 있는지, 동일한 문서가 여타 마을의 소장 여부와 대비하여 희소성 및 중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

11. 기타

- 1) 위의 문항 외에 문서와 관련 별도의 내용을 더 기록할 사항이 있을 시 작성.

○ (병인8월일) 보민절목(補民節目)



○ [일련번호 01] (병인8월일) 보민절목(補民節目) 해제

문서 일련번호	월평리 001	문서 등급	상	
문서 분류	문서명	(병인8월일) 보민절목(補民節目)		
	문서 종류	절목	작성 연대	1866년(병인 8월)
서지 사항	재질	종이(장부)	표기 방식	한자(정자)
	총면수	6면	규격(가로×세로, cm)	×
해제	내용	1. 1866년 흉년을 맞아 대정현감이 개인적인 지출 절용을 통해 천냥의 원금을 마련하여, 각 마을에 약간씩 나누어 지급함. 그것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로 흉년 구휼 및 마을의 실정에 맞춰 편의대로 사용할 것을 정한 절목. 2. 당시 보민절목 제작에 참여했던 제주의 향리, 향청임원 6명의 직책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음. * 향리: 도병리(임치흥), 부이방(이응인), 이방(임영복), 호장(고한준), 좌수(강봉혁), 도집사(이재옥). 3. 당시 대정현 관내 28개 마을 명칭과 원금 총 천냥 중 250냥이 해당 마을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마을: 강정리, 도순리, 하원리, 월평리, 대포리, 회수리, 중문리, 색달리, 상예리, 하예리, 창천리, 감산리, 통천리, 화순리, 광청리, 자단리, 덕수리, 사계리, 동성리, 보성리, 상모리, 하모리, 양곡리, 일과리, 신평리, 영락리, 무릉리, 도원리.		
	특이 사항	당시 대정현감은 한홍일(韓弘一)로 그의 재임기간은 1865년 4월~1867년 8월임.		
	사료 가치	대정현감의 수압(사인)이 들어간 문서류. 현존 당시 제주내 다른 지역의 고문서류들을 대조하며 제주 목민관(목사, 판관, 현감 등)의 수압(사인)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 1866년 8월 시점 제주목사는 양현수(재임기간: 1864년 3월~1866년 8월)와 이후선(재임기간: 1866년 8월~1868년 10월)의 교체기임.			

월평마을 고문서 자료집 해제

월평마을이 옛 문헌과 고지도 등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19세기 후반이다. 조선후기 대정 지역의 각 마을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역사지서로 세 가지가 있는데, 1765년(영조 41) 윤시동 목사 때 편찬된 『증보탐라지』, 1780년대(정조 연간) 편찬된 『제주읍지』, 1899년(고종 36) 편찬된 『대정군읍지』 등이 그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대정 지역이 『증보탐라지』에는 3면 23리, 『제주읍지』에는 2면 22리, 『대정군읍지』에는 3면 35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지서에는 월평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정군읍지』에 처음 월평리(月坪里)가 등장하는데, 좌면 14개 마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역사지서 외에 월평리가 처음 등장하는 옛 문헌으로 1870년(고종 7) 제작된 『대정군 군병도안』이 있다. 이 문헌에는 면의 구분 없이 대정 지역 29개 마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월평(月坪)이 등장한다. 이후 1904년 작성된 『삼군 호구 가간총책』에 대정군은 3면 34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평리는 좌면 13개 마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결국 월평리가 기록된 옛 문헌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첫째 1870년 『대정군 군병도안』, 둘째 1899년 『대정군읍지』, 셋째 1904년 『삼군 호구 가간총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옛 문헌 외에 현재 전하는 「호적중초」에 의하면 월평리 호적중초가 1867년(고종 4)부터 1909년까지 14책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고문서 및 옛 문헌에 의하면 월평리는 1867년의 「호적중초」, 1870년의 『대정군 군병도안』, 1899년의 『대정군읍지』의 순으로 확인된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경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지도에 월평리가 등장하는 것은 이보다 조금 늦다. 1872년 제작된 「제주 삼읍전도」(서울대 규장각, 이하 모두 동일) 및 「대정군지도」에는 월평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1899년 「제주지도」(『제주군읍지』) 및 「대정군지도」(『대정군읍지』)에 처음 월평리가 등장한다. 이후 1918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대정읍마라도」(1:50,000 지형도)에 의하면 월평리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

다. 해안선으로는 대포리와 강정리 사이에, 북쪽으로는 하원리와 도순리 사이 아래쪽에 월평리가 위치하고 있다.

이상 옛 문서와 문헌 및 고지도 등을 통해 확인된 월평리의 최초 등장은 다음과 같다. 1867년 「호적중초」, 1870년 『대정군 군병도안』, 1899년의 『대정군읍지』 및 거기에 수록된 「대정군지도」와 「제주지도」(『제주군읍지』)의 순이다. 그런데 월평리 소장 고문서를 분류, 분석하는 동안 이보다 조금 더 이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적중초보다 1년 앞선 1866년(고종 3)에 작성된 『보민절목』이었다. 당시 대정현감이었던 한홍일(韓弘一)이 대정현 관내 28개 마을에 흉년 구휼을 위해 지급한 자금과 그 운용 세칙과 관련된 문서이다.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현재 타 지역에서 소장된 바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요한 문서로 판단된다.

본 자료집은 월평리 소장 고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 뒤,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총 55건의 소장 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 학술적으로나 소장문서로나 사료적 가치가 높은 29건을 선택하여 자료집화 하였다. 자료집에 소개된 29건의 문서를 시대별, 내용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말기(1866년~1910년) 15건,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9건, 해방 이후(1947년~1983년) 5건이다. 내용별로는 조선시대 말기 문서는 절목(시행규칙), 명문(증명서), 전장기(인수인계서), 물건기(공동체 관련 문서) 등이 주류이며, 일제강점기 문서는 전장기, 물건기이고, 해방 이후 문서는 회의록, 마을지, 진정서 등이다. 본 자료집에서는 이상의 문서에 대해 사진자료와 함께 원문을 제공하고, 이를 해석한 뒤 매 문서마다 해제를 실었다. 이 중 사료적 가치가 중요한 몇 가지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말기 문서로 절목류는 3건이 확인된다. 1866년 『보민절목』, 1900년 『호적지본전설치절목』, 1903년 『삼군구폐절목』이다. 『보민절목』은 한홍일 대정현감이 흉년을 맞아 구휼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각 마을별로 지급하여 그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호적지본전설치절목』은 이상규(李庠圭) 제주목사가 호적 작성에 필요한 종이를 집집마다 수취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마을별로 본전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충당하도록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한 규약이다. 『삼군구폐절목』은 홍종우(洪鍾宇) 제주목사가 당시 전답과 우마의 위장매매, 무단경작, 무단점유로 말미암은 소유주 소송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민장의 조사와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시행세칙을 마련한 규약이다. 이 중 제주목사가 시행한 『호적지본전설치절목』과 『삼군구폐절목』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문서이다. 하지만 『보민절목』은 대정현에서만 시행된 규약이고, 현재 이 지역 다른 마을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사료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890년대 토지소유를 이전하는 명문류가 4건 확인된다. 대출을 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토지 소유를 이전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인 전주(田主)와 증인으로 명문을 작성한 필집(筆執)의 사인[수결手決]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토지의 위치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명기한 사표(四標)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1901년 ‘이재수난’의 삼장두 중 한 명인 강우백(姜遇伯)의 명문이 한 점 확인되는데, 그가 이 지역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큰 문서이다.

1897년 3월 마을 공동의 상여와 장막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시행 세칙을 마련한 「화단장막 신조소입성책」도 마을로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당시 마을 임원 명단과 재정 출연자 명단 및 제작자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상례(喪禮) 및 포제(醕祭) 등 공동 행사시 상호부조 형태로 운용된 동접(洞接)과 관련한 기록들도 소개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문서로는 전장기와 물건기 두 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장기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사무 인계를 하기 위해 관장하던 물품을 적어놓은 장부이다. 1908년, 1912년, 1915년 등 신규 이장 간의 인계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날인시 수결이 아니라 일본식 날인을 뜻하는 ‘전(殿)’을 명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마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기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당시 마을의 재정 수요 및 운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17년 상여

를 다시 새로 제작하기 위해 책임자 명단을 기록한 「본리상여개조시각유사열명기」와 재료비 및 장인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신조상여물건건기」 등도 확인된다. 마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품속에 대해 그 책임자 및 소요 재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월평마을의 공동체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문서로 생각된다.

한편 1915년 작성된 묘지 대장으로 「분묘지현형도」는 월평리 주민들이 관리했던 분묘에 대해 신고 내용을 기록한 장부이다. 1:150의 근대적 축척과 범례를 이용한 지리 개념으로 묘지에 관한 현형도를 그린 것이다. 범례 항목은 총 13항목으로 ‘도로, 하천, 묘지, 인가, 산악 등’이 기호로 제시되어 있다. 묘소 관리자, 관리자 조상의 묘, 사망연월일, 묘소 위치 및 평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 접수처가 ‘제주경찰서’여서 일제강점기 경찰이 행정 업무를 병행 담당하고 있는 특이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료집에는 분량상의 이유로 소개하지 못했지만 1918년 「지세명기」, 1920년 「(일제강점기) 각 동리명 및 공문철」이 있다. 전자는 1918년 7월 당시 월평리 주민 127명의 토지세목 및 지번, 면적 등이 기록된 장부이다. 토지세를 부담했던 당시 월평리민 127명의 명단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김씨(金氏), 강씨(姜氏), 이씨(李氏)의 세 성씨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후자는 1920년 제주의 모든 동리명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제주의 행정구역 체제가 총 13개면 167개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생각된다. 또한 19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 좌면사무소 면장이 월평리 구장에게 부임인사로부터 각종 행정사항을 통보하는 공문철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하부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진 행정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듯하다.

해방 이후 문서로는 1960년 전후의 마을 「회의록」과 1980년대 「월평리지초요」, 「진정서」를 소개하였다. 「회의록」은 1959년~1960년 및 1964년~1965년 월평리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한 마을회의록을 수록한 장부이다. 당시 개발계 창립과 임원 조직, 개발계에서 추진했던 여러 사업에 대한 총회 회의록이 자세

하게 수록되어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보수 및 확장의 건’, ‘시범부락 개발에 관한 건’, ‘4-H 구락부 조직에 관한 건’, ‘문화관 건립 및 어항 시설의 건’, ‘맥타사업 운영의 건’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마을 인원이 60~70명에 이르며, 회의시간도 3~4시간이 소요되어 월평리 마을 사람들의 참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월평리지 초요」는 사실상 월평리 최초의 마을지 집필이다. 월평리 출신 교육학자였던 김문규(金文奎)가 작성했는데, 월평리의 위치, 지세, 연혁, 주변 지명, 인물 등을 담고 있다. 총 30면에 걸친 내용으로 당시 월평리 호적부까지 참고하며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10년 이재수난 및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한 월평리 출신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학계의 연구 성과와 대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월평리 마을지 편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소개하여 최초 마을지 편찬과 관련한 그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1983년의 「진정서」도 눈에 띈다. 당시 서귀포시에서 월평리에 분노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 하자, 이에 대해 월평리 주민 101명의 연서로 그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월평리의 관광자원 및 수자원 개발과 배치되는 행정관서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지역 주민 전원의 연서로 이의를 제기했던 당시 상황을 남긴 것이다.

이상 본 자료집은 월평리의 역사와 과거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예컨대 조선말기 사료로 『보민절목』은 역사지지서와 같은 공식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월평리’ 호칭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화단장막 신조소입성책」은 당시 월평리 사람들의 공동체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사료이다. 1901년 ‘이재수난’의 삼장두 중 한 명인姜우백(姜遇伯)의 「명문」도 그가 이 지역 출신 인사임을 알려주는 문서로 영구 보존되어야 할 사료이다. 일제강점기의 「전장기」 및 「공문철」 등의 문서도 당시 행정체계와 하부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 파악을 위해 향후 학계의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야할 사료적 가치가 큰 문서이다. 해방 후 월평리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마을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진 「회의록」 등도 향후 월평

리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할 중요 문서이다. 결론적으로 본 자료집은 월평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장문서를 일괄 소개한 ‘월평마을 역사서’의 성격을 지닌다.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는 제주역사 다시 쓰기

조성윤(제주대 명예교수)

1. 시작하는 말

제주학 센터의 핵심 기능 -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 역사 연구자 - 향토사학자(鄕土史學者) ▶ 대학 연구자 ▶ 시민으로 확장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자, 예술가, 자기 고유 분야를 갖는 시민연구자
시설, 장치로서의 아카이브

기존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던 단체 기관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인덱스카드

여기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인터넷 공간이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따라서 어떻게 자신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을 것인가 방법이 중요
하다.

제주학 아카이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주학 아카이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2. 제주학 문헌 자료와 발굴

○ 제주역사를 기록한 역사 문헌

-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지방지(地方誌), 탐라계록(耽羅啓錄), 개인문집(文集)
- 관보(官報), 신문(新聞), 재판 판결문
- 임오군란(壬午軍亂) 연구 -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국가기록문서 - 규장각(奎章閣)
- 호적(戶籍) - 1666년 한성부(漢城府) 북부(北部)호적(戶籍)
한성부(漢城府)광무(光武)호적 (1903년, 1906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3. 제주도(濟州島) 호적 조사 - 호적과 족보(族譜)의 차이

제주도는 호적 중초(中草)가 중요하다.

호적(戶籍) - 중초(中草) -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집안에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남아 있는 집안들이 있다. 예 慶州金氏家

4.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 조사연구

일본군 전쟁유적에 대한 제주도민의 부정적인 평가 - 마이너스유산, 사라질 것
최근 들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됨.

대표적인 것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건설계획(2007년) 수립.

5. 제주 4·3 기록 발굴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자료 발굴

제주4·3평화재단 자료연구실편,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

- 1) 4·3 관련 경찰 자료
- 2) 교육계 4·3 피해 자료집
- 3) 미국자료 1
- 4) 미국자료 2
- 5) 미국자료 3
- 6) 미국자료 4
- 7) 미국자료 5

○ 증언, 구술사가 중요해짐.

○ 남로당, 무장대의 자료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와 무장대까지 포괄적으로 조사가 진행됨.

6. 아카이브 자료의 이용

○ 제주학 아카이브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

○ 제주 4·3 기록 아카이브는 제주4·3평화재단이 구축할 예정

○ 다른 제주학 아카이브를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 바다의 기억

고광민(서민생활사 연구자)

○ 갯가 주변 바다풀의 기억

① 메역조문

*‘메역조문’은 “일정 기간 미역 따기를 금하였다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해녀들이 각자 미역을 따는 일”이라는 말이다.

[사례1] 구좌읍 평대리 한윤희(1920년생, 남) 씨

■ “산디 곁에 메역 난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상강(10월 23일경) 무렵에 산디(발벼)를 베었으니, 그 무렵에 미역이 돌아난다는 말이다.

■ 옛날은 하인(下人)이 메역조문 때까지 메역바당을 지켰다. 왜정 시절 이후부터는 ‘하인’이 메역바당 안 지키고 ‘소임’이 지켰다.

■ 음력 2월 그믐이나 음력 3월 초순에 ‘메역조문’을 ‘갯물질’과 ‘뱃물질’을 하였는데, 그 선택은 자유였다. 소문난 미역 어장은 다음과 같았다.

·조각여 / 갯가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땅의 넓이로 가늠할 때 2만 평 정도였다.

·벌리진여 / 갯가에서 1km 떨어진 곳이다. 땅의 넓이로 가늠할 때 1천 평 정도였다.

·진진여 / 갯가에서 300m쯤 떨어진 곳을 ‘진여’, ‘진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을 ‘중여’, ‘중여’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을 ‘막여’라고 하였다. ‘진여 - 중여 - 막여’를 합하여 ‘진진여’라고 하였다.

·고방여 / 갯가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고도리여 / 갯가에서 1km쯤 떨어진 곳이다.

·새여 / 갯가에서 2km쯤 떨어진 곳이다. ‘새여’는 ‘뜯여’, ‘중여’, ‘소여’로 구성되었다. 들물 때 배 7척을 세워 자리(자리돔)를 ‘거리는’¹⁾ 곳이고, 썰물 때 배 5척을 세워 자리를 ‘거리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각여’, ‘벌러진여’, ‘진진여’, ‘고방여’, ‘고도리여’는 물때를 가리지 않았지만, ‘새여’는 반드시 조금 때 맨 나중에 ‘상군’²⁾들만 ‘뱃물질’로만 미역을 따는 어장이었다.

■ 평대리에서는 미역을 따는 시기에 따라 젖은 미역과 말린 미역의 무게가 달랐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었다.

·정월 미역 / 젖은 미역 5칭(1칭은 1근의 100배)이면 말린 미역은 1칭.

·음력 2월 미역 / 젖은 미역 6칭이면 말린 미역은 1칭.

·음력 3월 미역 / 젖은 미역 7칭이면 말린 미역은 1칭.

■ 평대리에서는 “3월에 시끈 메역이 동지마에 나간다”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음력 3월은 미역을 따는 시기이고, ‘동지마’는 동지(12월 22일경) 무렵의 장마라는 말이다.

② 실갱이 공동 채취

*‘실갱이’는 잔가시모자반이라는 말이다. 잔가시모자반은 공동으로 채취하는 수가 많았다.

1) ‘거리는’의 ‘거리다’는 “바다에서 그물로 멸치나 자리돔 따위를 건져내다”라는 말.

2) ‘상군’은 “물질하는 기량이 가장 뛰어난 해녀”라는 말.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눈다.

[사례2]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 어기 / 음력 3월이었다. 조금 사리 물때를 가리지 않았다.
- 어장 / ‘새여’, ‘고방여’, ‘고도리여’ 등.
- 어구 / ‘줄아시’였다. ‘줄아시’는 ‘실갱이’를 베어내는 기다란 칼이었다. ‘줄아시’는 이웃 3~5명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마차 바퀴를 마련하여 불미항(대장간)에서 만들었다. ‘줄아시’ 양쪽 끝에는 줄을 걸어 묶었다. 이때의 줄은 칩줄(췌녕쿨) 삼, 모시 따위로 꼬아 만들었다.
- 배나 터우에서 남자 두 사람이 ‘줄아시’를 물속에 드리우고, 줄을 잡아 놓았다 당겼다 하면서 ‘실갱이’를 베어냈다. 이렇게 ‘실갱이’를 베는 일을 ‘푸꾼다’³⁾고 하였다. 이때의 배나 터우를 ‘줄아싯배’라고 하였다. ‘터우’는 한라산에서 마련한 구상낭(구상나무)이나 대마도에서 마련한 숙대낭(삼나무)으로도 만들었다. 제주도 사람이 대마도에서 숙대낭을 사다가 파는 수도 있었다. 구상낭으로 만든 터우를 ‘구상낭터우’, 숙대낭으로 만든 터우를 ‘숙대낭터우’라고 하였다.
- 배나 터우 2, 3척에 남자 2명이 타고 ‘공쟁이’⁴⁾라는 갈퀴로 물 위에 뜬 ‘실갱이’를 건져 올리고 갯가까지 운반하였다. 이때의 배를 ‘공쟁잇배’라고 하였다.
- 여자들은 지게로 지어 나르면서 일정한 곳에서 말렸다. ‘실갱이’에 ‘물쏘애기’⁵⁾, 솔치(쭈기미) 새끼가 붙어 있으니 잠수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베어낼 수 없었다.
- 실갱이 말린 것으로 텀(더미)을 만들어놓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고 보리밭에 거름으로 주었다. 이때 배나 터우 뒹으로 어느 정도의 실갱이를

3) ‘푸꾼다’의 ‘푸끄다’는 “줄아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실갱이를 벤다”라는 말.

4) ‘공쟁이’는 “가다란 대막대기에 꼬부라진 나뭇조각을 묶어 만든 어구”라는 말.

5) ‘물쏘애기’는 “실갱이라는 해조류에 붙어 자라는 물벌레”라는 말. 달리 ‘늑끼’, ‘늑’이라고도 이름.

주는 수도 있었다. 이를 ‘뱃찍’이라고 하였다.

■ 듄복(거름용 해조류)의 거름 효과는 뽕(식용모자반) > 패듄복(알뽕이모자반) > 쥐듄복(외톨개모자반) > 실갱이(잔가시모자반)였다. 뽕은 매우 기름진 것이라 많이 먹으면 설사 나는 수도 있었다.

○ 갯가 주변 바다풀 이외 해산(海産)의 기억

① 모살 조물다①

*남원리 사람들은 밭에 거름으로 줄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수도 있었다. 물속에 있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일을 ‘모살조문’이라고 하였다.

[사례3] 남원읍 남원리 김한수(1930년생, 남) 씨

■ 남원리 포구 ‘재산이개’ 앞에 ‘안여’가 있다. 썰물 때는 걸어 들어가서 밭만 적신 채 ‘모살걸름’을 채취하였다.

■ 남원리 포구 ‘재산이개’ 서남쪽 수심 5m 정도 물속을 ‘서느랭이’라고 하였다. ‘터위’를 타고 ‘서느랭이’로 갔다. 해녀 한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 모살을 ‘구덕’에 담았다. 이때 ‘구덕’에는 줄이 묶여 있었다. 사공은 ‘터위’ 위에서 줄을 잡고 구덕에 담긴 모래를 건져 올렸다. 모래는 ‘멩텅이’에 담어나갔다. 이렇게 해녀가 잠수하여 모래를 채취하는 일을 ‘모살 조문다’⁶⁾고 하였다.

■ 갯가에 ‘모살눌’ 만들어 두었다가 소금기가 완전하게 빠지면 밭에 거름으로 주었다.

6) ‘조문다’의 ‘조물다’는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물속의 해산물을 잡아 건져 올린다”라는 제주어.

② 모살 즈물다②

*‘모살 즈물기’는 “하효동 ‘게우지코지’에서 밭에 거름으로 줄 모래를 캐는 일”이라는 말이다.

[사례4] 서귀포시 하효동 현○○(1910년생, 여) 씨

■ 할망은 구덕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생복껍데기나 ‘작박’⁷⁾으로 구덕에 모살을 담는다. 하르방은 구덕에 묶은 줄을 당기며 ‘게우지코지’ 위로 들어 올리고 모살을 갯바위 편편한 곳에 부었다. 다시 빈 구덕을 할망에게 건넨다. 할망이 쉬는 동안에 하르방은 모래를 지어 육지로 운반한다.

■ 모살의 잔물이 완전히 빠지면 밭에 지고 가서 거름으로 주었다.

③ 생쟁이덕

*‘생쟁이’는 어린 소라고둥이라는 말이다. ‘-덕’은 조금 높직한 곳으로 이루어진 갯바위에 붙는 말이다.

[사례5] 서귀포시 강정동 해녀 고원홍, 원양일 씨

■ ‘구쟁이’ 죽은 것⁷⁾라 ‘생쟁이’라고 흡네다. 그디 우미(우뭇가사리)도 잘 납네다. ‘구쟁이’는 막 갯⁷⁾ 우의서 알 썩네다. 음력 7월, 8월나민 ‘구쟁이’는 엉덕(벼랑) 알더레 기어듬 시작흡네다. 동짓들, 섯들에는 ‘생쟁이’털이 돌 우의 다 나았입네다.

④ 전복통

*‘전복통’은 ‘빅게통’과 ‘새여통’ 사이에 있다.

7) ‘작박’은 “나무토막을 길고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의 하나”라는 말.

[사례6] 서귀포시 강정동 해녀 고원홍, 원양일 씨

■ ‘전복통’에 ‘영덕전복’⁸⁾이 하영(많이) 부땡 잇입네다. ‘영덕전복’은 숫전복이 우다. ‘술박’⁹⁾ㄹ찌(‘술박’같이) 술람ㅎ곡(가름하고), 통이 짚읍네다.

■ ‘마드레’¹⁰⁾ㅎ고 암전복은 영덕(벼랑)에 안 부땡네다.

⑤ 구제기와 생복

*‘구제기’는 소라고둥, ‘생복’은 전복이다.

[사례7]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 ‘구제기’는 음력 6~7월에 알을 ‘싼다’¹¹⁾. ‘구제기’는 돌 속에 곱았다가(숨었다가) 들물(밀물)에 베끼디(바깥에) 나오랑 먹곡, 쓸물(썰물)에는 돌 아래 다시 들어간다.

■ ‘생복’이 이동할 때는 ‘갈라정’¹²⁾‘훤다’¹³⁾.

■ 먼 바당(바다)에 있던 ‘구제기’와 생복은 셋븜(동풍) 누(놀이)에 ㄹ의로 밀려 온다.

■ ‘영등들’¹⁴⁾에는 구제기와 생복이 빈 껍데기(껍질)만 남는다. 이는 불가사리가 ‘구제기’와 생복 숨통을 막아버리니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8) ‘영덕’(벼랑)에 붙어 있는 전복이라는 말이다. ‘영덕’에는 숫전복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9) 나무를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

10) ‘마드레’는 “중성의 전복”이라는 말.

11) ‘싼다’의 ‘싸다’ “슬다(알을 낳아 놓다)”라는 말.

12) ‘갈라정’의 ‘갈라지다’는 “전복 따위가 껍질을 아래로 하고 배를 위로 하다”라는 말.

13) ‘훤다’의 ‘훤다’는 “전복의 복족(腹足)을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말.

14) ‘영등들’은 “음력 2월”을 이르는 말.

⑥ 뭉게와 낙지

*‘뭉게’는 문어이다.

[사례8]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 ‘뭉게’는 음력 6월에 알 ‘풀영’¹⁵⁾ 24시간 ‘영구왕’¹⁶⁾ 앓는다. 알 풀어 분(버린) ‘뭉게’는 몸이 ‘흔드락한다’¹⁷⁾.

■ ‘뱀낙지’는 ‘흙고’¹⁸⁾, ‘ㄱ실낙지’는 ‘줄다’¹⁹⁾. ‘뱀낙지’나 ‘ㄱ실낙지’는 휘(쾌)에 불 ‘쌍’²⁰⁾ 잡았다. “낙지는 음력 6월에 ‘오조리’²¹⁾더레 시집간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오조리에서 생식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알을 풀었던 모양이다.

⑦ 전복 새끼

*하도리에서는 두 가지 전복 새끼가 전승되었다.

[사례9] 구좌읍 하도리 동동네 고○○(1914년생, 여) 씨

■ 빗자귀 /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 있는 숫전복 새끼.

■ 눈벌레기 / 비교적 깊은 바다에 있는 암전복 새끼.

⑧ 엉덕생복

15) ‘풀영’의 ‘풀다’는 “뱃속의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말.

16) ‘영구왕’의 ‘영구다’는 “그러모으다”라는 말.

17) ‘흔드락한다’의 ‘흔드락한다’는 “문어의 몸이 축 늘어지다”라는 말.

18) ‘흙고’의 ‘흙다’는 “굶다”라는 말.

19) ‘줄고’의 ‘줄다’는 “낙지 몸피가 가늘고 작다”라는 말.

20) ‘쌍’의 ‘싸다’는 “불을 켜다”라는 말.

21) ‘오조리’는 “성산읍에 있는 마을”이라는 말.

*‘영덕생복’은 “물속 바위 그늘 같은 곳에 붙어 있는 생복”이라는 말이다.

[사례10] 구좌읍 하도리 동동네 김○○(1929년생, 여) 씨

- 상강(10월 23일경) 때 “영덕생복이 나왔저!”라고 말했다.
- 어떤 생복이나 햇별을 잘 맞은 것은 ‘적’²²⁾이 있고, 햇별을 못 맞은 것은 ‘적’이 없다. ‘영덕생복’은 적이 없는 것들이다.

○ 걸바당의 물고기 기억

① 걸바당 물고기 생태와 어법

*‘걸바당’은 바닷가에서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조간대 연안을 지나 일정한 선상의 지점까지, 바닷가와 ‘펼바당’ 사이에 있는 용암 자국의 돌이나 암반으로 깔린 바다이다. ‘걸바당’에 사는 물고기의 생태와 어법은 다양하였다.

[사례11] 서귀포시 대포동 이창옥(1921년생, 남) 씨와 원승국(1921년생, 남) 씨

■ 다금바리

·어장 / ‘걸’²³⁾이 훑은(꺾은) ‘영장’²⁴⁾에만 잡네다. 요즘은 다금바리 구경하기가 하늘에 벨 따기우다.

·어기 / 수절(四節) 잇주만은 가을에 많이 나쁘네다.

22) ‘적’은 “전복이나 소라고둥 껍데기 따위에 붙어 있는 굴 껍데기 따위”라는 말.

23) ‘걸’은 ‘걸바당’의 줄임말이다.

24) 바닷가나 바닷속 돌들이 안으로 파여 굴처럼 되어 거친 곳.

·어법 / 옛날은 나도 이거 나까 봐수다. 자리 거리레 갓당도 나끄는디, ‘갈치술’²⁵⁾에 모도리낙시 매어(매달아) 가지고 고도리 대여섯 개 꺾어그네 낙실 하나 돌아매는디, 낙시광 본줄 수이에 독진 철사를 맨다 말이우다. 고도리 혼마리를 우선 낙싯줄 막 꺾겅이(끄트머리)에 꺾네다. 낙시 배리지 못하게 낙싯줄을 고도리 술(살) 속에 묻읍네다. 그 다음은 고도리 대여섯 겹 꺾엿 낙싯줄로 꿰땀일 묶어버린다 말이우다. 이놈으 다금바리라 혼 놔는 니경을 봐지민 물어 가지고 이빨로 지근 ‘드려’²⁶⁾ 봐서 숨진다(삼킨다) 말이우다. 단번에 숨지질 아니흡네다. 경헝당 물엇다 헝민 화룩헝게 술(줄) 놓앙 내불민 차갈 거 아니파. 재기 등기지 아니헝민 어귀(귀통이)에 들어강 이빨로 부떠 불민 떼지지도 못흡네다.

■ 북바리(별우력)

·어장 / 돌고망에 사는 짐승이우다.

·어기 / 수절이이우다.

·어법 / 풍선으로 ‘북바리’ 주낫(주낙)을 흘 때에 니경헝젠 ‘자리’(자리돔) 잡앙 물간²⁷⁾에 놓앙 살립네다. 자리 살려 가지고 산 자리 꺾엿 던지명 북바리 주낫을 헛우다. 요새 ‘솔라니주낫이영’(옥돔주낙과) 똑 닮은디 낙시가 좀 흡읍네다. 그때 북바리주낫 하영(뺨이) 갓앙(가지고) 땡기는(다니는) 사름은 열 상자우다. 옛날은 물 반 꺾기 반 혼 때니까 물간 두 개에 북바리 살려 가지고 서귀포 어업조합⁷⁷⁾지 폴레(팔리) 뉘(노) 젓엿(젓고) 가나수다.

25) 갈치를 낚는 줄낙시.

26) ‘드려’의 ‘드리다’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다.”라는 말이다.

27) 물을 넣어두는 공간.

■ 우럭

·어장 / 돌밭 디우다.

·어기 / 수절(四節). 2, 3월엔 줄고, 오월엔 젖 솔집네다.

·어법 / 섬비²⁸⁾ 돌린 낚싯줄에 낚시 두 개 맵네다. 니껍 어심(없음)을 흐민 보말(고등)로 어랭이(어랭놀래기) 나깁(낚아서) 어랭이 솔 가까(깎아) 가지고 흡네다. 경 아니흐민 또 자리(자리돔)로 니껍을 흡네다.

■ 소치(쭈기미)

·어장 / 걸바당에 사는 궤기우다.

·어기 / 수절(四節)이우다.

·생태 / 하지(맏지) 안흔 짐승인디 우럭 닮은 겨우다. 우럭 닮은 건디(것인데) 이놈의 가시를 쏘앗다 흐민, 타는 사름은 막 부어 가지고 흐 메틀(며칠) 혼납네다. 솔치도 얼룩얼룩흔 건 ‘심방소치’라고 곱읍네다.

·어법 / 우럭 나끄레 갓당 올라올 때도 잇곡, 그물에도 올라오기도 흡네다.

■ 맥쉬(황놀래기)

·어기 / 수절(四節)이우다.

·생태 / 맥쉬는 어랭이(어랭놀래기) 나끄레(낚으러) 강(가서) 보민 꺾만 붙은 겨우다. 빨경흔 것도 잇곡, 검영흔 것도 잇입네다.

■ 술맹이(용치놀래기)

·어장 / 돌하고 모살 서꺼진 바당에 삼네다.

·성격 / 춤 곱네다. 빨건 점도 잇고, 파란 점도 잇고, 흰점도 잇고, 검은점도

28)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게 하는 가느다란 막대기 따위”라는 말.

잇고...

■ 도랭이(켁이상어)

·어장 / 이 바당에는 ‘비께’(두툽상어)는 만해낫지만은 ‘도랭이’는 드물어나수다. 도랭인 강정²⁹⁾ 바당서 많이 낍네다.

·어기 / 장마 때 ‘비께그물’ 놀 때우다.

·생태 / ‘겁데기’(꺾데기)는 비께 겁데기(꺾데기)나 다름없는디 뱃기진(뱃기지는) 못힙네다. 꺾는(꺾는) 물에 확 다리쳐그네(들이뜨려서) 건져 내영 글그민 뱃겨정(뱃겨져서) 먹어낫는디 그놈으 게 씹지름힙네다.

·어법 / ‘비께그물’에 가당 오당 걸립네다.

■ 비께

·어장/ ‘지삿개’³⁰⁾ 앞 서쪽 베깃디(바깥에) 비께그물 놓는 디가 잇우다. 아무디나 낍 잘 들지 아니힙네다. 대개 ‘조작지’³¹⁾라고 존돌덜 잇는디가 비께가 많이 낍네다³²⁾. 걸바당 안에도 ‘투쟁이’³³⁾에 ‘조작지’가 잇는 디가 잇입네다. 그것도 가늌³⁴⁾ 해영 좇아사 힙네다. ‘녹하지’³⁵⁾가 중문파출소에 타민 ‘윗가늌’은

29)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 강정동 바다에는 ‘도랭이여’도 있다.

30) ‘지삿개’는 ‘지삿개코지’로 말미암아 좌우에 살짝 후미진 곳이다. 그 안에는 썰물에 물웅덩이를 이루는 곳이 많다. 이와 같은 곳을 ‘투쟁이’라고 한다. 여러 ‘투쟁이’들은 밀물과 같이 밀려왔다가 썰물에는 그 안에 가두어져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기(특히 멸치)들을 잡는 천연적인 석방렴 구실을 하는 수가 있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가두어져 고기를 잡으려고 아침 일찍 이곳까지 와서 고기를 잡았다. ‘지삿개코지’는 ‘큰동산’과 그 동쪽에 있는 ‘동물개동산’의 맥이 바다로 쭉 뻗어 내리며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삿개’의 뜻은 알 수 없다. ‘지삿개코지’를 기점으로 하여 동쪽의 대포동과 서쪽의 중문동 간에 갯가 경계지점이다.

31) 자그마한 ‘작지’(자갈).

32) ‘비께’는 자잘한 ‘작지’(자갈) 밭에 알을 풀었다는 말이다.

33) 육지라면 자그맣게 구획된 밭.

웨고, 동은 ‘씩은섬’³⁶⁾광 ‘제제기’³⁷⁾ 타민 뽀넨다. 또 서귀포 서쪽에 삼매봉 거기 ‘그정’(벼랑)이 잇는디, 그걸 ‘서꿋그정’³⁸⁾이라고 혼는디, ‘씩은섬’이 ‘서꿋그정’에 부평도 뽀넨다.

·어기 / 오월 장마가 최고우다. ‘웨샷’³⁹⁾이고 조금⁴⁰⁾이고 장마철에는 그물 드리창 내불민 뽀넨다.

·생태 / ‘비계’라 혼 놈은 이빨만 걸렀다 혼민 7만(가만) 혼는(하는) 놈이우다. 그물에 이빨만 걸어졌다 혼민 잡는 겨우다.

·어법 / 나록 짚으로 줄을 꼬아 가지고 우알 배리(벼리)를 만들고, ‘들굽냥’(두릅나무)이나 ‘머구냥’(머귀나무)으로 버구기⁴¹⁾멘듭넨다. 옛날은 짚으로 그물을 멘들아낫주만은 우리 때에는 멘사(綿絲)로 멘들아나수다. 그물 폭은 보통 사름 키는 뽀넨다. 우에는 버국⁴²⁾ 돌아맵넨다. 버국은 20cm쯤은 질게 해 가지고, 50cm에 하나씩 맵넨다. 뽕돌(뽕돌)은 돌멩이 ‘솔람혼’⁴³⁾거 혼발에 하나씩 돌아맵넨다. 짝(짚) 노꿋(노끈)으로 돌멩이 무경 그물더레 돌아맵넨다. ‘비계그물’ 혼 떼가 스물 여덟 발 뽀넨 겨우다. 열 떼민 열 떼 연(連)부짱넨다. 오월 장마니

34) 바다 가운데서 어장이나 자신이 있는 위치를 물의 일정한 지형지물을 이용해가며 확인해나가는 방법.

35) 서귀포시 중문동 산 5번지에 있는 오름(620.5m).

36) ‘씩은섬’은 “서귀포시 강정동 산 1번지에 있는 무인도”라는 말.

37) ‘제제기’는 “서귀포시 보목동 275-1번에 있는 오름(94.8m)”이라는 말.

38) 서귀항 서쪽에 높은 벼랑으로 이루어진 갯가의 이름이다. 서귀포 패류화석층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파도가 부서질 때 무지개가 선다. 서귀포 사람들은 이곳을 ‘황고지’라고 한다. ‘황고지’는 파도로 일어나는 무지개라는 말이다.

39) 간만의 차가 심해 물살이 센 음력 13일에서 19일까지와 27일부터 초 4일까지의 ‘물때’(무수기).

40) 간만의 차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 음력 7, 8일과 22, 23일에 있다.

41) 그물의 ‘윗베리’(위쪽 벼리)에 달아매어 그물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浮標).

42) 그물의 ‘윗베리’(위쪽 벼리)에 달아매어 그물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浮標).

43) ‘솔람혼’의 ‘솔람하다’는 “조금 타원형으로 가름하다”라는 말.

까 ‘표’도 잘 안 뵈는 때가 잇기 때문에 대로 기(旗) 멘들앙 버국에 무경 띄웁네다. 그물코더레 비께 머리가 박아 들어가야 흐는 겨우다. ‘모도리그물’⁴⁴⁾은 그물코가 더 큼네다.

■ 가오리

·어기 / 장마 때우다.

·어법 / ‘북바리주낏’(별우럭주낙)홀 때 가끔 하나이나 올라옴네다.

■ 구릿(벵에돔)

·어장 / 구릿 잡으려고 ‘목맥이그물’⁴⁵⁾ 놓는 디가 대포 포구⁴⁶⁾ 서쪽 흐고, 동더레 가민 ‘배텡개’⁴⁷⁾, 논깍⁴⁸⁾이우다.

44) ‘모도리그물’은 ‘모도리’(돌목상어)를 잡는 그물.

45) 길목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46) 대포동 포구를 ‘큰개’라고 한다. 마을 이름을 ‘대포’(大浦)라고 한 것도 ‘큰개’의 한 자어에서 따온 말이다. ‘큰개’는 동남쪽의 ‘모살업개’ 또는 ‘모살업개통’이라는 ‘코지’와 서남쪽의 ‘자장코지’ 사이에 깊게 후미진 곳에 자리한다. 그 안에 ‘대십잇개’와 ‘큰개’가 있다. 지금은 ‘모살업개’를 의지하여 길게 방파제(防波堤)를 놓았다. 그 안쪽에 ‘안개’가 있다. ‘큰개’ 안쪽에는 ‘가늌돌’ 또는 ‘구제기돌’이 있었는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묻어 버렸다. 간조와 만조에 따라 이 돌의 모양이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배의 출항과 입항을 가늌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가운뎃물’ ‘고망물’ ‘가매소깍물’이 있었기 때문에 배의 바닥에 붙어살면서 배를 갇아 먹는 ‘소’라는 선식충(船食蟲)이 서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했었다.

47) ‘배텡개’는 대포동 동쪽 ‘큰옛도’와 ‘궤기난덕’ 사이에 후미진 바닷가 이름이다. ‘배+텡+개’에서 비롯한 말이고 보면, ‘배가 뜬 개’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뜨다[浮]’의 제주어가 ‘트다’이다. 이 마을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키운 말을 이곳에 배를 대고 말[馬]을 배어 실어 날랐던 곳이기에 ‘배텡개’라고 했다고 한다. 그곳 석방렴도 있다. 이를 ‘배텡개원’이라고 한다. 반원형으로 약 50m 길이의 담으로 둘러막아 석방렴을 만들었다. ‘배텡개원’의 돌담은 조간대 중층에 자리하는데, 사리 썰물 때라고 바닥에는 어느 정도 물웅덩이를 이룬다. 바닥에는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다.

48) 논이 ‘깍’(끝).

·어기 / ‘구릿’은 장마 때나 겨울에 바당이 들망거려사만(울렁거려야만) ㄱ의 (가)로 읊네다.

·어법 / ‘목맥이그물’은 겨울철에 많이 흐는디, 구릿(벙에돔)이 겨울엔 막 곱디 (가)로 들어읍네다. 그러면 해녀덜이 서넛이서 ㄱ찌(갯이) 흡네다. 높은 동산의 서 바당을 보면 구릿이 들어오는 거 봐집네다. 구릿이 봐지민 줌수덜이 확하게 물에 들어 가지고, 히면서(헤엄치면서) ‘목맥이그물’을 청 구릿을 막읍네다. 물든 때 쳐놓고 ‘목맥이그물’이 알 들리지지 못하게 물속에 들어 가지고 돌멩이 좇이멍(주우면서) 푹푹 재겨(쌓아) 놀릅네다(누르지요). 물 싸가민 줌수덜이 그물 안네 강(가서) 다올립네다. 그러민 그놈이 물 싸 가민 갈 디(테)가 엇입네다. 꺾기가 그 안네 가두어져시민 두불 친다 말이우다. 계난 구릿이 곱더레 부튼(붙은) 걸 잡는 겨우다. 물든 때는 ㄱ이서만 먹는 짐승이우다. 이견 웨샷⁴⁹⁾에 주장흡네다. 물든 때 치민 물 싸민 잡는 거라부난 이우다. 옛날은 미녕올(무명실)로 그물을 못아(맺어) 가지고 우의 버국⁵⁰⁾은 ‘머구낭’(머귀나무)이나 ‘북칠낭’(북나무)이나 흐곡, 아래 뽕돌(봉돌)은 촌흙 파다가 만들아수다. 뽕돌은 촌흙(찰흙)을 파당 막 달좌(이겨) 가지고 그놈을 동골락하게 멘들앙 대막뎡이(대막대기)로 구멍을 낸다 말이우다. 그놈을 그늘에서 혼 사흘 몰류와(말려) 가지고 옛날 ‘굴묵’⁵¹⁾ 진을(떨) 때에 ‘ㄱ스락불’(까끄라기 불)에나 몰똥(말똥) 불에나 혼디 드리밀어⁵²⁾ 가지고 ‘굴묵’에서 그놈을 구윳다 말이우다. 경해여 가지고 흐루쫂 잇당(있다가) 꺼내 가지고 그놈을 식혀서 노깃(노끈)에 꿰면

49) 간만의 차가 심해 물살이 센 음력 13일에서 19일까지와 27일부터 초 4일까지의 ‘물때’(무수기).

50) 그물의 ‘윗베리’(위쪽 버리)에 달아매어 그물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浮標).

51) 방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주도식 아궁이로, 여기에 쓰는 땔감은 ‘정지’(부역) 아궁이에서와는 다르게 보리 까끄라기나 마소의 똥 말린 것 따위를 주로 때게 됨.

52) ‘드리밀어’의 원형은 ‘드리밀다’이다. ‘들이밀다’는 “밀어서 안으로 깊이 집어넣다.”이다.

서 뽕돌을 했다 말이우다. 뽕돌은 커봐도 혼 치가 못 흡네다. 독짐(굵음)은 ㄱ
느릉흔 몽둥이만씩 흡네다.

■ 벤자리

·어기 / ‘알룬이’⁵³⁾라고 혼 준존흔 벤자리는 음력 3월부터 생기고 큰 벤자리는
마의(장마에) 생기곡 흡네다.

·어법 / ‘알룬이’는 자리 거릴 때 혼디 거립네다. 옛날엔 그물 놓명 ㄱ지(놓으면
서까지) 벤자리 안 잡아수다.

■ 방어

·어기 / 음력 10월부터 12월 ㄱ지우다.

·생태 / 물 중간으로 떠다니는 ‘걸물궤기’우다.

·어법 / 삼치 나끄듯이 나깝네다. 옛날에 무명 아리(가짓줄) ㄱ노릉흔 거 해
가지고 감물 매기민 버짜흡네다. 감물 매긴 우의 피 맥입네다. 그놈으로 해
가지고, 미꾸라지 돌아매어 가지고 배 막 돌리명(달리면서) 훌칩네다. 막 동궤
다(당궤다) 늦궤다(늦추었다) 흥명 말이우다. 수망일민 열댓 개씩 나끄고, 경
아니흥민 번쩍흥고 해나수다.

■ 고동베기

·어기 / 가을이우다.

·생태 / 물 중간으로 떠다니는 ‘걸물궤기’우다.

·어법 / 자리(자리돔) 거릴 때 수경 놓앙 베리다가 고동베기 봐짐(보임)을 흥
민, “고동베기 완저!” 흥명 ‘자리사돌’⁵⁴⁾더레 자릴 놀립네다. 그놈으 고동베기

53) 벤자리 새끼.

54) ‘자리’(자리돔)를 잡은 둥그런 ‘사돌’(그물).

가 사들(그물) 안터레(안으로) 기어듭네다. 또 자리 거리레(뜨러)⁵⁵⁾ 보리밥 쌍
 텅길(다닐) 때 밥을 풀영 ‘사들’ 안터레 뿌립네다. 그놈으 밥이 츠츠츠츠 골라
 앉아감을 흥민, 고동베기가 바싹 ‘사들’ 안터레 돌려들기도 흡네다. 그놈으 밥
 을 먹잔(먹으려고) 흥당(하다가) 죽는 겨우다. 우리도 흥 ‘사들’ 안에서 250개
 꺾지 잡아봐수다.

■ 볼낙(볼락)

·어종 / ‘느릿이’⁵⁶⁾도 싯곡, ‘황볼락’도 싯곡 흡네다.
 ·어장/ 대포 포구에서 동서쪽으로 나간 바당에 잇우다.
 ·어기/ 음력 3월이우다.
 ·생태/ ‘걸물궤기’는 아니명도 ‘중물’에⁵⁷⁾ 평 사는 궤기우다.
 ·어법/ ‘베릿내’⁵⁸⁾나 ‘성궤내’⁵⁹⁾에 강 새우를 떠 가지고 새벽 4시만 돼민 테우
 탕 바당엘 나갑네다. 새우 두어 줌 뿌림을 흥민 히비슬히게 붙아가민, 볼락이
 ‘춤대낚시’로 몼 시작흥민 흥 아홉시꺾진 몼네다. ‘춤대낚시’는 춤대(낚싯대)
 지레기(길이)보단 궤기술 지레기가 흥썰 ‘보뜨게’⁶⁰⁾ 흥다 말이우다. 뽕돌(뽕돌)

55) 제주도 사람들은 ‘자리사들’로 ‘자리’(자리돔) 뜨는 일을 ‘거리다’라고 한다.

56) ‘느릿이’는 볼락의 일종.

57) ‘중물’은 “물 깊이 중간쯤의 바닷물”이라는 말.

58) ‘베릿내’는 “색달동과 중문동 경계를 이루는 내[川]”라는 말. 이 내를 ‘베릿내’라고 하는데, 냇줄기 갈래가 여러 개로 벌어진 데서 비롯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벌어지다’를 ‘베르쓰다’ 또는 ‘베리씨다’라고 한다. 이처럼 ‘베릿내’는 여러 갈래로 ‘베리싸진 내’라는 말이다. 냇물을 이루는 물받이 땅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여러 물받이 땅에 떨어지는 빗물이 낮은 데로 흘러들며 만들어진 내가 바로 ‘베릿내’다. 가장 위쪽의 물받이 땅은 상천리(안덕면) 영아리오름 동북쪽에 애월읍과 경계에 걸쳐진 ‘돌오름’(866m) 동쪽 드넓은 비탈이다. 그다음의 땅은 ‘거린사슴’(743m)과 ‘녹하지’(620.5m) 사이의 물받이 땅이다. 양쪽 드넓은 물받이 땅에서 내려진 빗물은 제각각 흘러내리다 ‘녹하지’ 아래 물받이 땅에서 만나고, 다시 ‘녹하지’ 아래 물받이 땅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모두 합쳐져 내려지며 만든 ‘내’가 바로 ‘베릿내’이다.

59) ‘성궤내’는 대포동과 월평동 사이에 있는 건천이다.

은 안 매고 술(줄)에 낚시 하나만 돌아맙네다. 니깍(미끼)은 새우우다. 스망일
뎌 여나문 ‘뭇’⁶¹⁾ 나깝네다. 경 아니호민 대엿 뭇 나끄곡 흙네다.

■ 갯돔(감성돔)

·어기 / 장마 전후우다.

·어법 / 옛날은 우리 어머님도 줌수니까 호주만은 바당 게드레기(소라게) 잡앙
‘빋창’으로 무사(빵아) 가지고 니깍 해영 ‘테왁’ 우의서 술(줄)만 드리청 갯돔
나까나수다.

■ 고도리(고등어 새끼)

·어기 / 음력 3월 자리(자리돔) 거림(뜸) 시작호민 나오는 겨우다.

·어법 / 옛날에 이거 ‘자리사들’로 거려수다. 고도리는 자리(자리돔)광 혼디 서
꺼정(섞여) 텅기당(다니다) 죽는 물건이우다.

■ 복쟁이(복어)

·어기 / 봄과 가을이우다.

·생태 / 물 가운데로 왔다갔다 호는 ‘걸물궤기’우다.

·어법 / 옛날 우리 나쁠 때는 술(줄)에 갈치낚시 양쪽에 ‘섬비’⁶²⁾ 해영 낚시
무꺼 가지고 물구럭(문어) 니깍(미끼)을 주로 씹네다. 복쟁이 몸 시작호민 ‘가
락치기’⁶³⁾로 ‘술’ 하나에 두 개씩 물영 올라옴네다. 그것보고 ‘가락치기’라 호

60) ‘브뜨게’의 ‘브뜨다’는 “줄 따위의 길이가 바라는 것보다 짧다.”는 말이다.

61) ‘뭇’은 물고기를 세는 단위. 한 ‘뭇’은 물고기 10마리.

62)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
게 하는 가느다람 막대기 따위”라는 말.

63) 물고기 따위가 계속 무는 모양.

는 겨우다.

■ 고등어

·어법 / 갈치 나쁘레 갓당 나쁘네다.

② 저립 낚기

*‘저립’은 재방어라는 말이다.

[사례12] 우도 주흥동 양순향(1935년생, 남) 씨

■ 저립은 음력 7월과 8월에 새끼 낳으려고 우도로 왔다. 음력 7월에 오는 저립은 몸집이 작았다. 이때의 저립을 ‘깨저립’이라고 하였다.

■ 산란장은 ‘앞새비’와 ‘박머리’, 물살이 센 곳이다. 썰물을 타고 서쪽에서 어장으로 달려왔다. 가끔 들물 때 동쪽 바다에서 오는 수도 있다.

■ 낚시는 ‘모도리낚시’, 이깍은 전대미, 고등어, 갈치.

■ 사리 때 어부 2, 3명.

■ 배 1척에 낚시 2개. 줄 150발, 아리 1발(철사).

■ 낮에는 저립이 거치니, 배를 움직이면서 낚는다. 달밤에는 저립이 어지니, 닻 주고 낚는다.

■ 분배 / 배 1깃, 사람 1깃. 연장은 같이 마련한다.

■ 소금에 절였다가 겨울에 소금 행구고 무 놓고 국 끓여 먹는 수가 많았다.

■ 맛은 암컷이 좋다.

③ 가다리 낚기

*가파도 사람들은 재방어를 ‘가다리’라고 하였다.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김영길 번역본)에는 ‘방어’(方魚)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협주(夾註)에서 “속칭

백여기(白如其), 혹은 가달리(加達里)라고도 한다(俗稱白如其 或加達里)”라고 하였다. 1995년에 제주도의 안덕면 사계리 고술생(1912년생, 남) 씨에게, 『제주도 해산어류도감』(濟州道海產魚類圖鑑)⁶⁴⁾에 들어 있는 제주도 물고기의 이름과 생태를 가르침 받았다. 『어류도감』에서 재방어를 본 고 씨는, “이를 ‘가다리’라고 한다. ‘가다리’도 두 가지가 있다. ‘널저렵’과 ‘부디저렵’”이라고 하였다.

[사례13] 가파도 김대중(1924년생, 남) 씨

■ 어기 / 가파도에서는 “부종 끝에 가다리 온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부종’(付種)은 소서(7월 7일경) 전후였다. 가다리는 가파도 서쪽 바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음력 7월이면 바다에서 가다리가 뛰었다. 동짓달까지 가다리 낚기가 이루어졌다.

■ 어장 / 가파도 서바당, 넙개, 흘애미섬.

■ 어구 / 갈치 주둥이 아래 뿔돌을 채우고, 뿔돌 아래 낚시를 묶었다. 어구는 살아 있는 갈치 모양이 되었다.

■ 분배 / 풍선 1척에 3명이 타고 가다리를 낚았다. 풍선과 어구 몫으로 3등분, 어부마다 각각 1등분씩 받았다.

■ 염장하고 쌀과 물물교환하였다.

■ 30년 전부터 가파도에 가다리는 오지 않았다.

64) 白文河(1994), 《濟州道海產魚類圖鑑》, 圖書出版 新亞文化社.

○ 닻끓의 물고기 기억

① 닻끓의 물고기 생태와 어법

*‘닻끓’은 ‘걸바당’과 ‘펼바당’의 경계지점이다. ‘걸바당’과 ‘펼바당’을 오가는 물고기들도 ‘닻끓’에 포함시켰다. ‘닻끓’ 물고기에 따른 생태와 어법은 다양하였다.

[사례14] 서귀포시 대포동 이창옥(1921년생, 남) 씨와 원승국(1921년생, 남) 씨

■ 바당장어(바닷장어)

·어장 / ‘걸’⁶⁵⁾에도 살꼭 ‘펼’⁶⁶⁾에도 사는 거우다. ‘펼바당’ 가운데서도 돌 이 신(있는) 디 하영 샅네다.

·어기 / 스절(四節)이우다.

·어법 / 우력주낫(우력주낙) 흥당 보민 올라옴네다.

■ 뽕래기(뽕장어)

·어장 / ‘펼바당’에 많이 살고 간혹 ‘걸바당’에도 쫓는디(있는데), ‘걸바당’에 있는 건 흠옴네다.

·어기 / 뽕이우다. 뽕 나가민 우력 잡으랴고 ‘걸바당’에 주낫(주낙)을 놓네다. 게민 큰 것털이 간혹 올라옴네다.

·어법 / 주낫 낱 놔두민 무는 거우다. 역불(일부러) ‘뽕래기주낫’(뽕장어주낙)이라고 해 가지고 가보진 안해수다.

65) ‘걸’은 ‘걸바당’의 줄임말.

66) ‘펼’은 ‘펼바당’의 줄임말.

■ 생선

·어장 / ‘닷끓’에만 잇입네다.

·어기 / 1년 내낭(내내) 잇주만은 여름에는 잡젠도 아니힙네다.

·생태 / 황돔 닥아도 황돔 아니우다.

·어법 / 생선을 잡을랴고 해서 주낫을 놓게 뒤편 돌 잇는 딜 사과야(사귀어야)⁶⁷⁾ 뻘네다. 게니 ‘닷끓’에 주낫을 부찌야 흐는 겨우다. 그러기 때문에 주낫을 많이 실패봔네다. 니껍(미끼)은 대개 고등어나 물구렁(문어)이우다.

■ 아에리(매통이)

·어장 / ‘닷끓’에만 삽네다.

·어기 / 8월에서 10월까지지우다.

·생태 / 모살치 닥은 건디 색조(色子)가 뜰립네다. 모살친 흥끔(조금) 희는디, 이놈은 흥끔 검읍네다. 맛 줍네다. 옛날에 시들시들 몰려 가지고 죽도 썬 먹어나수다.

■ 땡내기[두릅상어]

·어장 / ‘닷끓’에만 삽네다. 범섬⁶⁸⁾ 남쪽으로 100메타만 나가민 땡내기 만힙네다.

·어기 / 수절(四節)이우다.

·어법 / 그디서 그물질 해 봤는디 그물을 혼번 낚다가 손잡을 트멍(틈) 없이 땡내기가 걸어져더고 마썸. 혼 떼가 설흔 발 잡아서 열 뿔 낚으니까 삼백 발이

67) 여기에서 ‘돌 잇는 데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은, 생선은 펄바다 중에서도 돌이 깔린 곳이거나 ‘걸바당’와 ‘펄바당’ 경계지점인 ‘닷끓’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생선을 잡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곳을 찾아가야 했다는 말이다.

68) 서귀포시 법환동 남쪽 1.3km 해상에 있는 무인도.

우다. 손잡을 트명이 없이 ‘맹neck이’가 걸려십네다. 그때가 3월쯤이라수다. ‘맹neck이’는 주낮으로도 잡읍네다.

■ 갈치

·어장 / ‘결’에도 살꼭 ‘떨’에도 살꼭 흡네다.

·어기 / 음력 7월 보름부터 동짓돌⁶⁹지 몹네다.

·생태 / ‘결물궤기’우다.

·어법① / 밤에 갈치술로 나깝네다. 니껍 어시민(없으면) 고도리로 갈치 하나만 나끔(납기)을 흥민 배 안네 사름은 문딱 그 갈치 니껍으로 나깝네다. ‘웨살’이고 조금이고 흥이 엇입네다. 옛날엔 불도 안 싸고(밝히고) 나까나수다. 갈친 ‘결물궤기’라 댕 발에도 물고 열 발 수심에도 몹네다. 밤의 돌 신 밤의고 어둑은 밤의고 나강(나가서) 배 탕 나강 댕(댕) 주어 가지고 뱀 세웁네다. 갈치술 잡앙 배 파락⁶⁹에서 흘뫼다(홀었다) 말이우다. 갈치가 물엇댄 흥민 재깅 흡네다. 동기면은 납시가 두 개니까 양 가달에 하나씩 물영 올라올 때도 잇곡, 하나만 물영 올라올 때도 잇입네다. 만일에 세 사름이 갈치 나끄레 갓다민, 흥 사름이 갈치를 막 나끈다 말이우다. “거 댕발 7리에서 물엄수짜(물고 있습니까)?” 흥민, 골아주지 안흡네다. 골아주지 안흥민 그 사름 나끄는 거 보면서 뽕돌(봉돌) 드리칠 때 딱 준비헛당, 드리칠 때는 7찌(갈이) 드리쳐 가지고 두어 발 더 준다 말이우다. 더 주어 가지고 흥끔씩 올리곡 올리곡 햄시민(하고 있으면) 갈치 무는 7리(고비)를 좇아집네다. “야, 요 7리에서 나깸구나(납고 있구나!)” 이저거든 마썸. 생전 골아주지 안흡네다. 이것7라(이것보고) ‘물음갈치술’이라고 흡네다.

·어법② / 동짓돌 뒤편가민 갈치가 새끼를 치려고 곱디(가예) 들어웁네다. 갈

69) 돛배 따위의 양쪽 가의 위쪽에 바깥으로 둘러붙은 나무판자. 부자리의 바로 윗부분.

치술에 뽕돌 주지(좇게) 맵네다. 또 줄 밑에는 ‘푸리머리’⁷⁰⁾라고 잇우다. 갈치가 잘 부뜨게 흐는 건 ‘푸리머리’ 멘툼이 호랭이라수다. 그거 잘 멘들지 안흐민 갈치가 잘 차질 아니흐네다. ‘홀림갈치’는 돌밤의 배를 홀리멍 나끄는 거우다. 돌밤의 브름이 건드렁흐민 풍선에 돛(돛) 돌곡 배 흘려줘 가명 ‘홀림갈치술’을 다 풀어주어 가지고 7만이 앓입네다. 그것도 브름(바람)에 맞추앙 배걸음을 잘해야지 경 아니흐민 갈치가 잘 물질 아니흐네다.

② 봄갈치 낚기

*‘봄갈치’는 “봄에 낚는 갈치”라는 말이다.

[사례15] 구좌읍 평대리 한운혁(1920년생, 남) 씨

■ 봄갈치는 낮에 낚았다. 이때 평대리 사람들은 제주시 앞에 있는 ‘펄바다’까지 가는 수도 있었다. ‘갈치술’은 고정배기(곧추)로 80발 드리웠다가 한 발쯤 들어서 ‘푸쫘다’⁷¹⁾.

■ 갈치를 낚자마자 국 끓이면 설사가 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기가 떨어져서 설사가 나지 않았다.

■ 갈치를 많이 낚으면 사울대(상앗대)에 수건을 잘라매고 배에 세웠다. 이것은 고기 사가기를 바라는 징표였다.

③ 7실갈치 낚기

*‘7실갈치’는 “가을에 낚는 갈치”라는 말이다.

70) 납 따위로 측면을 정삼각형으로 만든 뽕돌.

71) ‘푸쫘다’의 ‘푸끄다’는 “고기를 유인하려고 낚싯줄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는 말.

[사례16]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 어기 / 처서(8월 23일경)부터 상강(10월 23일경)까지였다. 물때는 조금 때 낚았다. 웨살 때에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여 갈치 낚기가 버거웠다. 달밤에는 갈치가 잘 물지 않아서 꺼렸다. 갈치는 여름에 ‘펼바다’에 갔다가 가을에는 갯가 쪽으로 왔다. 한동리 지경 ‘반빌레’로 들어왔다가 평대리 지경 ‘옆난이므루’ 쪽으로 빠졌다. 들어올 때는 다섯 발 수심으로 들어왔다. 새벽에 나갈 때는 배가 빵빵하였다.

■ 어장 / 걸바다와 펼바다를 가리지 않았다. 갈치는 고도리와 각재기를 먹으려고 물려들었다.

■ 어구 / 각자 ‘갈치술’ 1개씩 마련하였다. 낚시는 2개 달렸다. 닥치는 자잘한 갈치 ‘몰른’⁷²⁾ 것이었다. 바당궤기(바닷고기)는 배가 불면 더 잘 물었다.

■ 배 / 배 1척에 3명이 탔다. 고물에는 선주가 차지하였고, 이물에는 심부름 잘 거드는 사람이 차지하였다. 한 배에 3명이 타면 ‘갈치술’과 ‘갈치술’이 서로 얹히지 않아서 좋았다. ‘갈치술’과 ‘갈치술’이 얹히는 일을 ‘술맞음’이라고 하였다. 배 이물에 앉아서 갈치를 낚는 ‘갈치술’을 ‘이물술’, 배 고물에 앉아서 갈치를 낚는 ‘갈치술’을 ‘고물술’, 그리고 배 ‘한장’⁷³⁾에 앉아서 갈치를 낚는 ‘갈치술’을 ‘한장술’이라고 하였다. 간혹 네 사람이 타서 갈치를 낚을 때는 ‘한장’에 두 사람이 앉는 수도 있었다. ‘한장’을 ‘허릿대밧’이라고도 하였다. 새벽에 낚은 갈치를 ‘새벙갈치’라고 하였다. ‘새벙갈치’는 싱싱하였다.

■ 뱃값은 1뭇당 2개였다.

■ 한 씨는 하룻밤에 갈치 21뭇을 낚았던 적이 있다. 갈치 10마리를 ‘1뭇’이라고 하였다.

■ 물물교환 / 음력 8월, 한 씨 부인은 한동리(구좌읍)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

72) ‘몰른’의 ‘므르다’는 “미끼로 쓸 갈치의 살을 자르다”라는 말.

73) ‘한장’은 “거룻배 맨 한가운데의 칸”이라는 말.

서 갈치와 모뿔(메밀)을 물물교환하였다. 갈치 5마리에 모뿔 한 말 물물교환 조건이었다. 이렇게 갈치와 모뿔을 물물교환하는 일을 “모뿔에 드린다”고 하였다. 상강(10월 23일경) 이후에는 다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모뿔을 받아 왔다.

④ 갈치 낚기

*월령리 사람들은 봄에 낚는 갈치를 ‘봄갈치’, 가을에 낚는 갈치를 ‘ㄱ실갈치’라고 하였다. 갈치 낚기는 풍선을 타고 다녔다.

[사례17] 한경면 월령리 양창부(1926년생, 남) 씨

■ 봄갈치

·어기 / 음력 3, 4월 중 밤.

·어장 / 차귀도 알더레 막 나간 곳이었다.

·브름이 좋으면 3, 4시간 배질, 브름이 엷으면 고생이다. 풍선 1척에 어부 5, 6명이 탔다. ‘선개’는 5분의 1이었다.

·어구는 생선 낚는 것과 같았다. 다만 낚시만 조금 달랐다.

■ ㄱ실갈치

·어기 / 음력 9월부터 상강(10월 23일경) 때까지 밤.

·어장 / 비양도 주변이었다.

○ 펄바당의 물고기 기억

① 펄바당 물고기 생태와 어법

*‘펄바당’은 ‘걸바당’과 ‘닷굶’을 넘어서 바다이다. ‘펄바당’은 밑바닥에 펄이 깔

려 있다. ‘펼바당’에는 일정한 물고기들이 산다. 또 ‘펼바당’ 물고기에 따른 생태와 어법은 다양하였다.

[사례18] 서귀포시 대포동 이창옥(1921년생, 남) 씨와 원승국(1921년생, 남) 씨

■ 솔라니(옥돔)

- 어장 / ‘펼바당’에만 주장 해영 사는 거우다.
- 어기 / 1년 내낭(내내) 잇주만은 6, 7, 8월엔 ‘자리’(자리돔)가 하영 낭 판로가 좋아부난 나끄지 안흠네다. 경하고 6, 7월에 그 벳살(별살) 맛이민 썩어 붙네다. 또 청명(4월 5일경) 넘어가민 맛이 좀 떨어집네다.
- 생태 / 영등돌부터 음력 스월⁷⁴지는 ‘진독내’⁷⁴ 나는 게 잇입네다. ‘솔라니’마다 나진 아니흠네다. ‘진독내’ 나는 것이 가끔 하나이나 잇입네다. 100여개에 흐나 시나마야(있으나마나) 흠네다. ‘진독내’ 과하게 나는 놈은 념살 나그네 먹도 못흠네다. 국 끓여도 그렇고, 구어도 그렇고, 보까도 그럽네다.
- 어법 / 낚시나 주낫(주낙)으로 나깝네다.

■ 조기

- 청조기 / 가끔 잇는 거우다.
- 황조기 / 빨경흠네다. 가끔 하나씩 무는디 흠읍네다. 눈도 우럭 눈보단 큼네다.
- 잇발검은조기 / 여기선 잇발검은조기가 하영(많이) 낍네다.
- 흰조기 / 가끔 무는 거우다.
- 어장 / 조기는 ‘펼바당’에서도 ‘중물’⁷⁵에만, 델발(멸치떼) 조름에만 조치는(쫓는) 꿩기우다. 거보고 ‘겉물꿩기’라고 흠네다. 조기가 겉물에 땡기당(다니다

74) 바닷고기에서 나는 고약한 비린내.

75) 중간 정도 깊이의 물속.

가) 걸리민 물곡, 7만이 잇지 아니하는 꿔기우다. ‘솔라니’는 펄 속에 묻어졌다가 웨줄로나 주낮으로 나끄는(낚는) 사름이 드리치민 나오라서 물고 ㅎ주만은, 이 조기는 물 중간으로 돌아텅깁네다. 이것7라 ‘걸물꿔기’라고 ㅎ는 겨우다.

·어기 / 눈 하영(똥이) 오는 해에는 음력 10월부터 조기가 생기곡, 눈 아니 오는 해는 동짓돌 그믐어사 조기가 들어옴네다.

·어법 / 낚시나 주낮으로 나깝네다.

■ 홍어

·어기 / 수절(四節) 나는 겨우다.

·어법 / ‘솔라니’ 나쁠 때 하나이나 올라오는 겨우다.

■ 상어

·생태 / 맛도 좋아 회로도 먹곡 ㅎ네다. 지금은 그렇게 멀리 가도 그런 상어 잡아오는 거 못 봄네다.

·어법 / 옛날엔 낚시로 ‘솔라니’ 못 잡으민 상어로 ‘뱃집’⁷⁶⁾ 채왓당(채웠다가) ‘솔라니’ 잡아지민 그건 물러레(물로) 던져불명(던져버리면서) 해나수다.

■ 서치(서대기)

·어기 / 수절(四節)이우다.

·생태 / 지금 양식하는 꿔기 광어 닳은 겨우다. 광어하고 비슷하는디 색조(色子)가 뜰립네다.

·어법 / 이 바당엔 하진 안 ㅎ네다. ‘솔라니’ 나끄레 갓당(갓다가) ㅎ 사름이 대

76) 배에 싣는 짐.

옛 개, 이녁 반찬 정도로 나깝네다.

■ 청폰체

·어기 / 이거 10월 혼 돌(달) 놀아먹당 기여나 부립네다.

·생태 / 어떤 사름은 ‘도새기’라고도 호는디, 일름이 두 가지우다. 머리빡은 뭉클락호고 쫘텅이더렌 쫘랑호주(짜름하지).

·어법 / 솔라니주낫(옥돔주낙)에 ㄱ찌(같이) 올라옴네다.

■ 돌치(달고기)

·어장 / ‘펼바당’ ‘중물’⁷⁷⁾에 평 삽네다.

·어법 / 하루 ‘소망 일민’⁷⁸⁾ 대여섯 개 올라옴네다. 이거 조기 새끼 주낫에 물영 올라오람시민 숨쳐그네(삼켜서는) 낚시 걸어지지 안해도 그냥 올라오는 수가 잇입네다.

② 바당블락

*‘바당블락’은 불블락이다.

[사례19]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 어기 / 선달부터 음력 3월까지 낮에.

■ 어장 / ‘맹내기왓’⁷⁹⁾ ‘굶’⁸⁰⁾털어지민 ‘펼바당’.

77) 중간 정도 깊이의 물속.

78) ‘소망일다’는 “어떤 일이 다행스럽게 마음 같이 잘 해내다.”라는 의미의 말이다.

79) ‘맹내기왓’은 “두릅상어 발”이라는 말.

80) ‘굶’은 “걸바다와 펼바다의 경계”라는 말. 평대리 사람들은 종달리 지경에 있는 ‘지미봉’ 바깥으로 성산을 수산리 지경에 있는 ‘수산봉’이 나온 지점으로 가늠하였다.

■ 어구 / 손줄낙시 10~30개를 달아맸다.

③ 오토미

*‘오토미’는 옥돔이라는 말이다.

[사례20] 구좌읍 평대리 한운혁(1920년생, 남) 씨

■ 어기 / 동짓달부터 음력 3월까지 낮에.

■ 어장 / ‘맹내기왓’ 베끼디 ‘얼’⁸¹⁾에서 비교적 잘 물었다.

■ 어구 / 손줄낙시에 낙시 2개 달아맨 것이다. 낙곁은 ‘지낙곁’⁸²⁾이었다.

■ 어법 / 닻돌을 놓고 끌면서 낙았다.

④ 솔래기와 오토미

*‘솔래기’와 ‘오토미’는 표준어로 대역하면 옥돔이지만, 평대리 사람들은 옥돔을 ‘솔래기’와 ‘오토미’로 구분하였다.

[사례21] 구좌읍 평대리 한운혁(1920년생, 남) 씨

■ 솔래기 / ‘솔래기’와 ‘오토미’는 꼭 닮지만, ‘솔래기’는 펄 속에 산다. 그러니 살이 ‘또락지지’⁸³⁾못하다.

■ 오토미 / ‘솔래기’와 ‘오토미’는 꼭 닮은 고기지만, ‘얼’⁸⁴⁾에 의지하여 사니 살이 ‘또락지고’ 맛이 좋았다.

81) ‘얼’은 “펄바다 속에 있는 빌레(너럭바위)”라는 말.

82) ‘지낙곁’은 “자기 미끼”라는 말로 오토미(옥돔) 살코기이다.

83) ‘또락지지’의 ‘또락지다’는 “살코기 따위가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라는 말.

84) ‘얼’은 “펄바다 속에 있는 바윗돌”이라는 말.

⑤ 생선 낚기

*월령리 사람들은 옥돔을 ‘생선’이라고 한다. 월령리 사람들은 낚시로 ‘생선’을 낚았다. 하나의 풍선에 어부 5, 6명이 타고 갔다.

[사례22] 한경면 월령리 양창부(1926년생, 남) 씨

- 어기 / 음력 2~4월, 물때는 두물날(두무날)부터 다섯물(다섯무날)날까지다.
- 어장 / ‘펼바당’ 중 골(골짜기)에서 낚았다. 동산에는 물지 않았다. ‘골’과 ‘동산’은 가늠으로 가렸다.
- 어구 / ‘섬비’⁸⁵⁾는 윤유리낭으로 만들었다. ‘섬비’ 양쪽에 낚시 하나씩 달아 땀다.
- 남의 배에 부평 갔을 때는 ‘선개’(船價)는 5분의 1이었다.

⑥ 펼바당 낚시질

*고성리와 신양리 바다는 ‘걸바당’과 ‘펼바당’, 그리고 ‘얼담’으로 구성되었다. ‘걸바당’은 바닷가에서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조간대 연안을 지나 일정한 선상의 지점까지, 바다가와 ‘펼바당’ 사이에 있는 용암 자죽이 돌이나 암반으로 깔려 있는 곳이고, ‘펼바당’은 바다 밑에 개펄이 깔린 바다이다. 그리고 ‘얼담’은 ‘걸바당’과 ‘펼바당’ 경계선에 있는 바다이다. ‘걸바당’의 대표적인 물고기는 ‘생선’(황동)이고, ‘펼바당’의 대표적인 물고기는 ‘솔래기’(옥돔)이다.

[사례23] 성산을 신양리 오성홍(1926년생, 남) 씨

- 어기 / 음력 10월부터 음력 5월까지. 여름에 ‘솔래기’는 ‘빈독내’⁸⁶⁾난다고

85)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게 하는 가느다람 막대기 따위”라는 말.

86) ‘솔래기’에서 나는 고약한 비린내. 일부 지역에서는 ‘진독내’라고도 이른다.

해서 안 먹읍주. 음력 8월에 멩질 제숙흐레 조금 텡기주.

■ 청명(4월 5일경) 이후부터는 ‘머정 간다’.⁸⁷⁾청명 넘어가민 바당이 불아 부난, 밋심 놓앙 머정 텡기주. 하늬브름에 머정 갓다가 마프름이 자꾸 분다.

■ ‘큰배’, 삼대선, 스물여섯 자나 스물일곱 자 길이주. 보통 6명이 승선흐주. 닻 놓앙 벨 흘리주. 그디 가민 한라산만 보이주. 궤기술은 흐 사름이 1개 소유 흐는디, 길이는 80발. 줄 끝에 윤유리낭을 멘든 ‘섬비’⁸⁸⁾ 양쪽에 낚시 무경. 니껍은 뭉게 물류왕 겁죽 벳경 칼로 오리주.

■ 각자 쓸 가장 가주. 화덕에 솟 큼직흐 거 얹히주.

○ 자유 토론

87) ‘머정간다’는 “비교적 먼바다에서 여러 날 물고기 따위를 잡으러 가는 일”이라는 말.

88)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게 하는 가느다람 막대기 따위”라는 말.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김창일(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마을 기록관(박물관) 의의와 설립 방안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창 일

현장기록과 조사자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은?

현장의 목격자이자, 사건을 선별하는 행위자이며 기록자

뉴스에서 사실이 존재하려면 보도가 되어야 하고,
사건이 일어나려면 카메라에 찍혀야 하듯이,

조사자가 듣거나 보지 않았다면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것
(보고, 듣고, 인지했을 때 기록됨.)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은 전적으로 조사자의 몫.
그래서 조사자의 책임이 막중함.

기록은 왜곡된다.

기록은 재현이기에 조사자의 눈을 통해서 현장은 굴절된다.

틀뢰즈의 개념을 빌리자면,
조사기록은 시물라크르(과생실제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을 표현해 내는
시물라시옹(재현의 과정) :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유사(?)

그래서

면속지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의 진실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걸러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왜곡은 따름
이것은 조사자가 가진 지식의 깊이나 객관적 태도 여부와 관계없음

기록은 단순한 사실을 적는 행위가 아니다.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의 선별과 배열 즉,
현장 기록은 사실과 사실을 엮어서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랑케필법보다는 춘추필법을 선호
데이터, 그래픽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 개별 현상 간의 인과관계와 맥락 인식,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사건(인물, 현상) 선택을 해야 한다.
(모든 사실이 기록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에..)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개개인의 삶, 각각의 사건을 가치화하여 기호화 시키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민속조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사자의 자세와 판단이 중요함.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하는 것

민속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역사학에서 말하는 '기념비적인 역사' 혹은 '골동품적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는 다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록하는 것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을 지닌 사람이나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빛나는 전통을
유지하는 무엇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름의 세계를 드러냄과 개별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아내어 묶는 것.
보편성은 찾아내고, 개별성은 드러내는 것이 곧 기록이다.

기록자의 현장을 임하는 자세

1. 조사는 몸으로 하는 것



2. 수첩과 펜 던지고 삼을 들 때



3. 조사자가 아닌 마을 주민이 되어



4.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은 행동으로



5. 어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민이 된다.



6.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체험으로



7. 내부인과 외부인의 시각을 동시에 견지하는 냉철함은 필수



8. 때로는 내부인, 때로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자와 조사대상의 일체화, 타자화를 통한 객관화)



9. 카메라와 수첩만 들고 다니는 외지인이 아닌 마을주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10. 질문은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아는 만큼
조사의 깊이가 달라진다.



구술조사는 크로스 체크가 필수
(머구리 풍 크로스 체크하는 장면)

11. 민속지의 수준은 조사자 발뼌꿈치의 굵은살 두께 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다.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살살이 조사하는 이유?

살림살이 조사란?

- 한 가정에서 몇 가지 물건을 소유하고 살았느냐는 단순 통계를 얻기 위한 작업 아님
- 살림살이 조사는 현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기에 미래를 위한 작업
- 맥락 있는 자료의 수집 가능

남해 물건마을

조창남 · 김순점 부부의 살림살이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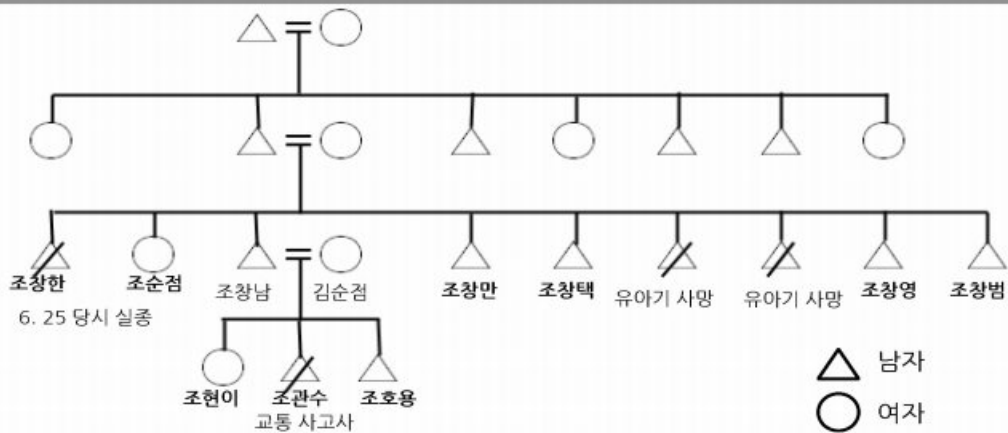


조창남 (남, 75세)



김순점 (여, 72세)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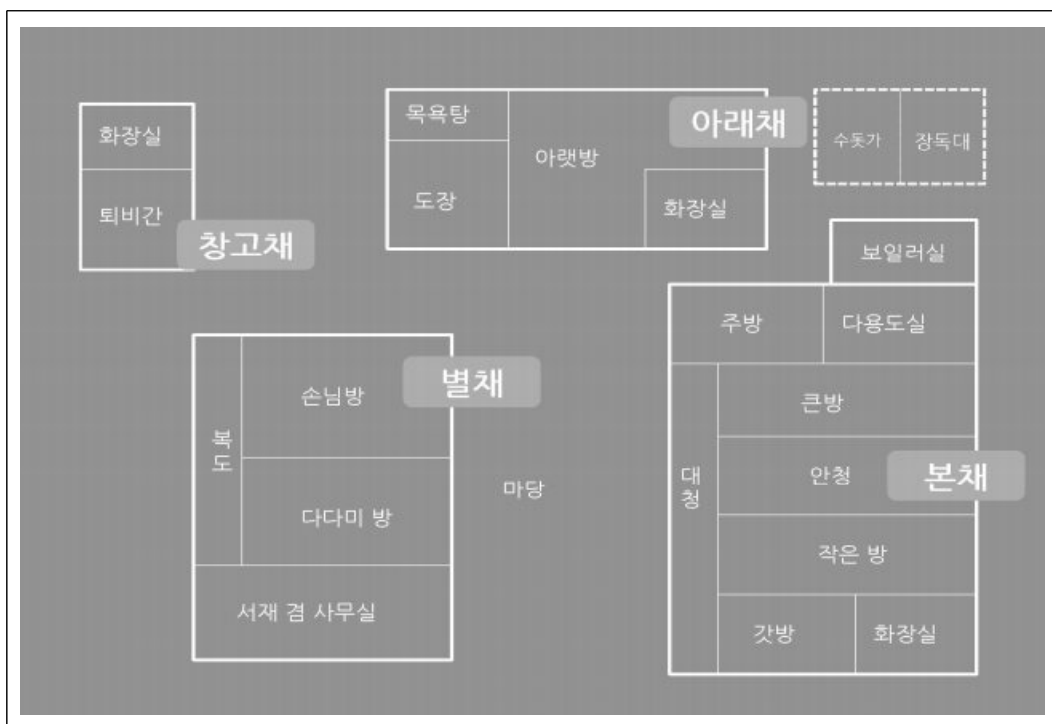


살림살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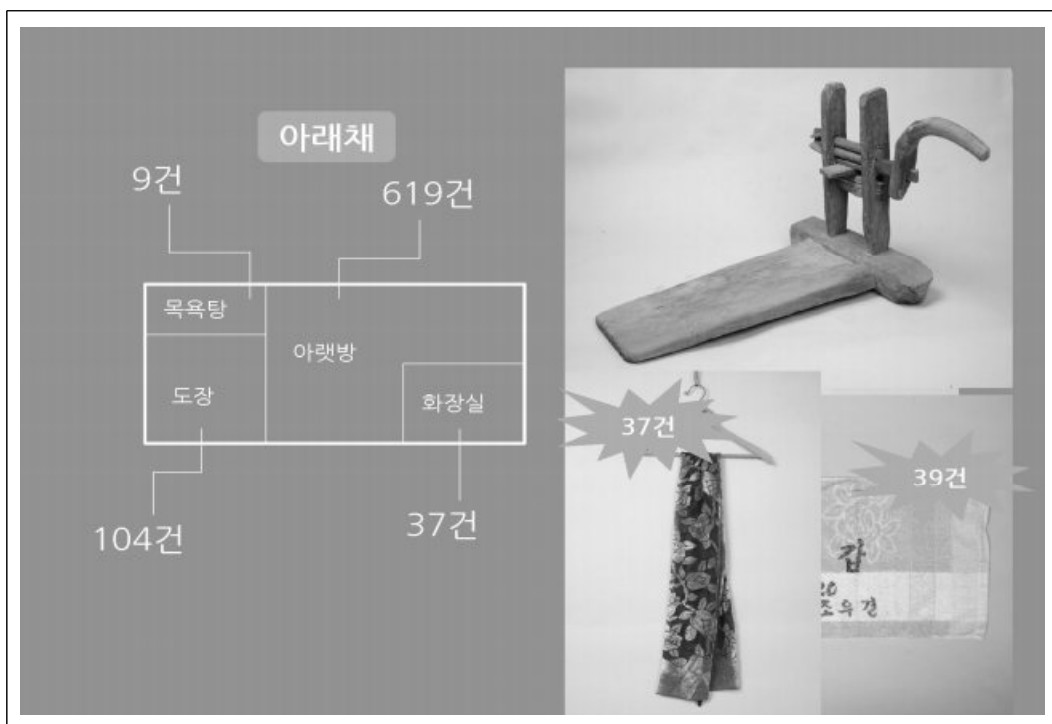
- 1942년 건축된 한옥과 다다미 조합양식 건물
- 한옥에 구비된 책장, 가구 등 당대에 사용되던 물품
- 소반, 바둑판, 물장군 등 다양한 민속품 소장
- 1940~60년대 서적 다수 소장
- 1980년대까지 어업에 종사
- 형제, 자녀들의 성적표, 졸업장, 상장, 앨범 등 학교생활 관련 물품 소장

목 차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대상 선정 이유 2) 조사 과정 및 방법 2. 가족 및 가옥의 역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의 역사 2) 가옥의 역사 3. 가옥의 공간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옥 전체 조감도 2) 가옥의 공간 구성 및 활용 3)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공간 이용 방식 4. 부부의 살아온 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창남 할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2) 김순점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살림살이로 본 가족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머니의 솜씨가 배어 있는 살림살이 2) 가족들의 학업 열정이 담긴 살림살이 6. 부부의 일상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창남 할아버지의 일상생활 2) 김순점 할머니의 일상생활 7. 살림살이 목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채 2) 아래채 3) 별채(사무실) 4) 창고채(퇴비간) 5) 기타공간 |
|--|---|









살림살이 조사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경남민속문화의 해 지역민속조사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살림살이 조사 모습

유물 기증목록

기증자 - 일련번호	사진	명칭	수량	주소
조창남 - 01		고구마 절단기	1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52-6번지
...				
김영철 - 01		상평통보	4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314- 6번지
...				
박정현 - 01		소 여울 갈퀴리	3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81번지

총 36건 49점



유물 기증 모습



유물 기증 모습

울산 제전마을 어구 수집(맥락 있는 자료 수집)



삼척 갈남마을 살림살이 조사 최병록 · 진숙희 부부



제보자

갈남리 토박이 최병록과 작진항 출신 진숙희는 현재 멧게양식을 생업으로 함.

부부는 최병록의 어머니와 함께 갈남리에 거주.

자녀는 1남2녀로 삼척시내에서 교육을 마치고 수도권으로 진출.

진숙희(1954년생 / 60세), 최병록(1948년생 / 6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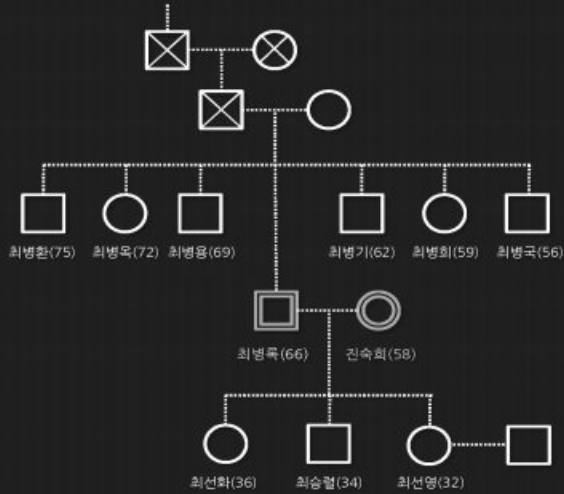
제보자



제보자



제보자 가계도



최병용 친가 중심의 가계도

6대 이상 이어진 갈남 토박이,
선조가 대대로 어업에 종사.
- 고문서, 사진, 상장 등

형제 모두 외지로 나감.
최병록이 어업으로 대를 보 역할을 함.

양식을 최초로 시작.
마을 주민의 생업활동에 영향.

갈남에서 중학교 졸업.
고등학생때부터 삼척시내 거주.
현재 서울, 수원 거주.

살림살이의 특징

- ✓ 고문서 다수 소장
- ✓ 오래된 사진 다수 소장 : 어업, 가족생활 관련
- ✓ 명게양식 어업도구 다수 소장
- ✓ 6대째 이어온 갈남 토박이 어업집안
- ✓ 연중 3개월(5~7월) 간 어업에 종사, 연간 역대 수입
- ✓ 휴식기 여유로운 생활

- 족보를 비롯한 각종 고문서
- 명게 씨앗줄
- 양식업 일부 식사용기



목차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선정이유
- 2) 조사과정 및 방법

2. 부부의 삶 이야기

- 1) 최병록의 삶 이야기
- 2) 진숙희의 삶 이야기
- 3) 부부의 삶 이야기

3. 부부의 일상 이야기

- 1) 최병록의 일상이야기
- 2) 진숙희의 일상이야기
- 3) 부부의 1년 생활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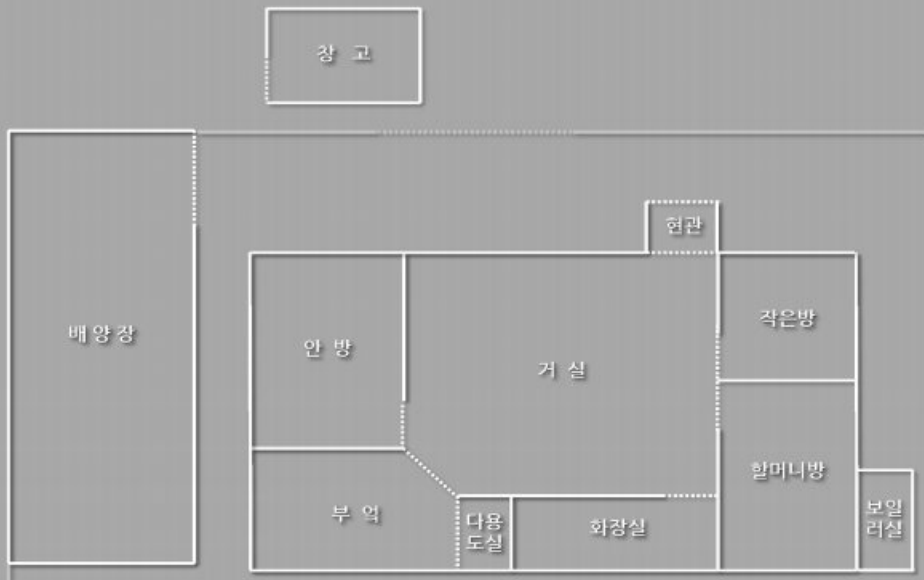
4. 살림살이로 보는 가족 이야기

- 1) 기록으로 보는 가족 이야기
- 2) 살림으로 보는 가족 어업 이야기
- 3) 사진으로 보는 갈남의 변화

5. 살림살이 목록

- 1) 생업공간 : 배양장, 창고, 배, 트럭
- 2) 주거공간 : 집 내부
- 3) 기타공간 : 승용차, 정원, 밭, 집 외벽

공간별 사진 및 현황 : 평면도



공간별 사진 및 현황 : 생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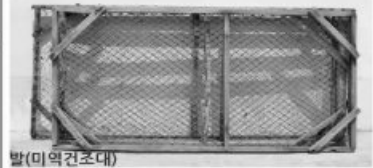
배양장
265건



배양통



창고
1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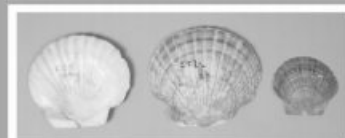


밭(미역건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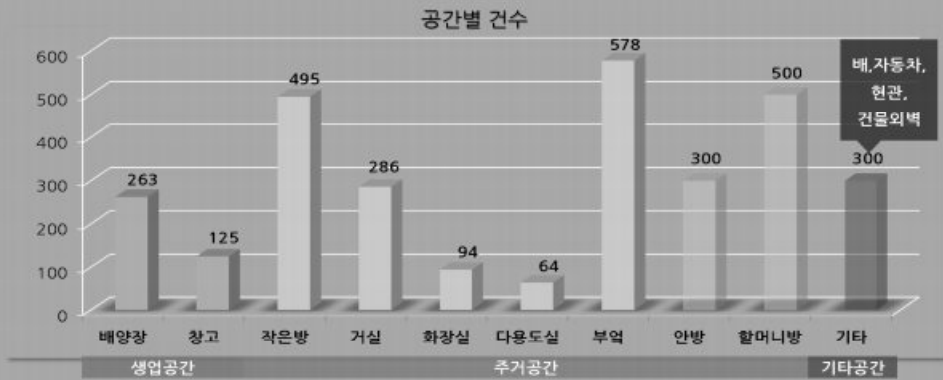


양식용 밭갈

공간별 사진 및 현황 : 주거공간



공간별 사진 및 현황



현재 조사 건수 : 1,905건

예상 총 건수 : 3,000건

약 63% 진행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살림살이 조사 모습



기록 수집한 자료를 통한 마을박물관 개관



삼척 갈남마을박물관

마을박물관의 의미

1. 삶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맥락이 살아 있는 전시 구현
2. 유휴 건물 이용을 통한 공간 재생
3. 마을 내 전시를 통한 주민밀착형 문화공간 마련
4.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실험적 방식 모색

마을주민에게는 자부심
관람객에게는 추억



삼척 마을박물관

목적

1. 갈남마을 문화의 자생력 강화에 이바지
2. 전시를 통한 강원지역 조사마을의 관광자원화
3.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4. 문화소의 지역 전시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의 장 마련
5. 국립민속박물관 조사연구 성과의 전시

전시 방향

1. 갈남마을 역사문화의 이해와 현재적 활용을 위한 전시
2. 해양문화 및 과거와 현재의 생업활동을 생생히 보여주는 전시
3. 주민의 삶의 공간과 살림살이 및 기록자료, 생활사 자료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

삼척 마을박물관 옥상에서 본 마을



전시물 검토

최병록 님의 특징

1. 일제 강점기부터 4대 이상을 어업에 종사하던 전통어업인 집안으로 가정사가 곧 마을의 어업 역사를 대변
2. 미역, 다시마, 우렁쟁이, 가리비, 전복 양식업, 정치망, 머구리 잠수배 운항, 염장미역 가공공장 운영 등
3. 7,80년대의 어업관련 다양한 사진 소장
4. 고문서 다수 소장
5. 전시공간인 우렁쟁이, 가리비 배양장을 그대로 유지



삼척 마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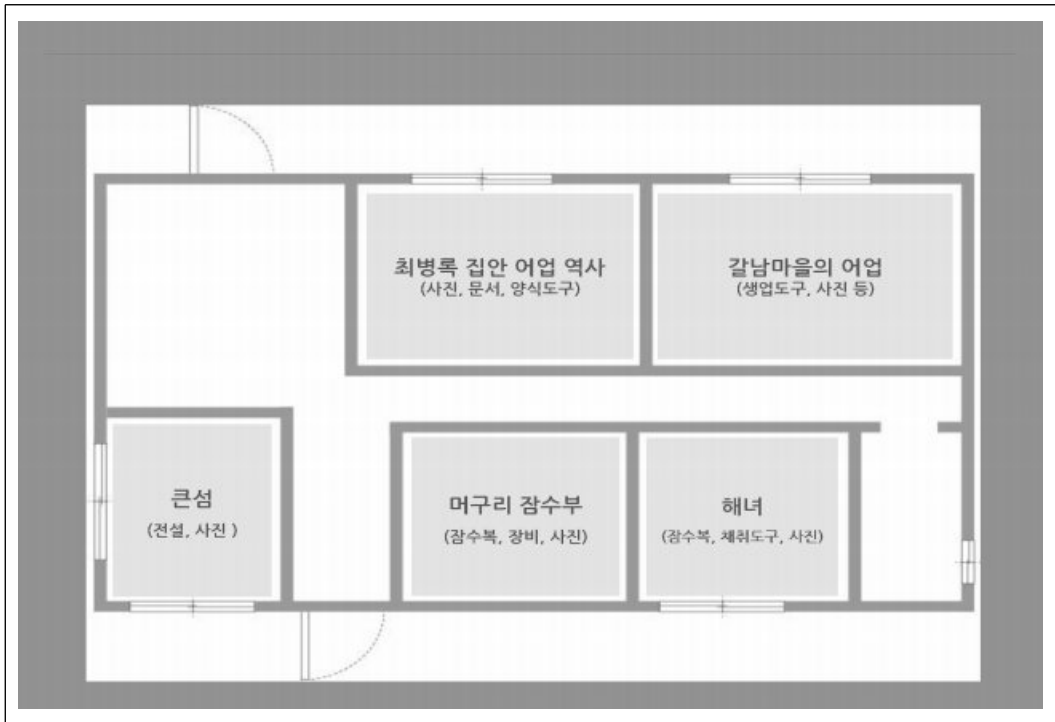
전시 공간인 배양장의 특징

1. 우렁헬이, 가리비 종묘 등을 키우던 배양장으로 양식업 가구의 특징을 보여주는 희소한 공간
2. 7,80년대 배양장 건물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당시 사용하던 도구도 일부 보관하고 있음
3. 마을의 중심인 물양장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전시 컨셉과 조화를 이룸
4. 민속연구과 사진전시 공간으로 예정된 마을회관과 인접해 있어 전시의 시너지효과 예상
5. 살림살이조사 가구로서 조사연구성과의 전시화에 적합



전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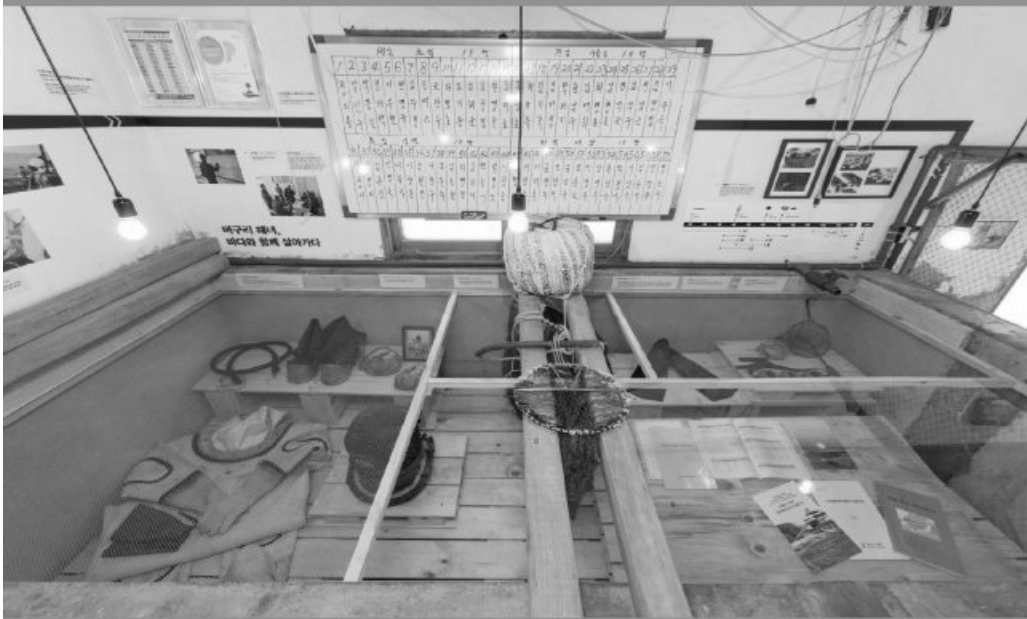




양식 수조를 이용한 전시



마을 생업(머구리, 해녀, 미역바위 추천 보드판)



마을박물관을 관람하는 주민들



그 사람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물건



마을박물관을 관람하는 주민들



조사결과물을
전시에 연계





앨범을 활용한 자서전 만들기

정종영(동화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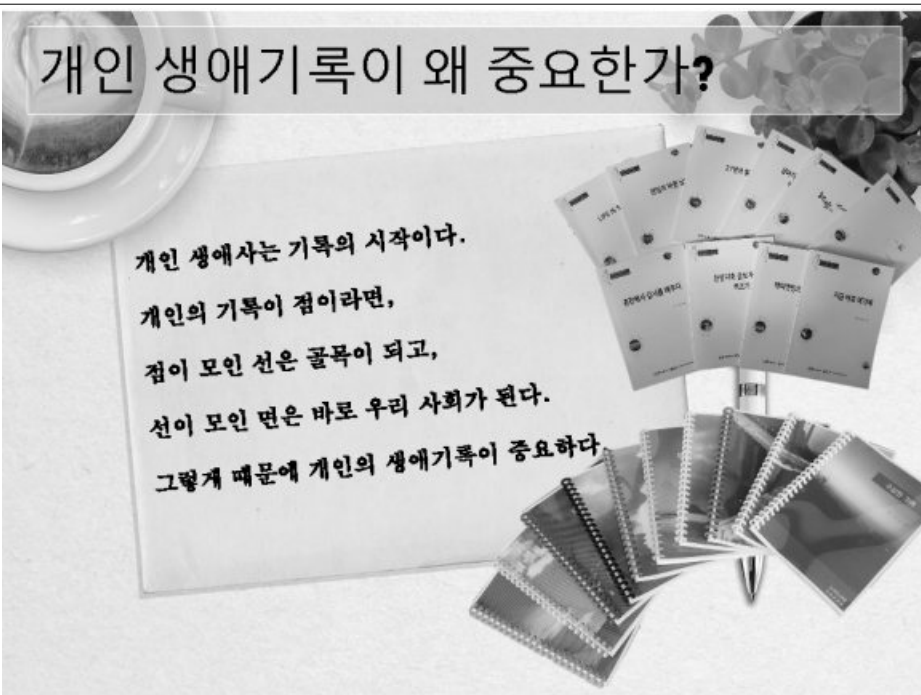
앨범을 활용한 자서전 만들기

정종영



정종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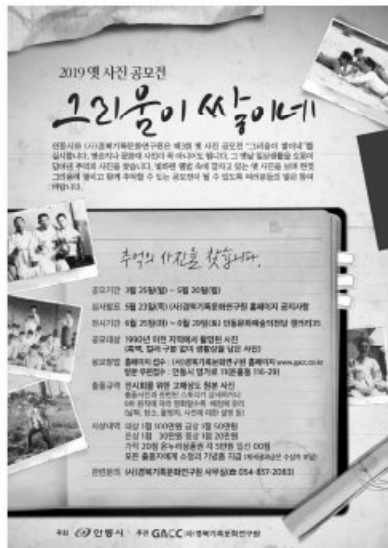
개인 생애기록이 왜 필요한가?

스토리 자원 확보

근현대사 기록의 시작



생애기록의 활용(1)



생애기록의 활용(2)



Q. 우리 지역에 있는 근현대사의 스토리 자원 중
나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기록이란?

- 기록물의 정의: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

- 기록물의 종류: 공적 기록, 사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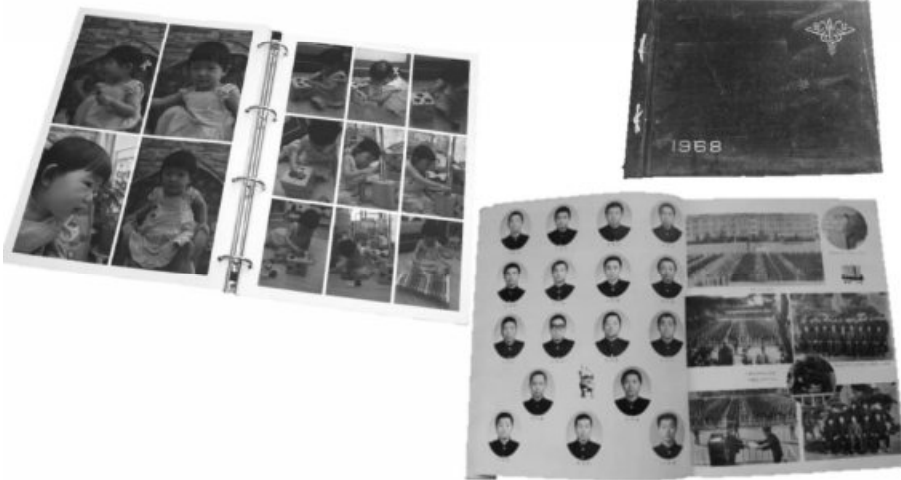
- 기록물의 형태:



형태	〈전자문서, 도면, 대장 카드, 시청각물, 행정박물,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
저장매체	전자기록(정보처리 장치에 의해 생산, 접수) 비전자기록(종이, 사진, 카드, 대장 등)
보존기간	한시기록(10년 이하) 장기보존기록(30년 이상)
공개여부	공개 기록(국민 누구나 공개·열람) 가능 비공개기록(공개 제한)
기록물 생산주체	민간기록물 공공기록물

Q. 기록이란?

- 기록물의 정의: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



기록이 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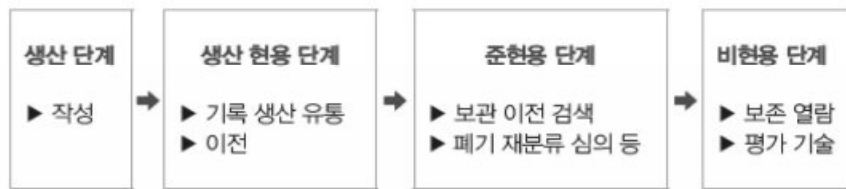
- 정의 :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



- 기록 생성 날짜
-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 핵심 키워드

Records 와 Archives

용 어	설 명
현용 기록물(records)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보관·이용하는 기록물
비현용 기록물(archives)	현재는 활용되지 않으나 영구 보관·보존 대상이 되는 기록물



<기록물의 관리 단계>

기록물 관리의 일반 원칙

첫째,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록물 관리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진 본 성 : 생산 주체 및 명시 시점에 생산되었는지 증명 가능
- 신뢰성 :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이를 증명
- 무결성 :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
- 이용가능성 : 물리적·논리적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재현·해석이 가능

둘째,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셋째,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원본’이라는 용어대신 ‘진본’이라고 사용하는 이유?

■ 전자기록물에서 ‘원본’이라는 용어 대신 ‘진본’이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전통적 의미에서 원본 기록은 특정의 물리적 매체에 담겨진 기록을 의미하여, 원본과 다른 물리적 매체에 새겨진 동일한 기록은 복제본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자기록물은 자기디스크 등의 매체에 수록되지만, 기록으로서 본질은 전적으로 매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매체 자체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개념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종이기록물은 서명 날인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며, 전자기록물은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통해 진본성,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의 가치

모든 기록은 본래의 가치, 행정적 가치, 증빙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 하나 이상의 가치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 명확한 근거 : 개인이나 조직의 법적 권리, 가족 관계, 재산적 증빙, 상업적 이익에 대한 권리, 세무 관계 등
- 중요한 정보 : 업무 처리의 수단, 업무 파악의 정보
- 증거 자료 : 개인·기관의 조직, 기능, 정책, 운영 절차 등의 활동
- 역사적 가치 : 학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

기록물의 분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지는 각종이력정보(생산, 분류, 관리정보 등)를 말한다.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기록은 3계층으로 구분하여 상위, 하위, 세부로 구분하여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



< 주체별 기록물의 활용 목적 >

기록물의 분류



기록물 보관소

- 기록보관소 : 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며 남기는 많은 기록물 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 Archivist : 기록물 보관 담당자:



< 5 · 18민주화운동 기록관 5층 수장고 >

Q. 당신의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기록물의 정의: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

- Records 와 Archives

- 기록물 관리의 일반 원칙

첫째,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

진 본 성 / 신뢰성 / 무결성 / 이용가능성

둘째,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셋째,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기록물의 분류·메타데이터

- 기록물 보관소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① 기록물은 역사와 권리, 명예를 되찾아준다.

- 일제 강점기 기록
- 4.19 부정선거 사건 기록
- 독도에 관한 기록



② 기록물은 각종 분야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 외규장각 의궤

③ 민간 기록물도 중요한 국가 기록물로 수집·보관된다.

- 최민식 작가 사진 : 민간 기증 국가 기록물 1호
- 6.3 항쟁 관련 민간 기록: 국가기록원 영구 보존

④ 기록물 관리 분야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다.

독도의 진실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5.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6. 1905년 시네마 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권사의 재확인이었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8.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10.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 한국이 거부했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 ① 『훈민정음(해례본)』
- ② 『조선왕조실록』
- ③ 『불조직지심체요결』
- ④ 『승정원일기』
- 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 ⑥ 조선왕조 『의궤』
- ⑦ 『동의보감』
- ⑧ 『임성록』
- ⑨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 ⑩ 『난중일기』
- ⑪ 새마을운동 기록물
- ⑫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 ⑬ 한국의 유교책판
- ⑭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 ⑮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⑯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1	독 일	23
2	영 국	22
3	폴란드	17
4	대한민국 네덜란드	16
5	오스트리아	15
6	러시아	14
7	중국, 프랑스, 멕시코	13
8	스페인	11
9	포르투갈, 브라질, 이란	10
10	미국, 인도	9



아카이브 구축 사례

①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정부 관서에서 생산된 기록을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는 기관이다. 대전, 부산, 성남 3곳에 기록관이 있다.

② 한국영상자료원(<https://www.koreafilm.or.kr>)

자료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디지털 필름 아카이브를 설립, 영화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 및 보존한다.

③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dna.naver.com>)

과거의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원본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시켜 놓았다. 1920년 신문부터 1999년 신문까지 열람이 가능할 정도이다.

④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http://www.518archives.go.kr>)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설치되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기록물로 등재되었다.

⑤ 경북기록문화연구원(<http://gacc.co.kr>)

사라져 가는 지역사회의 가치 있는 근현대 민간기록물을 재가공하여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산업적 활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재현을 위한 아카이빙

앨범으로 자서전 만들기



정종영

2





재현을 위한 아카이빙

재현하다 = 다시 있게 하다





기획 및 예비조사



< 예비 질문지의 구조 >

- 구체적이고 다양한 항목보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틀을 구성하는 데 초점
- 면담 시, 예비 질문지에 근거하여 순발력있게 새로운 질문을 추가.
- 좋은 질문

취재 및 면담(구술 채록)



기록의 방법(1)



■ 해상도

사진의 정밀도를 표현하는 말로 '해상도'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일반적 단위로 1인치당 몇 개의 점(dot)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dpi(dot per inch)를 주로 사용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해상도의 정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목적에 맞는 적절한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이미지가 72dpi라면 가로 1인치에 72개점과 세로 1인치에 72개의 점, 총 5,184개의 점(dot 또는 pixel)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적 출판을 위한 컬러 이미지 300dpi, 컬러 슬라이드 300dpi, 오버헤드 프로젝트용 컬러 이미지 180dpi, 컴퓨터용 모니터용 컬러 이미지 72dpi 또는 96dpi, 출판용 흑백 이미지 180dpi, 일반 레이저 프린팅을 위한 흑백 이미지 120dpi 등으로 사용한다.

기록의 방법(2)

■ 그래픽 파일 포맷

이미지는 JPG, GIF, PNG, BMP 같은 그래픽 파일 포맷을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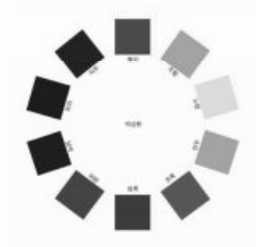
BMP는 그래픽 파일 포맷 중 가장 화질이 좋지만, 용량이 크다.

JPG는 용량이 너무 큰 BMP와 같은 그래픽 포맷을 압축하여 용량을 줄인 것으로, 압축한 만큼 화질이 떨어진다.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 포맷이다.

GIF는 가장 기본적인 웹 그래픽 파일 포맷으로 256컬러까지만 지원된다.

PNG는 JPG와 GIF의 단점을 개선해서 트루컬러(truecolor)를 지원하면서도 압축을 해도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다. PNG(Portable Network Graphics)는 비손실 그래픽 파일 포맷의 하나이다. 특히 문제가 었던 GIF 포맷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기록용 사진은 해상도가 높아야 하지만, 저장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을 스캔할 때, 일반적으로 원본 대비 100% 사이즈, 해상도는 300dpi 이상을 권장한다. 그래픽 파일 포맷은 BMP형식이 가장 우수하나,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활용성, 대중성을 고려한다면 JPG, PNG 형식을 권장 한다.



기록의 방법(3)

■ 디지털 자료의 보존기한은?

많은 사람이 디지털 자료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어떠한 디지털 매체도 영구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HDD(Hard Disk Drive), 즉 자성체로 코팅된 원판형 알루미늄 기판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보조기억장치를 많이 사용한다. 다른 방식에 비하여 아직까지 가성비(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체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문제로 연간 약 0.3%의 자료가 자연적으로 지워진다.

CD, DVD는 어떨까? 이 저장매체는 공장에서 마스터 테코딩 후, 자외선 차단코팅을 해야만 5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 역시 빛이 안 새는 케이스에 보관했을 때의 경우이다. 개인이 직접 CD, DVD-R에 저장할 경우, 코팅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 수명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기적으로 복사본을 만들고 백업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행련이다 보니, 국가 기록보관소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마이크로필름으로 기록을 보관한다. 마이크로필름은 100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방법(4)

■ 초상권 침해

사진 속에 인물이 들어있다면, 저작권을 고려해봐야 한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식별가능성
2. 영리적 활용



먼저, 식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무각위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서 아무런 필터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채로 얼굴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 혹은 모자이크를 하거나 일부 의도적으로 가린다고 해도 외적인 유형이 특출하게 노출된다면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 즉, 편집을 했지만 특정 부분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이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들어간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이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물론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록의 방법(5)

■ 저작권

한국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제2조 제2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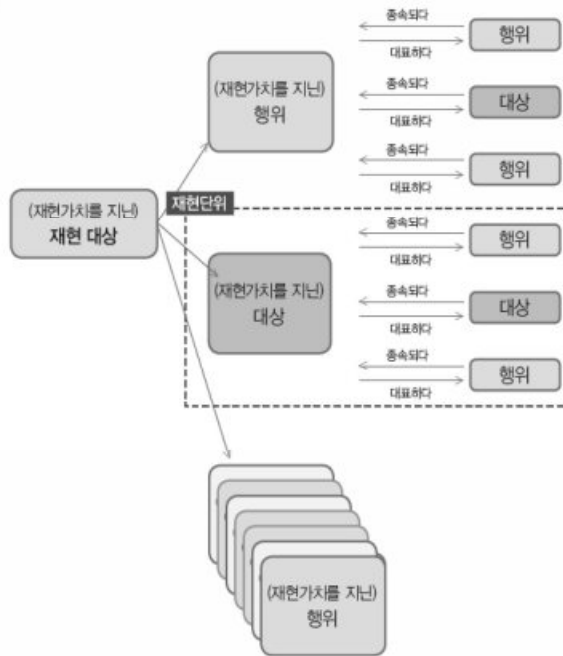
기록의 방법(6)

■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저작물을 공유함
	저작자 표시 ⇒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2차 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함
	동일조건 변경 허락: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하에서의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



재현 대상



기록이 되기 위해서

- 정의 :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



- 기록 생성 날짜
-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 핵심 키워드

생애사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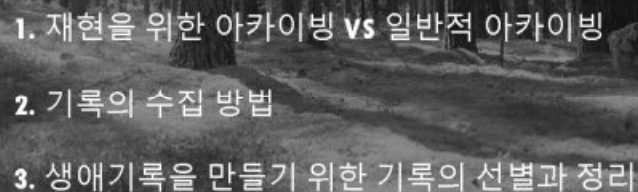
- ① 자아 정체성을 발견
- ② 참여의 기회
- ③ 살아있는 교훈, 추억



개인의 생애사



재현을 위한 아카이빙

- 
1. 재현을 위한 아카이빙 vs 일반적 아카이빙
 2. 기록의 수집 방법
 3. 생애기록을 만들기 위한 기록의 선별과 정리

Q. 질답



개인 생애사는 기록의 시작이다.
개인의 기록이 점이려면,
점이 모인 선은 굴목이 되고,
선이 모인 면은 바로 우리 사회가 된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의 생애기록이 중요하다.



정종영 didicat@naver.com
010.5572.4700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강정효(사진작가)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강정효(사진가)

오늘날 사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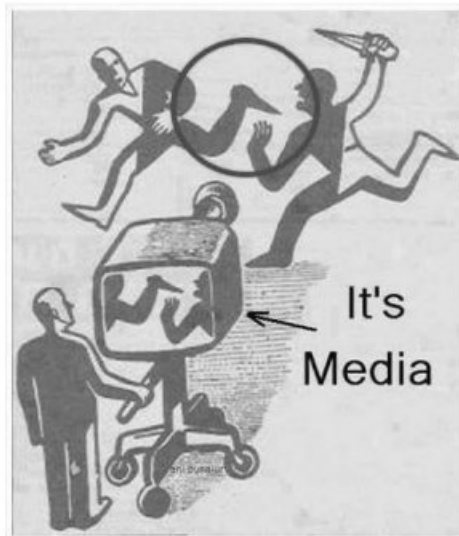
- 虎死留皮人死留名(호사유피인사유명)
- 虎死留皮人死留寫眞...

세상을 바꾼 한 장의 사진



- 4.19혁명과 김주열군, 그리고 고대생 피습사건

세상,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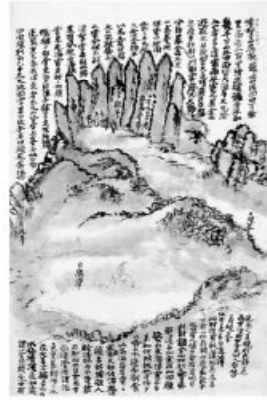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 탐라순력도와 내왓당 무신도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 제주십경도, 학산(윤제홍) 99첩

초창기 제주 사진



- 역사를 기록하다

초창기 제주 사진



- 역사를 기록하다

초창기 제주 사진



- 입춘굿

초창기 제주 사진



- 이즈미 세이이치, 이은상의 거육대

4.3과 사진



- 한라산 사람들-5.10단선 반대, 마을의 재건

4.3과 사진



- 사진의 정치학

4.3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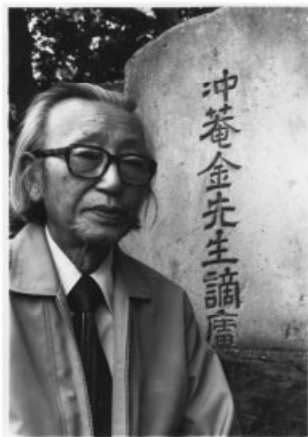
제2차 적설기 한라산 호연대에 참가한 홍준인 회장이
제주도 4.3사태 평정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다.

- 개방비와 평정비

제주 사진의 태동

- 고영일과 부종휴
- 만농 홍정표
- 제주카메라클럽의 탄생
- 현용준
- 제주민속사진전

제주 사진과 민속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다 한국 전쟁이 나자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때 피난미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 때문에 제주도의 고유풍속과 양속이 없어져 가는 것을 느껴 1951년부터 순수한 기록적 의미에서 카메라로 제주도 전통의 풍속을 닦치는 데로 찍기 시작했다”

•만농 홍정표(晩農 洪貞杓 1907-1992)

제주 사진과 민속

•제주민속전에 부쳐서

금추(今秋)의 촬영대상과 연구주제는 ‘민속’이었다. 어떠한 호사적(好事的) 촬영이 아니며 호고적(好古的) 일시의 행사적 편향(偏向)도 아니며 기능적 정교나 예술에의 가치관을 담론하고자 함도 아니니 목표한 바 사라져가는 지방민속을 더듬고 찾아 촬영 기록 보존의 역할을 자부함에서였음을 크게 느끼고 깨달는 바에 서였다...

일편(一片)의 사진 속을 통하여 옛 문화민속에 저촉(抵觸)시킴에 있어 옛 선인들의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면서 삶에 의욕적인 숨을 내뿜는 그 곳곳한 의지 고달픈 옛 노래가 흘러서 고인 정서적(情緒的)인 장, 순수한 풍토적 소지(素地)의 특수성, 자연속의 평정(平靜)한 전원의 움직임 온화한 생활의 풍부한 시화적(詩畵的)인 장, 탁라의 서정적인 예스러움의 느낌을 치솟아 실감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 아닌가...(1984)

제주 사진과 민속



- 만농 사진들

제주 사진과 민속



- 만농 사진들

제주 사진과 민속



- 관광기념품

제주 사진과 민속



- 국가기록원 사진들

제주 원풍경 변천사



- 남제주군 60년사 사진집

제주 원풍경 변천사



- 남제주군 60년사 사진집

제주 원풍경 변천사



- 남제주군 60년사 사진집

제주 원풍경 변천사



- 제주산악회, 사진으로 보는 한라산 등반사

제주 원풍경 변천사



- 제주산악회, 사진으로 보는 한라산 등반사

제주 원풍경 변천사



- 제주산악회, 사진으로 보는 한라산 등반사

제주 원풍경 변천사



- 제주산악회, 사진으로 보는 한라산 등반사

제주 원풍경 변천사



- 제주산악회, 사진으로 보는 한라산 등반사

기록이 된 사진들



- 사슴 방사

기록이 된 사진들



- 결혼식 풍경

기록이 된 사진들



- 대정향교의 어제와 오늘

기록이 된 사진들



- 마을 포제

기록이 된 사진들



- 정지-연출된 사진

기록이 된 사진들



- 시대를 반영한 모습들

기록이 된 사진들



- 좀수굿

시대의 변화를 담다



- 한라산 장구목

시대의 변화를 담다



- 신과세제 단골

시대의 변화를 담다



- 테우리코시

시대의 변화를 담다



- 해녀 물질

시대의 변화를 담다



- 칠성놀이와 칠성돌

시대의 변화를 담다



- 동복리 장복밭

시대의 변화를 담다



- 배방선

시대의 변화를 담다



- 우도 홍조단괴해빈

시대의 변화를 담다



- 다끄네포구 도대불

시대의 변화를 담다



- 애월 도대불

사라진 원풍경



- 훈장묘 도난당한 동자석, 그리고 재현

사라진 원풍경



-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우리 이웃, 주변부터...

사진의 힘



- 행원큰당 사례...

당신의 사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카파

구술 채록을 활용한 보통 사람의 삶 기록하기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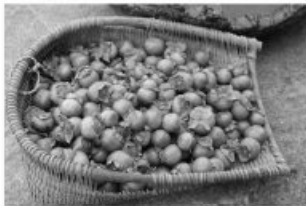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제1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2021. 12. 7)

〈8강〉 구술 채록을 활용한 보통 사람의 삶 기록하기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강의 순서



1. 시작하며
2. 구술 채록이란?
3. 무엇을 채록할 것인가?
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 마무리

1. 시작하며

- 왜 구술 채록인가?(삶, 경험, 지식, 철학 등)



산양리
목축 문화 조사
(2020)

2. 구술 채록이란?

- 구술(口述): 입으로 말함.
 - 구술하다.(제보자, 구술자)
- 채록(採錄): 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함. 또는 그런 기록이나 녹음.
 - 채록하다.(조사자, 면담자)
- 구술 채록: 제보자가 들려주는 입말을 조사자가 기록하거나 녹화하는 일.
 - 생애, 신화나 민담, 마을 이야기 등

- **생애 구술**

-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입말로 들려준 이야기.
- 생애 구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한 시대의 역사의 축소판.
- 제주어 생애 구술: 제주 지역의 문화, 역사, 삶 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의 보고인 제주어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전승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대표적인 구술 채록 사업**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생애 구술,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표준어 대역 사업
- 제주어와 전통문화 조사 사업(초가, 목축 문화) 등
- 제주4·3연구소(천인 증언, 생애조사 등)



3. 무엇을 채록할 것인가?

- 준비물: 제보자 선정, 도구 준비(녹음기, 캠코더, 필기도구), 질문지, 사진 또는 그림 자료
-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 사전 조사
- 채록: 현장 조사, 확인 조사
- 전사
-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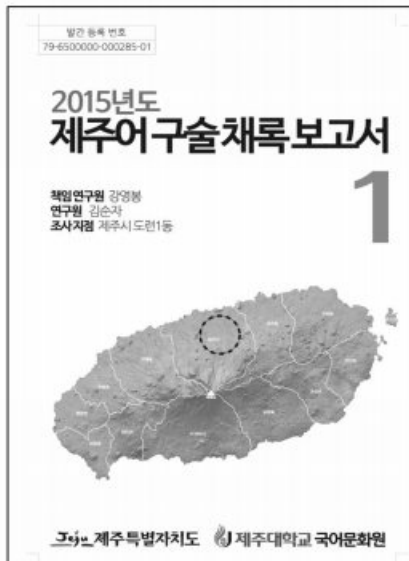


수망리 목축문화 조사(2020)

3.1. 제주어 구술채록 작업

- 1차 조사 사업: 2014.~2016.(3개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조사 대상(마을): 제주시 도련동 외 36개 마을
[읍면동, 해안+중산간 마을]
- 제보자: 조사 마을 주민 80대 이상
- 조사자: 제주방언 전공자 등
- 조사 내용
 -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발일, 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 의례, 민간요법, 경험담·속담·금기어

- 전사/제주어 표기법
- 보고서: 제주어구술채록자료집(36개)
- 2차 사업: 표준어 대역 및 주석 작업
-2017.~2020.(4개년), 제주학연구센터
- 추가 조사
- 제주어구술자료집(1~36권 발간)
- 제주어구술 주석자료집(2020)





가담: 가담은 원래 '다리, 가랑이'의 뜻이나 여기서는 아이들이 서로 잠으려고 뒹고, 이리저리 피혁 달아나며 뛰노는 장난인 '가대질'을 말한다. // 모뎀 톱 때 질러뎀일 버덕 뎀뎀일학 가담 뎀뎀일. 그 모뎀을 본막 뎀어근에 때려 놓민 모뎀 그대 옛날도 모뎀 하영 뎀수다.(뎀뎀 할 때 지르뎀서들 '버덕' 뎀뎀일학 가대질 하뎀서들 그 뎀뎀을 모두 때서 때려 놓으면 뎀뎀 그대 옛날도 뎀뎀 많이 뎀었습니다.) [등평]

가도: 일본어 '쇼토'로 모뎀이를 말한다. // 뎀 돌아가는 가도에 거기 잇엇고.(이렇게 돌아 가는 모뎀이에 거기 잇엇고.) [한림]

가동가세: 동쪽도 가하고 서쪽도 가하다는 '가이동가이서(可以東可以西)'의 준말이다. '이렇게 할 만하고, 저렇게 할 만하다'는 뜻이다. // 음도 뎀 뎀 아지 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삌트.(뎀도 두어 뎀 가제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그삌트도.) [선림]

가라: '가라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가라말'은 뎀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 일 가라엔 뎀 거는 가라뎀어 쎄 쎄다는 제주(일 '가라'라고 한 거는 가라말이 쎄 쎄다는 거지.) [삼림]

가라뎀: 표준어 '가라말'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가라말'은 뎀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 가라뎀은이 쎄 쎄무름, 쎄 쎄 쎄도 안하고 뎀도 안 쎄.(가라말은 쎄 쎄무름, 쎄 쎄 쎄지도 안고 뎀지도 안 한 거.) [선림]

가라스: 영어 'glass'의 일본어식 발음 'ガラス'로 유리를 말한다. // 그건 가라스 쎄그만히 쎄 쎄근애가 옛날애 쎄문애 뎀 부쳐진 부쳐났지, 그제.(그건 유리 쎄그마하게 뎀 쎄 옛날애 쎄문에 어떻게 붙어진 붙엿었, 그제.) [한림]

3.2. 구술 채록 시 유의 사항

- 제보자 선정
- 주제 선정
- 신뢰성
- 정확성
- 성실성(철저한 준비, 성실한 조사)
- 자료 활용 동의서
- 개인 정보 노출 문제(초상권, 저작권 등)

3.3. 구술 채록 질문지 예시

1.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등복,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3. 고둥과 개는 어떻게 잡습니까?
 4. 고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1. 바닷에서 흐는 일들은 어떤 것들 잇어마썸?
 2. 등복허곡 감태는 어떻 즈웁니까?
 3. 보말과 깁이는 어떻 잡아마썸?
 4. 보말 종류도 하지예? 어떤 것들 잇어마썸?

3.4. 구술 채록 조사 내용 예시

1. 조사 마을

101001 @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예?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던 한 말 알아지는 데로 굴아줍서.(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여?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한 말 알아지는 데로 말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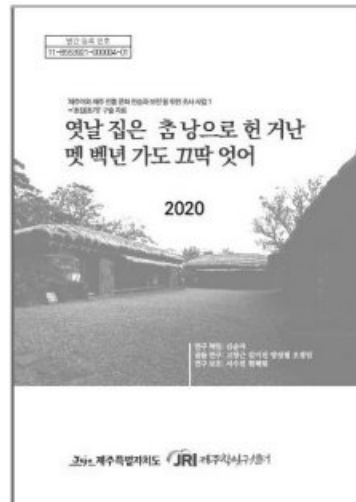
101001 #1 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01001 @ 예, 제주도말로예, 삼촌?(예, 제주도말로요, 삼촌?)

101001 #1 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됐었는데 이제 그루후에 이제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흐 팔십여 성씨. 경 돼서마썸.(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한 팔십여 성씨. 그렇게 되었어요.)

3.5. 제주어와 전통문화 조사

- 제주의 초가(2019)
- 제주의 목축문화(2020)
- 제주의 옷(2021)





낙인을 들고 있는 말테우리
고경수 옹과 말테





감물 들이기 조사(2021)

3.6.해녀 문화 조사 사업(2020~)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2020)



위미2리 조사
(2020)



위미2리 개딱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2021)



귀덕2리 조사

3.7.제주어로 쓰는 세시풍속 조사(2021)

-제주시 동부 지역

: 삼양1·2, 대흘, 신흥, 김녕, 송당, 종달리 등



대흘1리 복지회관
(2021)



대흘1리 비자남밭할망당

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1차 연구 자료 제공
 - 방언, 민속, 문화, 역사 등 종합적 자료
- 제주어대사전 자료
 - 새 어휘, 용례 등
- 다양한 교육 자료
 - 제주어와 제주문화, 제주어 구술 강독회 등
- 다양한 분야 콘텐츠 제공
 - 번역기 개발, 예술 작품(그림책, 연극, 영화, 문학 작품, 자서전 등)



제주어를 부탁해! 특별 강연(2020)



5. 마무리

- 보통 사람들의 구술 자료
 - 기억의 기록화, 지식의 전달체계
- 역사 자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
- -제주4·3증언자료: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의 밑거름
- 소멸 위기의 제주어, 제주민속 등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
-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삼촌 생애 조사

- 도구와 사진 등의 기록화
 - 제주의 마을제, 제주의 관혼상제 조사
- 마을의 기록화(문서, 건물, 자연물, 지명 등)
- 나의 오늘 기록하기

→ 구술 채록을 하면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 존중과 존경, 배려심, 하심(下心) 등
- 새로운 세상 경험(골빌레, 널빌레)

→ 구술 채록은 사람과 역사와 자연과 문화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고맙수다예



금등리 당팻동네 심팡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박정근(사진작가)



1 - 56

1937.10.16
1950

회관과 영애 이야기

박정호 (박정호)



10 - 24

1961
1960



26 - 27

1961
1973



20 - 48

1974
1983



포트폴리오



- 작품명 : 이병남, 김미자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19

포트폴리오



○ 가시리 창전동사 오대경 할아버지 이야기

1931년에 가시리에서 태어난 90세 오대경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제주 4·3과 한국전쟁은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주에는 오대경 할아버지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한 많은 분들이 계신다.

오대경 할아버지는 19살이 되던 50년 8월, 해방대에 지원하고 했다. 당시 제주에는 해방대 지원관이 제주도 지구 개항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었기에, 도내에서 해방대 34기를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해방대 지원은 못 기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2개월간 산체감사 통치서를 받게 되었다. 그 즈음 가시리에는 일본 남자가 대부분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15명은 모두 압송통치서를 받았다. 그들은 함께 경신사국대학교로 산체감사를 받으러 갔고, 바로 함경도통치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육군 제 5훈련소가 있는 김녕국민학교로 4시간을 걸어갔다. 작업복과 군화를 받고, 머리를 밀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집에는 소식도 알리지 못한 채 군인이 되었다.

9월 1일 입대식을 하고, 한 달간 훈련받은 뒤 10월 1일 할아버지는 포항으로, 광주로 훈련하면서 이동했다. 배대 사단이라고 불리는 9사단이 창설되었고, 제주 출신들이 그 주축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9사단 30연대 소총수로 배치되었고, 분화군 준양연-태백산악 폭에서 첫 전투를 치렀다. 처음으로 총을 쏘려고 하니 몸이 떨려서 총대가 탁탁탁 계속 말했다. 무서워 떨릴 땀이 흘려서 총을 쏘았던 기억이, 할아버지의 전투 첫 경험이었다.

그 이후 전투는 여러 번 계속 있었고, 여섯 달의 훈련이 일본군 기습을 수차례 방어하는 것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무산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무서워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니깐, 눈앞이 어둡어지면 두 손만 짚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못 죽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군인생활의 고독은 눈앞의 죽음만이 아니었다. 전투가 아닌 일상도 일상대로 힘들었다. 먹을 건 제대로 못 먹고, 입을 옷 제대로 못 입는 것, 어디서 보지 말든지 모르는 일하기 않고 부처지는 외국말을 알아야 하고, 미군이 있다 버리는 한 짐을 입어야 함으로,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다. 부대가 이동할 땐 강원도 산간지역의 주민은 머머 어머니에서 할아버지를 비롯한 제주 출신 군인들이 더욱 힘들었다. 추위에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나가기도 했다. 민간인들이 만들어 보내주는 보리밥 한 덩어리 또한 품을 열어서 도둑맞기에 억지로 녹여먹어야 할 때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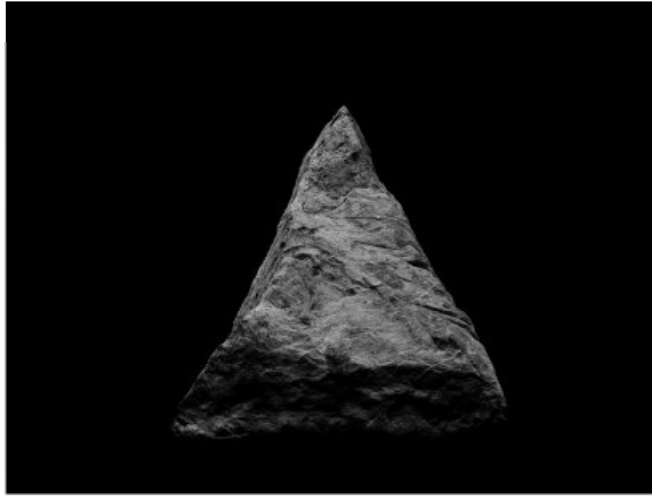
전선에 따라 이동과 전투는 계속 되었다. 황해남도 삼천포 신기면에서 할아버지는 연순에 수목탄을 맞았다. 1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지만,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 복귀 후에도 전투는 이어졌고, 51년 3월, 모로록 땅에 적군의 총성이 났었다. 다들히 군장 착용병이 달려와 치료해주었고,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결국 7월 병역제나 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현재 참전인 아들 사령은 15명 중에는 할아버지 밖에 없다. 다섯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돌아온 할아버지는 마을을 개척하고,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아내와 연애했던 23살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 셋과 딸 셋, 손자 넷을 두었다. 가난이 당시였지만 시골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만큼은 배설기 먹여야 하는 생각으로 콩, 보리, 고구마, 우유 등 농사를 많이 짓고 먹고 살았다. 그렇게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라 어른을 하고, 이제는 손자들도 상인이 되었다. 아내는 20년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할아버지는 지금도 고향 가시리에서 살고 계신다. 87세에 미국에 가 43 혼연도 하고, 90세에는 나이에 또 불우하고 자라난 43 해 열사로 활동하시며,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과 마을의 43 경향을 전하는 중이다.

자식들 모두 편안하게 살길 많이 바라고, 손자가 심어 땅 뒤에, 그 자손들이 모두 모이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오대경 할아버지. 앞으로도 사진첩과 앨범 속 손자 사진을 보며 우리 연인 자랑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할아버지의 웃음 속에 담긴 굴곡진 삶을 읽는다.

- 작품명 : 가시리용사 오대경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19

포트폴리오



- 작품명 : 에미산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21

포트폴리오



- 작품명 : 엿가락과 담배연기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21

포트폴리오



- 작품명 : 옛가락과 담배연기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21

포트폴리오



- 작품명 : 옛가락과 담배연기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21

포트폴리오



- 작품명 : 동부전선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21





포트폴리오



- 작품명 : 북촌리 용사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18

포트폴리오



- 작품명 : 김병문, 안정생, 한신화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18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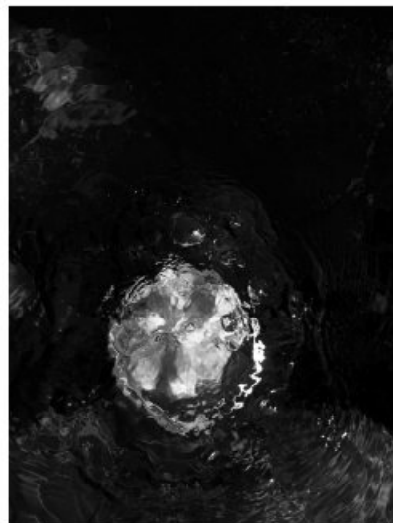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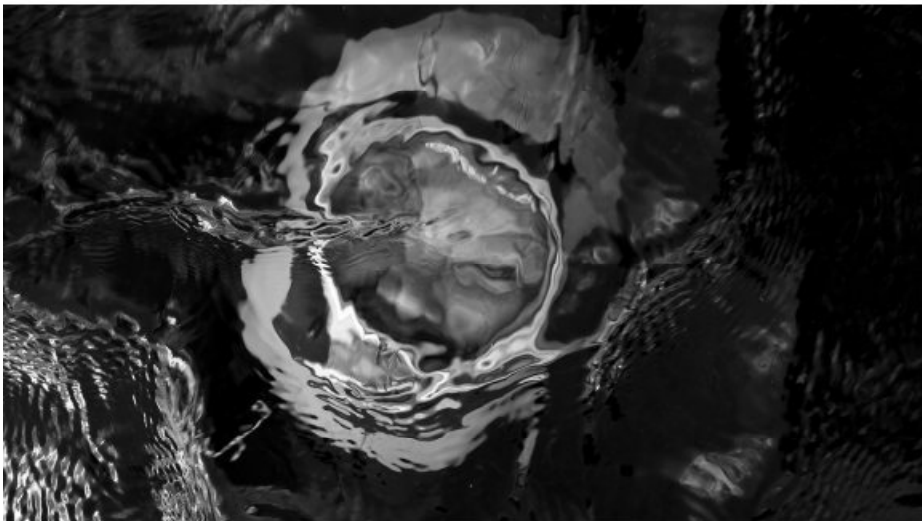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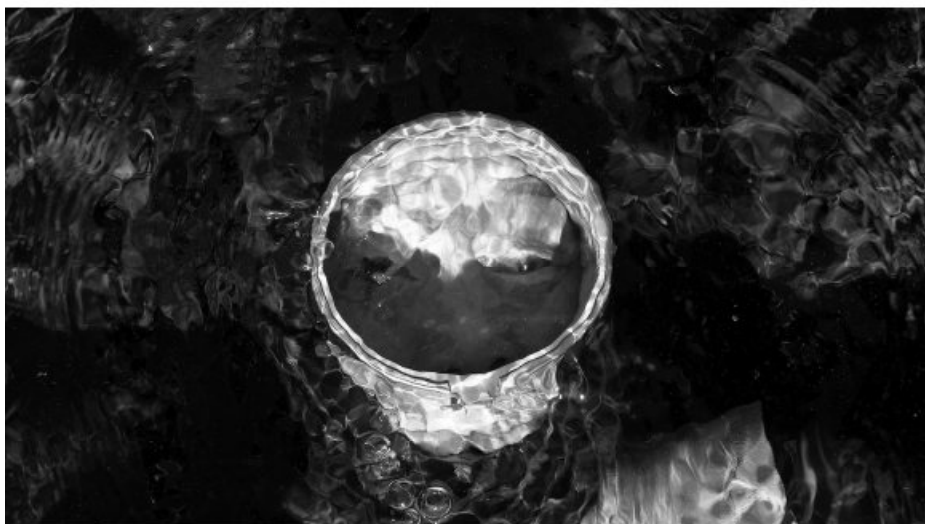
- 작품명 : 안창석, 김은두, 송옥순
- 장르 : 사진
- 재료 : Pigment print
- 크기 : 100cm X 140cm
- 제작연도 : 2018

물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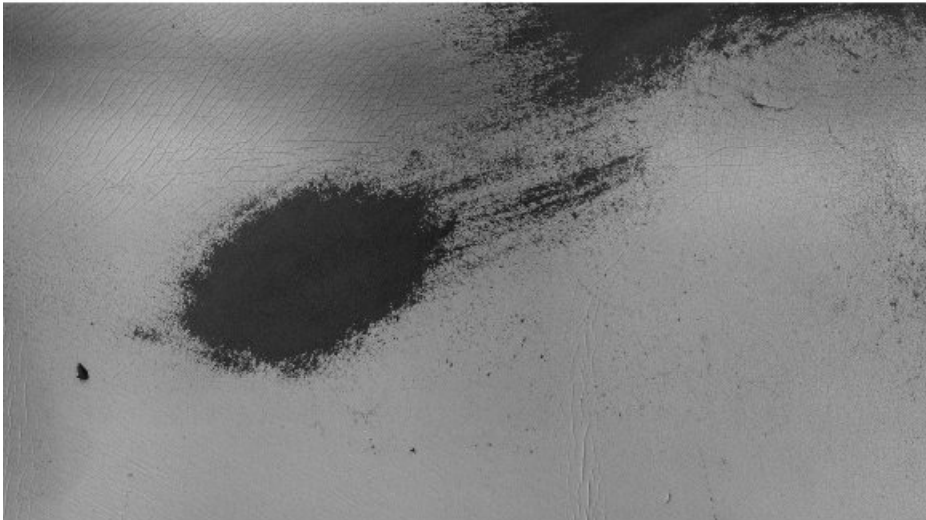
화석이 되어버린 해녀불러내기







물옷 화석이 되어버린 해녀불러내기





물질

화석이 되어버린 해녀불러내기













불안계급은 경제학자 기 스탠딩이 제안한 개념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불안 정성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계급을 지칭

入島祖

불안계급 (Precariat)

경제학자 기 스탠딩이 제안한 불안계급은 사회적 현상

그렇지만 이 작업은 다양한 층위 및 형태의 불안계급 중 제주에서의 특수한 불안계급 을 다룸

이렇게 뭉뚱그려놓긴 하지만 불안계급이 어떻게 불확실성시대를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지리적 특수성 - 이주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제주라는 섬의 입도조가 됨. 다른 지역의 이주민과는 다른 의미성

사회적 특수성 - 불안계급의 상황에 대응양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 력을 가진 집단

入島祖 를 불안계급으로 이해하는 코드 두 가지

문화

자연

급증하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 그러나 불안계급이 이러한 불확실성의 정치경제를 구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정규직 전환, 세계화 감소, 일자리 창출 등.

이에 최근에는 문화와 자연에 대한 불안계급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입도초의 경우 대표적 사례

이들이 자연과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담음

그 과정 속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들이 불안계급에 속한 이방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사진 속 이들은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떠있는 것 같고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지만 다른 곳을 동시에 보고 있는 듯 하다.









궁금한것들?

카메라 노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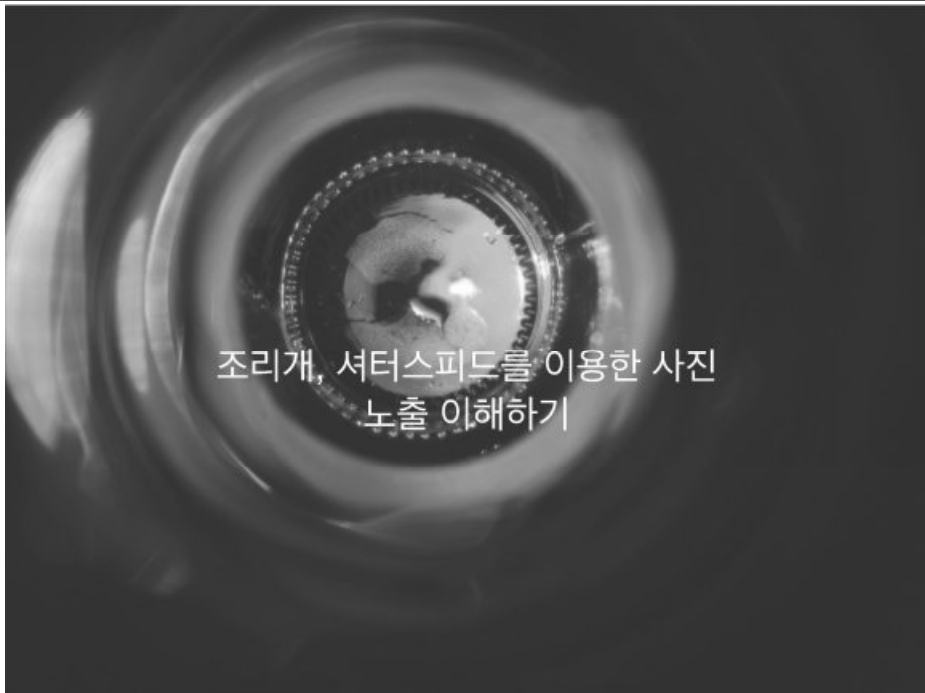
조리개 와 셔터스피드 활용한 기록 방법

흔들린 사진 구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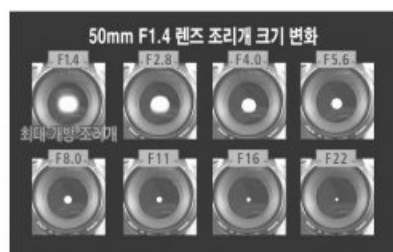
이미지 저장 방법과 관리

영상기록에 필요한 요소

인터뷰에 필요한 장비



렌즈



조리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노출과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



F2.8, 1/320초



F4, 1/320초



F5.6, 1/320초



F8, 1/320초



F11, 1/32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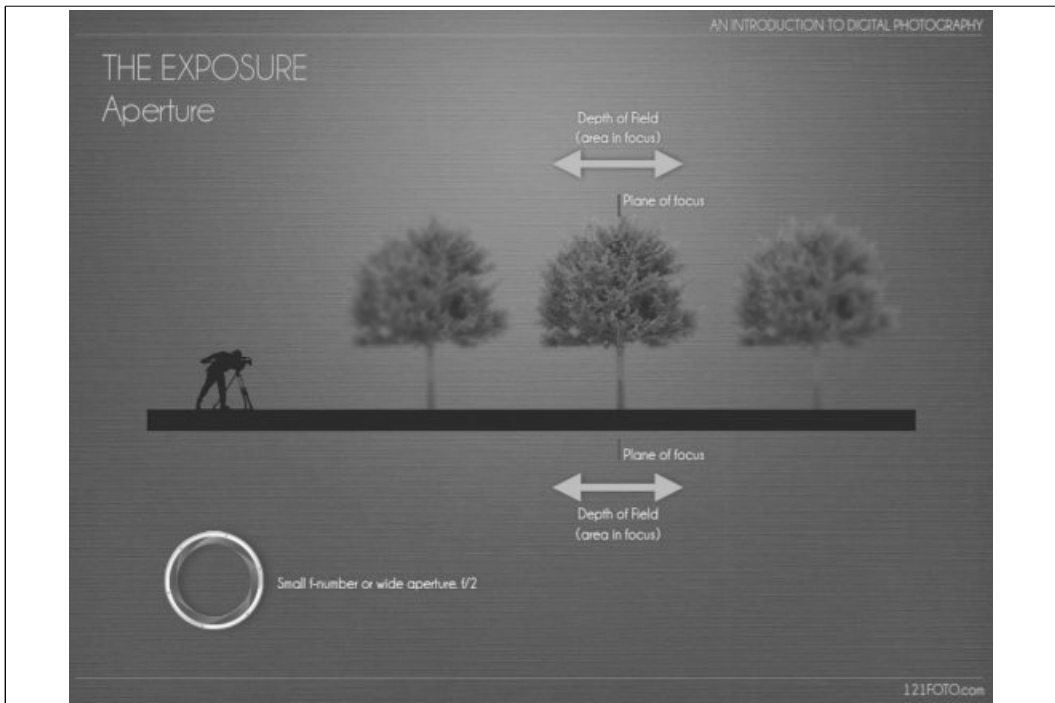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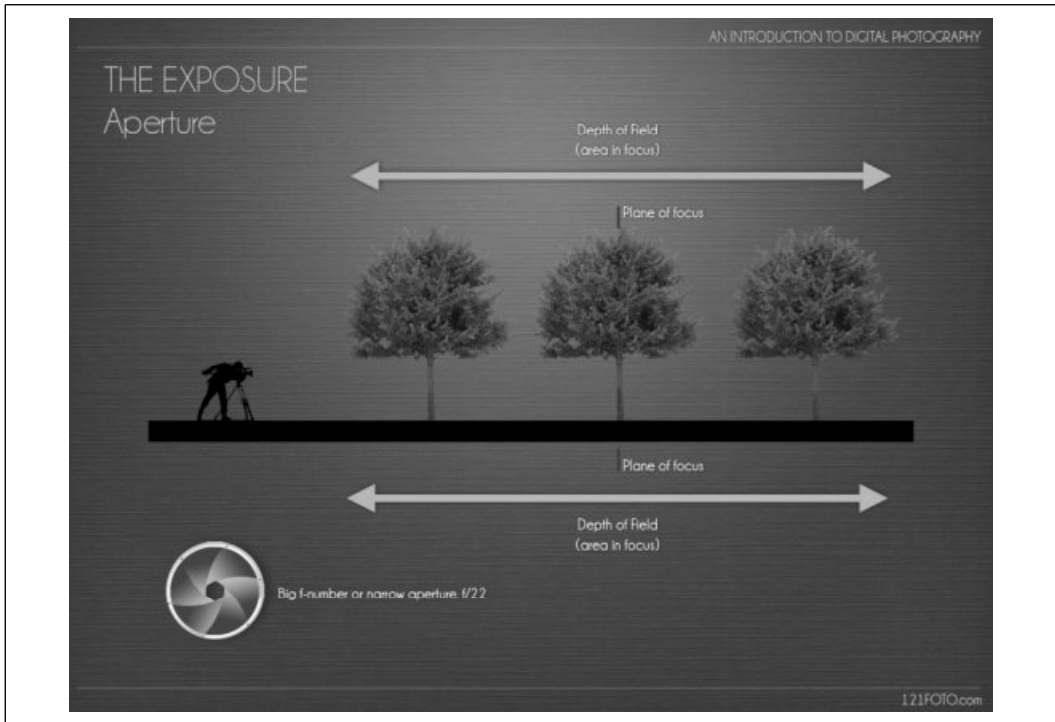
F16, 1/32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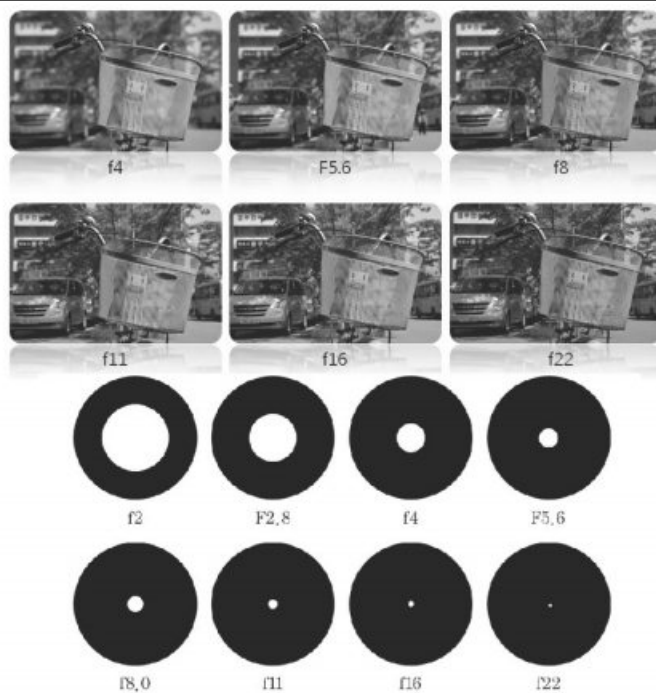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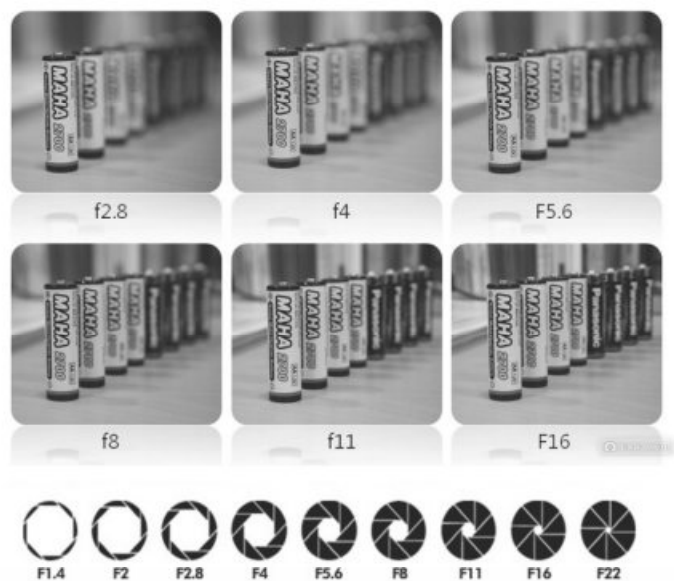


DEPTH OF FIELD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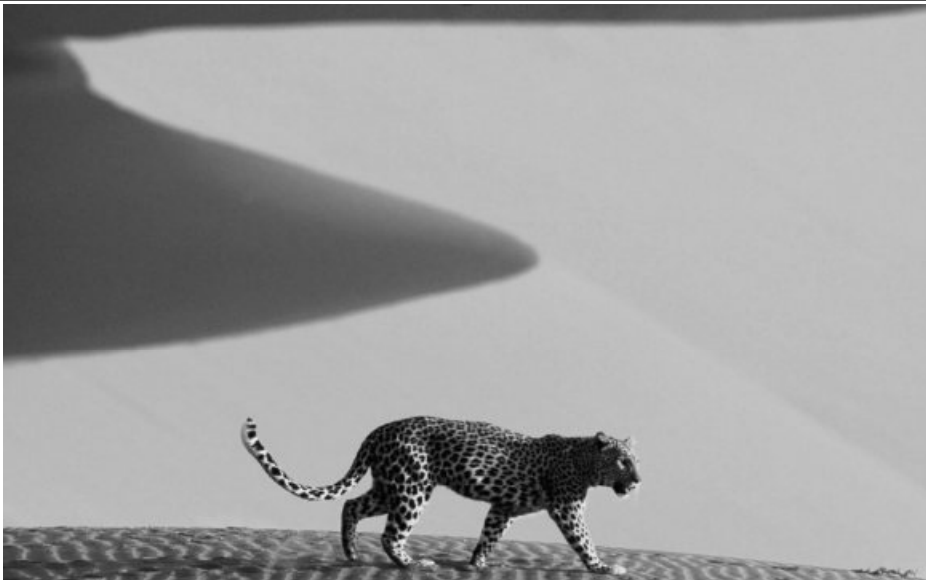


<http://camerasim.com/embed/camera-simulator/?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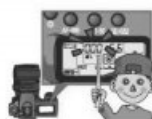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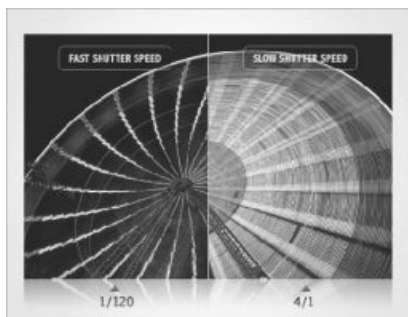




Selectable shutter speeds look like this.

1"	2	4	8	15	30	60
125	250	500	1000	2000	4000	

This is the shutter speed!



Fast Shutter



1/1000

Slow Shutter



3 Seconds

적정 노출의 이해

조리개값	f1	f1.4	f2	f2.8	f4	F5.6	f8	f11	f16	f22
셔터속도	1	$\frac{1}{2}$	$\frac{1}{4}$	$\frac{1}{8}$	$\frac{1}{15}$	$\frac{1}{30}$	$\frac{1}{60}$	$\frac{1}{125}$	$\frac{1}{250}$	$\frac{1}{500}$

F4, 1/15 가 적정노출이라고 가정할 때,

→ 조리개를 한스탑 조이면
(빛이 2배로 줄어듦)

조리개값	f1	f1.4	f2	f2.8	f4	F5.6	f8	f11	f16	f22
셔터속도	1	$\frac{1}{2}$	$\frac{1}{4}$	$\frac{1}{8}$	$\frac{1}{15}$	$\frac{1}{30}$	$\frac{1}{60}$	$\frac{1}{125}$	$\frac{1}{250}$	$\frac{1}{500}$

셔터속도를 한스탑 느리게 해야 노출이 맞는다. ←
(빛이 2배로 늘어남)

느린 셔터스피드



빠른 셔터스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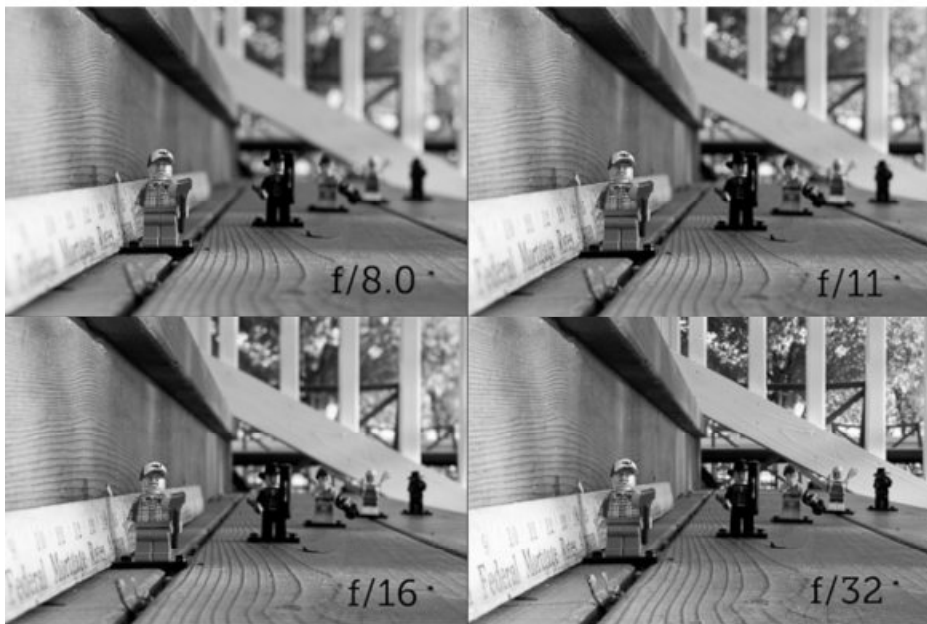


피사계 심도(조리개)



피사계 심도(조리개)의 효과를 이용한 촬영법





렌즈에 따른 심도

망원렌즈



“피사계 심도는”

조리개를 열 수록

피사체와 배경간의 거리가 멀수록

장초점(망원)렌즈일수록 심도가 얕아진다

광각렌즈



“피사계 심도는”

조리개를 조일 수록

피사체와 배경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단초점(광각)렌즈일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http://camerasim.com/camera-simulator/>

저장 방법

저장 폴더 만들기 이미지 관리하기

저장 장치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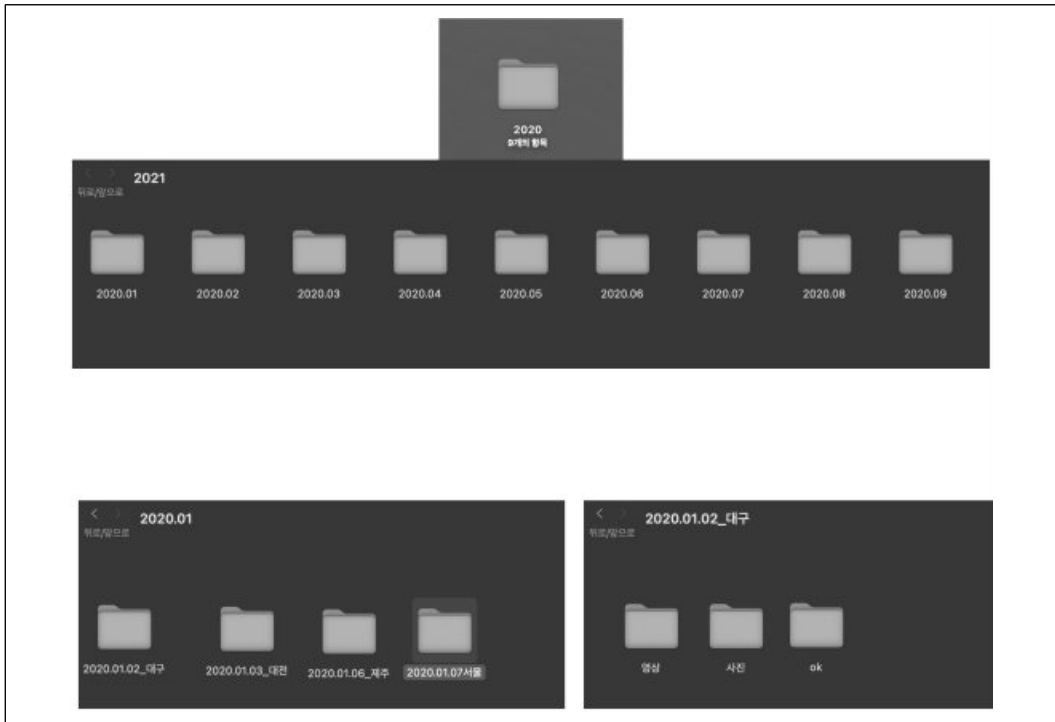
1 SATA 및 M.2, 그리고 mSATA 인터페이스 기반의 SSD 외형 비교



1 하드디스크의 내부 모습. 플러터(자기디스크)를 확인시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기록한다



1 SATA 방식 인터페이스와 플래시 메모리를 갖춘 일반적인 SSD의 내부 구조



기록 아이템 선정과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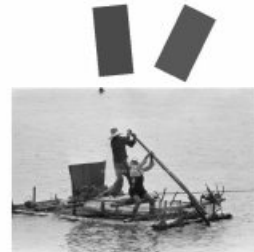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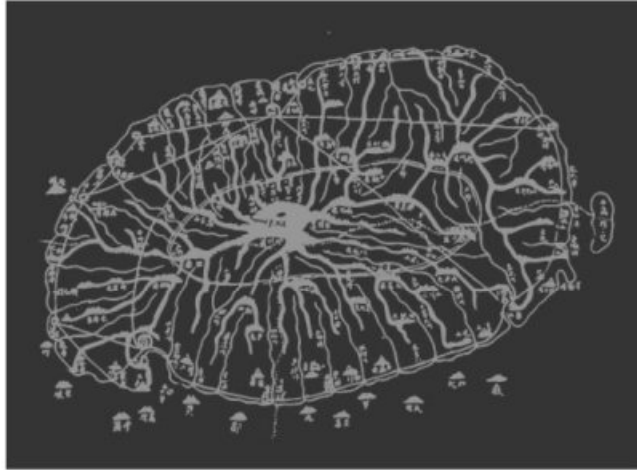
1.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2.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3. 제주학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1. 제주에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문전제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본향당 굿문화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포제(리사제)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해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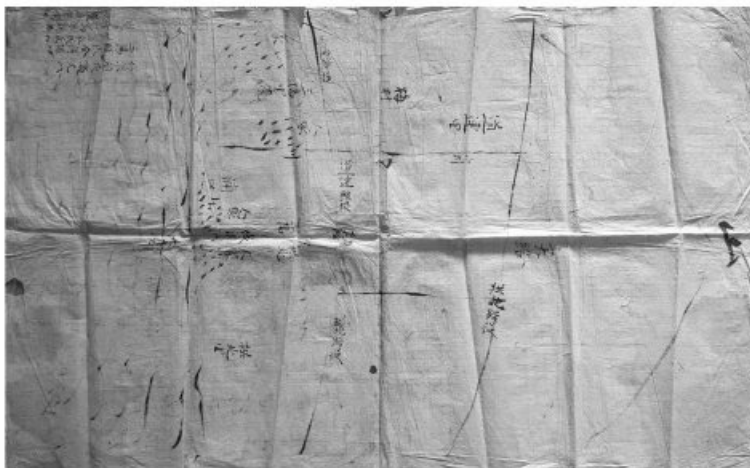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JRI 제주지역사회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마을문서



JRI 제주지역사회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갯일(양태장)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제주 일노래(민요)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DMx8ESCyo>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미륵불(서자복)



JRI 제주지역사회공헌재단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2.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JRI 제주지역사회공헌재단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기억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다.

기억은 원래 증인의 감각경험으로서 원초적인 형태로 증인의 감각 기관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 작용을 거쳐 뇌에 저장된다.

JRI 제주지역사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이 단계에서의 '기억'은 증인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는 없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거나 혹은 증인의 다른 개념 장치에 의해서 변질된다.

JRI 제주지역사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이 같은 원초적인 기억이 역사적인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구술되거나 글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료'라고 부른다. 기억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JRI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본의건 본의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는 다시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해석하고 또 선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피에르 노라

JRI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
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다.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
이 밀랍 판의 압인(押印)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
성되는 것이다.

➔ 안병직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 전설, 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기록화



JRI 제주지역문화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탐라 제주의 고유성을 가꾸는 제주학

신화의 섬, 살아있는 역사문화박물관



조사연구, 제주정체성 발굴, 확산

JRI 제주지역문화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진정성” authenticity

VS

“무대화된 고유성”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3. 제주학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 집단기억의 기록매체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 누구나 말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JRI 제주학연구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 제주학연구센터 오픈 아카이브 회원 가입
- 자료 등록 양식에 따라 사진, 영상, 음원 등을 업로드
-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성(인용 표시 분명히)
- 등록된 자료 감수(전문가 선정)
→ 수정보완 → 완료



JRI 제주학연구소



기록 아이템 선정과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기억, 구술, 기록의 진정성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감사합니다!

